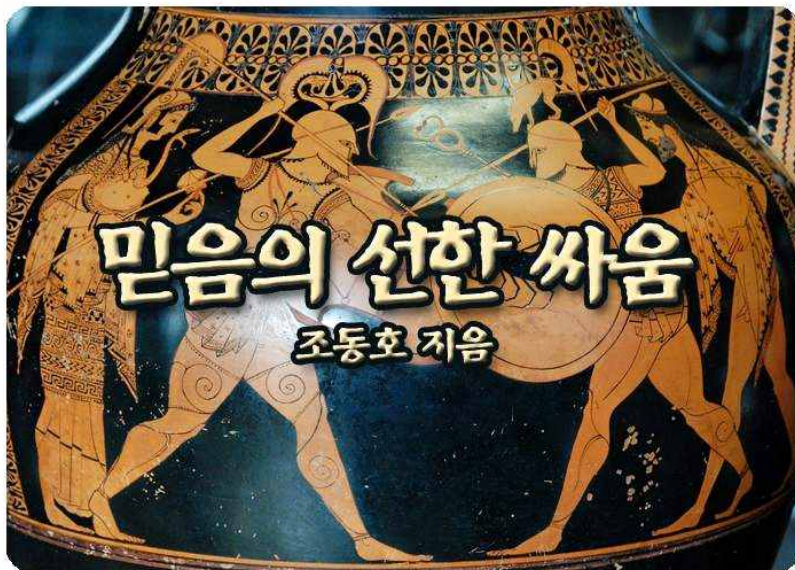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야기**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A story of the Epistles  
to the First Timothy, the Second Timothy, and the  
Titus:

THE GOOD FIGHT OF THE FAITH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20  
20-10 Beonyeong 8-gil Umsamyun Gyeryongsi,  
Choongnam, Korea 32815  
Tel(042)841-9697

## 머리말

주석가들은 전통적으로 ‘목회서신’이란 이름으로 디모테전서, 디모테후서, 디도서를 한 권으로 엮어 펴낸다. 그러나 필자는 처음부터 ‘1세기 교회질서’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엮어보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제목만큼은 <디모테전후서, 디도서 이야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바꿨다. 서신들의 내용이 1세기 교회질서보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와 ‘선한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바울서신의 대부분은 그리스도교 복음의 적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위에 굳게 서도록 권면한 글이다. 바울의 적대자들 또는 이단자들은 그간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과 헬라인 영지주의자들로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사무엘 진너(Samuel Zinner)는 <도마 복음>(The Gospel of Thomas)이란 책에서 그들이 유대인 에비온파라고 확신하였다. 진너는 바울의 적대자들을 두 그룹, 곧 유대인 에비온파와 헬라인 영지주의자들로 나누지 않고, 둘이 통합된 유대교적 영지주의 그리스도인 에비온파로 보았다. 이들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수장으로 있는 예루살렘교회 출신들로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훼방하였다. 그들은 시리아 안디옥, 갈라디아, 소아시아, 그리스 교회들에 침투하였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거의 모든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유대교회당들이 있었으며, 그들까지 에비온파에 합세하여 교회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유대인들의 기세가 확 꺾이기 전까지, 에비온파가 교회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 컸다.

에비온파는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문자대로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었으므로 큰 사도들의 추천장을 거론하며, 사도들의 승인권과 결정권을 악용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 그들은 삼위일체론을 거부하는 유일신론자들이었으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였다. 그들은 문자주의자들이었으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구약성경의 영적 해석 곧 예표론과 모형론에 근거한 구속사적 해석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마태복음을 뺀 나머지 신약성경 전체, 특히 바울서신들을 거부하였다. 또 에비온주의자들은 바울을 자칭 사도라고 폄훼하였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후

10:10)며 공격하였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으므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전 6:12)며 자유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으므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전 6:13)며 금욕을 외쳤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도와 장로들로부터 배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딤후 1:18, 6:12)고 권하였고, 자신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딤후 4:7)고 하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당부하였다(딤후 2:14, 3:1.8).

필자는 지면을 통해서 1세기 교회질서의 회복, 곧 1세기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래성과 순수성과 능력을 회복하는 일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여왔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서를 읽고 그 내용을 재창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1세기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래성과 순수성과 능력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 주신다면 필자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보람이요 보상이 될 것이다.

2020년 1월 1일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

## 차레

|           |   |
|-----------|---|
| 머리말 ..... | 3 |
|-----------|---|

### 디모데전서 이야기: 믿음의 선한 싸움/11

#### 1세기 교회질서01: 믿음의 선한 싸움(1)(답전 1:1-2)/13

|                       |    |
|-----------------------|----|
|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1) ..... | 13 |
|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2) ..... | 14 |
|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    | 15 |

#### 1세기 교회질서02: 믿음의 선한 싸움(2)(답전 1:3-4)/17

|                                |    |
|--------------------------------|----|
|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          | 17 |
|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         | 18 |
|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1) ..... | 19 |

#### 1세기 교회질서03: 믿음의 선한 싸움(3)(답전 1:5-11)/21

|                                |    |
|--------------------------------|----|
|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2) ..... | 21 |
|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3) ..... | 22 |
|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4) ..... | 23 |

#### 1세기 교회질서04: 믿음의 선한 싸움(4)(답전 1:12-17)/25

|                                 |    |
|---------------------------------|----|
|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       | 25 |
|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 | 26 |
|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           | 27 |

#### 1세기 교회질서05: 믿음의 선한 싸움(5)(답전 1:18-20)/29

|                          |    |
|--------------------------|----|
| “선한 싸움을 싸우며” .....       | 29 |
|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 | 30 |
|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   | 31 |

#### 1세기 교회질서06: 믿음의 선한 싸움(6)(답전 2:1-4)/33

|                                      |    |
|--------------------------------------|----|
|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1) ..... | 33 |
|--------------------------------------|----|

|                                      |    |
|--------------------------------------|----|
|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2) ..... | 34 |
|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3) ..... | 35 |

#### 1세기 교회질서07: 믿음의 선한 싸움(7)(답전 2:5-7)/37

|                                     |    |
|-------------------------------------|----|
|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증보자도 한 분이시니” ..... | 37 |
| “내가 ...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   | 38 |
| 기도의 힘 .....                         | 39 |

#### 1세기 교회질서08: 믿음의 선한 싸움(8)(답전 2:8-15)/41

|                                        |    |
|----------------------------------------|----|
|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 | 41 |
|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     | 42 |
|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           | 43 |

#### 1세기 교회질서09: 믿음의 선한 싸움(9)(답전 3:1-7)/45

|                                     |    |
|-------------------------------------|----|
|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              | 45 |
|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 | 46 |
|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         | 47 |

#### 1세기 교회질서10: 믿음의 선한 싸움(10)(답전 3:8-13)/49

|                                        |    |
|----------------------------------------|----|
|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      | 49 |
|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        | 50 |
| “집사들은 ...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 | 51 |

#### 1세기 교회질서11: 믿음의 선한 싸움(11)(답전 3:14-16)/53

|                     |    |
|---------------------|----|
| 하나님의 가족 .....       | 53 |
| 그리스로마인들의 가족 신 ..... | 54 |
| 한국인의 가족 신 .....     | 55 |

#### 1세기 교회질서12: 믿음의 선한 싸움(12)(답전 4:1-5)/57

|                               |    |
|-------------------------------|----|
|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        | 57 |
|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 | 58 |
|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      | 59 |

#### 1세기 교회질서13: 믿음의 선한 싸움(13)(답전 4:6-10)/61

|                             |    |
|-----------------------------|----|
|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1) ..... | 61 |
|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2) ..... | 62 |

|                                                |    |
|------------------------------------------------|----|
|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3) .....                    | 63 |
| <b>1세기 교회질서4: 믿음의 선한 싸움(14)(딤후 4:3-16)/65</b>  |    |
|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1) .....                      | 65 |
|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2) .....                      | 66 |
|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3) .....                      | 67 |
| <b>1세기 교회질서5: 믿음의 선한 싸움(15)(딤후 5:1-16)/69</b>  |    |
| “아버지에게 ... 형제에게 ...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         | 69 |
| “과부를 존대하라” .....                               | 70 |
|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                          | 71 |
| <b>1세기 교회질서6: 믿음의 선한 싸움(16)(딤후 5:17-25)/73</b> |    |
|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                      | 73 |
|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        | 74 |
|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                    | 75 |
| <b>1세기 교회질서7: 믿음의 선한 싸움(17)(딤후 6:1-2)/77</b>   |    |
| “자기 상전들을” .....                                | 77 |
|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                          | 78 |
|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             | 79 |
| <b>1세기 교회질서8: 믿음의 선한 싸움(18)(딤후 6:3-10)/81</b>  |    |
| 자족의 경건 .....                                   | 81 |
| 자발적 가난 .....                                   | 82 |
|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                              | 83 |
| <b>1세기 교회질서9: 믿음의 선한 싸움(19)(딤후 6:11-21)/85</b> |    |
| “너 하나님의 사람아” .....                             | 85 |
|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                 | 86 |
|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                       | 87 |
| <b>디모데후서 이야기: 믿음의 선한 싸움/89</b>                 |    |
| <b>1세기 교회질서20: 복음을 위한 고난(1)(딤후 1:1-10)/91</b>  |    |
|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 .....                        | 91 |
| “거짓이 없는 믿음” .....                              | 92 |

|                                                 |     |
|-------------------------------------------------|-----|
|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                          | 93  |
| <b>1세기 교회질서21: 복음을 위한 고난(2)(딤후 1:11-14)/95</b>  |     |
|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                      | 95  |
|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                   | 96  |
|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                      | 97  |
| <b>1세기 교회질서22: 복음을 위한 고난(3)(딤후 1:15-18)/99</b>  |     |
|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 .....                | 99  |
|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                         | 100 |
|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회를 베푸시옵소서” .....                | 101 |
| <b>1세기 교회질서23: 복음을 위한 고난(4)(딤후 2:1-13)/103</b>  |     |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               | 103 |
|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                | 104 |
|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                   | 105 |
| <b>1세기 교회질서24: 복음을 위한 고난(5)(딤후 2:14-19)/107</b> |     |
|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                     | 107 |
|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                      | 108 |
|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                    | 109 |
| <b>1세기 교회질서25: 복음을 위한 고난(6)(딤후 2:20-21)/111</b> |     |
|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                    | 111 |
|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                          | 112 |
|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              | 113 |
| <b>1세기 교회질서26: 복음을 위한 고난(7)(딤후 2:22-26)/115</b> |     |
|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                          | 115 |
|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                        | 116 |
| “하나님께 사로잡힌바 되어” .....                           | 117 |
| <b>1세기 교회질서27: 복음을 위한 고난(8)(딤후 3:1-7)/119</b>   |     |
| “너는 이것을 알라” .....                               | 119 |
|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러” .....                        | 120 |
|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                | 121 |

**1세기 교회질서28: 복음을 위한 고난(9)(딤후 3:8-17)/123**

|                               |     |
|-------------------------------|-----|
|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 | 123 |
|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     | 124 |
|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         | 125 |

**1세기 교회질서29: 복음을 위한 고난(10)(딤후 4:1)/127**

|                                 |     |
|---------------------------------|-----|
|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 | 127 |
| “그의 나타나실 것과” .....              | 128 |
|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       | 129 |

**1세기 교회질서30: 복음을 위한 고난(11)(딤후 4:2-8)/131**

|                                      |     |
|--------------------------------------|-----|
|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                  | 131 |
|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 | 132 |
|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       | 133 |

**1세기 교회질서31: 복음을 위한 고난(12)(딤후 4:9-22)/135**

|                                    |     |
|------------------------------------|-----|
| “테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      | 135 |
|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      | 136 |
| “주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 | 137 |

**디도서 이야기: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139****1세기 교회질서32: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1)(딤후 1:1-4)/141**

|                      |     |
|----------------------|-----|
| 디도서의 주제 .....        | 141 |
| ‘칭의’와 ‘성화’의 관계 ..... | 142 |
| 그레데의 지리적 배경 .....    | 143 |

**1세기 교회질서33: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2)(딤후 1:1-4)/145**

|                           |     |
|---------------------------|-----|
|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     | 145 |
|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1) ..... | 146 |
|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2) ..... | 147 |

**1세기 교회질서34: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3)(딤후 1:5-9)/149**

|                                 |     |
|---------------------------------|-----|
|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     | 149 |
|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    | 150 |
|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 | 151 |

**1세기 교회질서35: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4)(딤후 1:10-16)/153**

|                       |     |
|-----------------------|-----|
|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 | 153 |
|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   | 154 |
|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  | 155 |

**1세기 교회질서36: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5)(딤후 2:1-10)/157**

|                                    |     |
|------------------------------------|-----|
|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1) ..... | 157 |
|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2) ..... | 158 |
|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             | 159 |

**1세기 교회질서37: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6)(딤후 2:11-15)/161**

|                                   |     |
|-----------------------------------|-----|
|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              | 161 |
|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 | 162 |
|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           | 163 |

**1세기 교회질서38: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7)(딤후 3:1-2)/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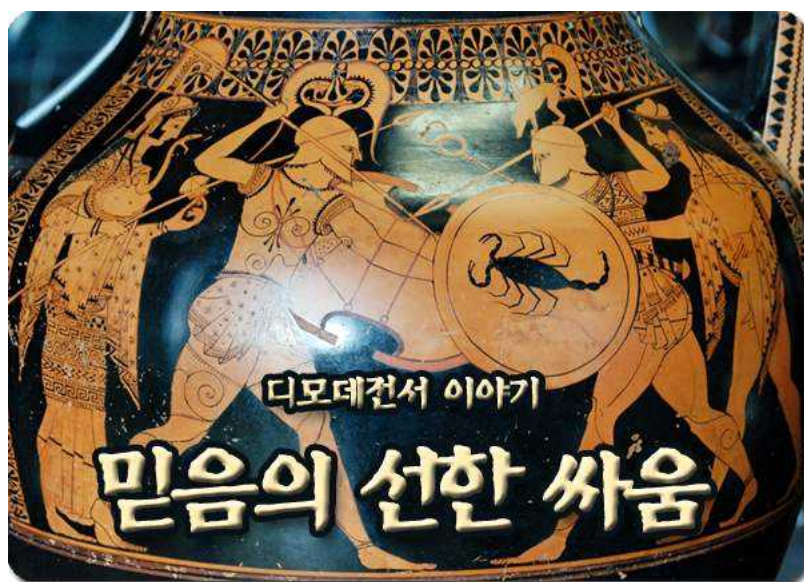
|                     |     |
|---------------------|-----|
| 목회서신의 기록연대 추정 ..... | 165 |
| 니고볼리 .....          | 166 |
| “기억하게 하라” .....     | 167 |

**1세기 교회질서39: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8)(딤후 3:3-8)/169**

|                                        |     |
|----------------------------------------|-----|
|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                | 169 |
|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 | 170 |
|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                 | 171 |

**1세기 교회질서40: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9)(딤후 3:9-15)/173**

|                                     |     |
|-------------------------------------|-----|
| “어리석은 ... 다툼은 피하라” .....            | 173 |
|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 | 174 |
|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           | 1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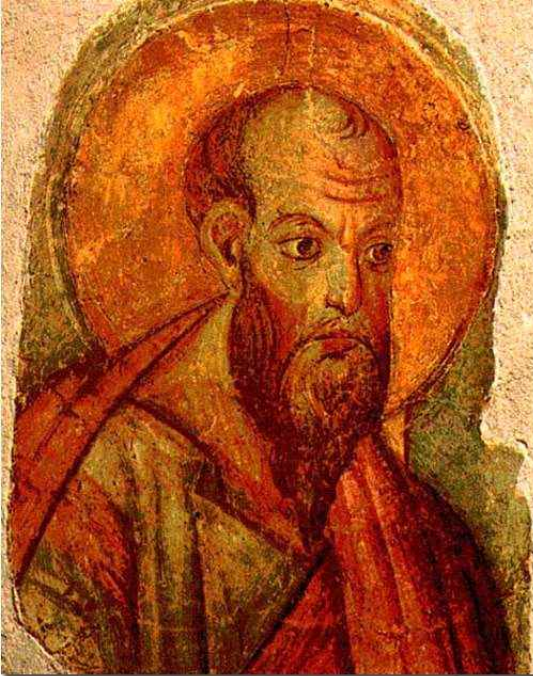




네로와 그의 모친 아그리피나를 새긴 금화(AD 54-57)  
전면면에 "AGRIPP AVGV DIVI CLAVD NERONIS CAES MATER,"  
'신성 클라우디우스의 (아내)이자 케사르 네로의 모친 아그리피나 아우구  
스타'라 새겼고, 뒷면에 "NERONI CLAVD DIVI F CAES AVGV  
GERM IMP TR P," '신성 클라우디우스의 아들이자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황제, 로마관'이라고 새겼다. 더덕나무관 중앙에 "EX SC"  
'원로원의 법령에 따라'(EX Senatus co.nsul.to)라고 새겼다.

## 1세기 교회질서아: 믿음의 선한 싸움(I)(답전 1:1-2)

##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I)



바울 사도(프레스코, 13세기 후반, 바티칸 박물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했다. 여기서 “하나님과 ...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는 바울과 동시대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네로 황제 시대의 주화에 적힌 “원로원의 법령에 따라”(EX SC)와 대조된다. 또 모세오경에 자주 쓰인 “여호와와 그의 명령에 따라”와도 비교된다. 바울은 개종하기 직전까지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행 26:10) 즉 안나스와 가야바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지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공회

(회당재판소)에 넘겼던 인물이었다. 그랬던 바울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도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주체 또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재설정할 필요를 느낀다. 우리가 지시받고 명령받는 말씀, 진리, 윤리, 도덕, 정의, 봉사 또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점검해볼 필요를 느낀다. 세상 사람들이 지시받고 명령받는 것들은 돈, 명예, 권력, 성공 또는 쾌락과 같은 것이고, 또 그것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윤리도 도덕도 정의도 진실도 짓밟아버릴 뿐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그 어떤 규칙도 지키지 않는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공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일에도 힘써야한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덜 성공하더라도, 좀 덜 갖더라도, 좀 덜 이루더라도, 그 과정과 방법과 수단이 옳아야하고, 성경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한다. 이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

바울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 바울시대에 ‘구주’는 ‘구원자’를 뜻

하는 말로써 보통 신들과 황제들에게 적용됐던 용어이다. 이 당시 황제들은 신, 신의 아들, 신의 현현, 혹은 주(Dominus)로 불렸다. 피조물이 감히 신성을 참칭했던 것이다. 아무튼 바울 당시 황제들은 ‘구주’ 곧 ‘구원자’였던 셈이다. 반면에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성의 권리를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돌리고 황제숭배를 거부하였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고, 죽음을 무릅쓴 일이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성삼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나머지는 다 가짜 신 곧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거나 참칭된 우상들이라며 숭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믿었고 또 그 같은 신념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믿었다. 그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였다.

###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2)



디모데(St Timot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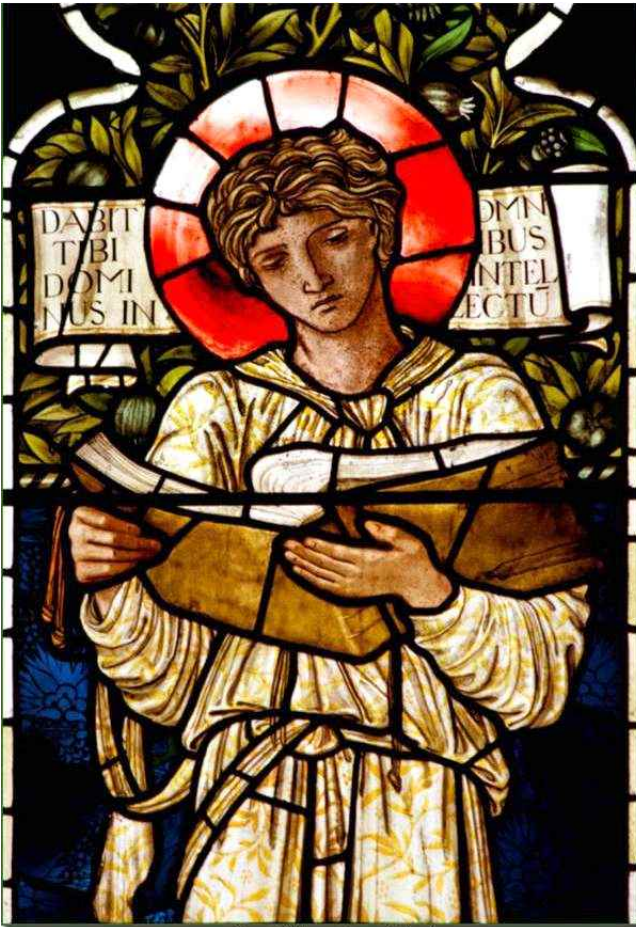
반면에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이 그들이 믿었던 신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기록을 거의 읽어보지 못하였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다신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런 그들이 굳이 유일신만을 고집하며 순교를 불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러 신들을 믿을 뿐 아니라, 그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황제가 인간이었을 지라도, 그들은 황제숭배를 거부할 명분이나 실익을 찾지 못하였다. 당

대의 주화들에 새겨진 문구들을 보면 당대의 백성들이 황제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황제들은 국가와 시민의 보호자(PR VINDEX), 대중의 희망(SPES PVBLICA), 영원한 왕(PRINC PERP), 왕중의 왕(SHAHANSHAH), 공정한 통치자(AEQUITAS AVG), 행복(FELICITAS)과 자유(LIBERTAS)와 풍요와 행운(TYCH)과 운명(행운, FORTVNAE)과 평화(PAX, PACI)와 승리(NIKE)를 가져다주는 자, 국가와 백성의 수호신(THEOS), 하나님과 주(DEO ET DOMINO) 또는 주와 하나님(DOMINUS ET DEUS), 신의 아들(DIVI F), 신의 현현(THEOU EPIPHANOUS), 신성(DIVO, DIVI, DIVVS)으로 홍보되었고, 황제 신들을 위한 별도의 신전들을 세워 죽은 황제에게는 물론이고 심지어 살아 있는 황제에게까지 분향하도록 강제하였다.

상당수의 현대인들은 무신론자임을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자신을 지배

하고 통제하는 많은 신들에 사로잡혀있다. 그들은 자기우상을 비롯해서, 철학자 베이컨이 말한 대로, 자기 편견에 맞는 사례에 마음이 동요되는 종족우상, 동굴에 갇혀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편협한 편견인 동굴우상, 무대에서 펼쳐지는 연극을 보면서 허구에 미혹되듯이 잘못된 논증이나 학설에 미혹되는 편견인 극장우상, 시장에서 조심성 없이 주고받는 여론에서 생기는 편견인 시장우상에 사로잡혀 있다.

###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티모데(St. Timothy)

에드워드 번 존스 경(Sir Edward Coley Burne-Jones)이 19세기 후반에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처치에 새긴 스테인드글라스. 두루마리에 쓰인 문장은 라틴어 성경 티모데후서 2장 7절 후반부로서 “주께서 법사에 네게 충경을 주시리라(dabit tibi Dominus in omnibus intellectum)”는 뜻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고백하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보좌 앞 성소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을 가질 때, 이 소망은 마치 우리 영혼을 위한 닳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안전하고 든든하게 정착시켜준다고 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맹기세택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하셨다고 했다(히 6:19-20).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의 상징으로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허무셨고, 모든 장벽들을 제거해버리셨으며, 그리스도인

들이 당신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입고 때를 따라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성소에 도달하여 그곳에서 영생할 새로운 살아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히 4:16, 10:19-20).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산 소망이시다. 비록 그 길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색깔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려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하늘 성전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다. 참고로 하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나 담장이 없다(계 4-5장).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담력” 또는 “담대히”의 뜻이다. 지상의 교회는 하늘 성전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당연히 예배당은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야 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색깔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

2절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빌고 있다. 또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와는 믿음 안에서 이뤄진 부자지간임을 밝히고 있다. 유대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식탁은 제단이며, 아버지는 제사장이요, 교사이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다. 유대인들은 친부가 아니더라도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바울도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를 “아들”(딤후 1:18), “신실한 아들”(고전 4:17), “사랑하는 아들”(딤후 1:2), “참 아들”(딤후 1:2, 딤후 1:4), “나의 아들”(몬 1:10)로 불렀다. 베드로도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벧전 5:13). 이런 점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

## 1세기 교회질서02: 믿음의 선한 싸움(2)(답전 1:3-4)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바울선교에 있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거점은 트로아와 빌립보였다. 트로아에는 가보의 집이 있었고, 빌립보에는 루디아의 집이 있었다. 이들의 집은 가정교회였을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에베소였고, 마케도냐의 대표적인 도시는 빌립보였다. 바울은 에베소에 거점을 두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아시아 일대에 교회들을 세웠고, 빌립보에 거점을 두고 마케도

냐 일대에, 고린도에 거점을 두고 아가야 일대에 교회들을 세웠다.

3절,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는 주후 64년경 상황에 대한 언급으로 추정된다. 바울은 63년경에 로마에서 풀려났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네로의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바울을 기소한 유대인들이 로마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64-5년경에 바울은 재차 체포되었는데, 64년 7월 18일부터 9일간 로마시의 삼분의 일을 태운 대화재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였다.

마케도냐는 빌립보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빌립보에 머물며, 필요하다면, 데살로니가를 거쳐 고린도까지도 갔었을 수 있다. 만일 이 때가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연금된 상태로 네로의 재판을 기다렸던 이후의 상황이라면, 아마도 바울은 모든 지역의 교회들의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싶어 했을 것이다. 바울은 주후 57년 에베소에서의 선교를 마지막으로 최소 4년간 영어의 몸이었기 때문에 기존 교회들의 상황이 매우 궁금했을 것이고, 자신을 육신적으로 알지 못하는 신생 교회들 곧 그레데와 같이 새로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도 방문하고 싶었을 것이다.

바울의 공백기가 5년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발전하고 있었고,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낳고 있었다. 이단자들의 등장도 그 한 가지요, 리더십의 문제가 또 다른 한 가지였다. 로마에서의 연금에서 풀려난 이후 바울이 쓴 세 개의 편지들, 곧 디모데전서와 후서 및 디도서는 바로 교회 리더십에 관련된 목회서신들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1세기 교회들의 질서를 세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전통들을 읽게 된다. 그리고 이 1세기 교회질서야말로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래성,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펼치는 환원운동의 목표가 바로 이것들이다.

###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에베소에 남아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

3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교회에 남게 한 이유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다. 만일 그들이 잘 몰라서 그랬거나 율법에 대한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다면, 디모데의 설명과 권유를 받아들였겠지 만, 만일 바울을 대적하고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디모데로서는 그들을 저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디모데는 이미 수년전 고린도에서 바울의 적대자들로부터 쓴 맛을 본적이 있다.

다른 교훈은 앞서 쓰인 바울서신들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바가 있다. 수년전 갈라디아지역 교회들에 바울의 적대자들이 나타나 “다른 복음”(갈 1:6,7,9)을 전하고 있었다. 이 같은 자들이 고린도교회에도 침투했었다. 바울은 그들이 “히브리인”(고후 11:22)들이고, “지극히 큰 사도들”(고후 11:5, 12:11)을 빙자한 “거짓 사도”(고후 11:13)들이며,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고후 11:4)을 전한 자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민족성별 남녀노소의 차별 없이 또 율법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서 온다는 바울의 가르침에 반발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삼위일체론을 거부한 단일신론자로서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근본정신을 일깨워준 참교사정도로 생각했다. 그들은 자기 그룹의 지도자로 예수님의 이복형제인 야고보를 꼽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름과 실천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섬김과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그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그리스도종인들)이 아니라, 옛 언약의 일꾼들(여호와종인들)이었다. 그들은 토라를 엄격히 준수해야 고토회복과 민족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민족성별 빈부귀천 차별 없이 값없이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증인들 앞에서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고, 하늘 가나안땅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가족의 식구가 된다는 새 언약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팬(fan)이었지, 제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 교사였지, 구세주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따름과 실천의 대상이었지,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배움의 대상이었지, 헌신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예슈아였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장차 올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힐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행하여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자였다. 그들에게 장차 올 메시아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할 자가 아니라, 빼앗긴 고토와 주권을 회복시킬 자였다.

####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1)



에베소의 주 도로인 cardo에 위치한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신전. 황제들은 살아 있는 신들이었다. 그들을 위한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다.

디모데전서는 다른 교훈을 전한 자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그들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그리스 로마신화를 말한 것 같지는 않다. 바울은 이어지는 글에서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리를 믿기보다는 율법의 실천을 앞세우는 유대인들에게 신화는 없기 때문이다.

‘족보’는 천상적 존재들의 우열에 관련된 사상으로 누가 더 천상적인 존재에 가까운가 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 천상적인 존재들의 우열에 관한 당대 그리스 로마인들의 관심부터 먼저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족보 곧 조상들의 뿌리를 그들이 믿었던 신들에게서 찾곤 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의 아들이나 딸이 많은 것도 그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자기 조상들은 신이었거나 신의 아들이나 딸이었다는 식이다. 예를 들면, 크레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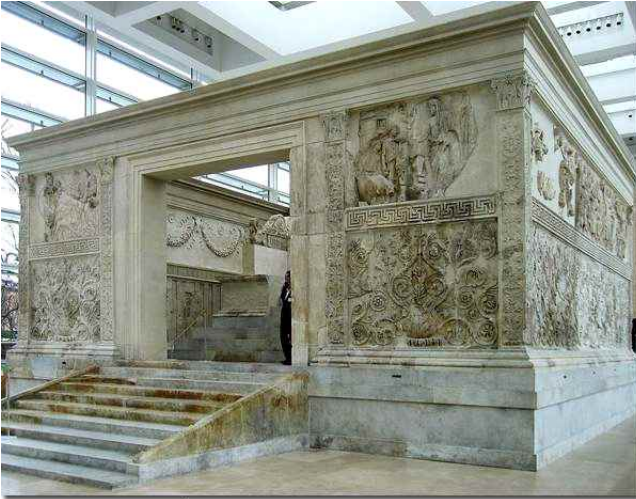
의 전설적 왕인 미노스는 제우스가 에우로페(유럽)를 크레타로 납치해서 낳은 아들이다. 결국 미노스 가문의 뿌리는 제우스인 셈이다. 반면에 제우스가 흰 황소로 변신하여 황소성애자인 에우로페로부터 미노스를 낳았기 때문에 미노스는 수간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그레데(크레타)인들은 황소의 자손인 셈이다.

그리스 로마 신들의 족보는 복잡하다. 신들의 숫자가 명사들만큼이나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마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고, 삼위일체 신앙을 세우기까지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에게는 그들이 믿었던 신들에 대한 통일된 이야기가 없었다. 하나의 신화는 또 다른 신화와 상반되거나 모순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신화는 허탄하고, 허탄한 신화에서 연결점을 찾는 족보는 끝이 없다.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가문의 명성을 높이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전혀 유익이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한 아버지의 형제자매들이다. 신화에서 연결점을 찾았던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의 족보는 복잡한 가짜 신들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족보는 단순하여 참 신이신 야훼와 그리스도에게 바로 연결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세대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밑에 같은 라인에 횡으로만 적힌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비록 그들의 족보가 야훼 하나님께 연결되지만, 그들 위로는 수많은 조상들이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출 3:6)이란 말이 그런 뜻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말할 때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 1세기 교회질서03: 믿음의 선한 싸움(3)(답전 1:3-11)

##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2)



아우구스투스의 평화의 제단(Ara Pacis Augustae, 9 BC, 로마)  
아우구스투스의 승리로 얻어낸 평화가 지속되기를 기원하며 봉헌하였다.

바울 당대의 유대인들은 천상의 존재들의 우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이런 관심은 바벨론 유배기 전 후에 근동에서 받은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히브리서 1장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천사까지 언급하고, 예수님을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으로 강조하였는데 그 이유가 어찌면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천사숭배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했고, 민수기 12장 8절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으며, 신명기 34장 10절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천사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족장들과 모세와 선지자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메신저로 믿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로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토라를 모세에게 전달하셨다(히 2:2, 행 7:38, 53, 갈 3:19)고 말하기에 이른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토라를 모세에게 전달하셨다는 이 믿음은 바벨론 유배이후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중세기 세파르딕 유대인 랍비요 의사였던 마이모니데스(Maimonides, AD 1135-1204)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영적 존재들을 천사들로 보고 10등급으로 나눈바가 있다. 그는 1등급에 “네 생물”(Chayot Ha-Kodesh, 겔 1:5,8), 2등급에 “바퀴들 속에 있는 그룹 영들”(Ophanim, 겔 1:20-21, 10:17), 3등급에 “용사”(Erelim, 사 33:7), 4등급에 “불속에서 번쩍이는 금불이 같은 것”(Chashmalim, 겔 1:4)을 낙점시켰다. 대신에 “스랍들”(Seraphim, 사 6장)을

5등급, “천사들”(Malachim)을 6등급, “엘로힘”(Elohim)을 7등급, “엘로힘의 아들들”(Bene Elohim, 창 6:2)을 8등급, “그룹들”(Cherubim, 창 3:24)을 9등급, “사람” 모습의 천사(Ishim, 창 18:2, 단 10:5)를 10등급에 분류하였다.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수호하는 어전천사들이자, 의전 천사들이며, 하나님의 전차들이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다. 당연히 1등급 천사이다. 하지만 스랍과 그룹은 1등급인 네 생물과 동일한 생물이고, 엘로힘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아마도 마이모니데스는 엘로힘이 복수명사란 점 때문에 신적 존재인 천사로 분류한 것 같다.

###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3)



티베리우스 황제의 제단 주화(AD 8-14, 후그두눔, 리옹 프랑스)  
전면에 월계관을 쓴 티베리우스의 두상과 그 둘레에 TI CAESAR AVGVST F IMPERAT VII(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일곱 번째 알렉산드로스)라 새겼다. 뒷면에 종려가지와 팔갈빔으로 엮은 시민관을 손에 든 여신 승리들을 제단 기둥으로, 중앙에 시민관을 좌우에 월계수와 남성들을 새겼고, 제단 밑에 ROM ET AVGV(로마와 아우구스투스에게)라고 새겼다.

유대인들의 기도서 〈싯두르〉에 의하면, 유대교 정통주의자들 혹은 보수주의자들은 안식일 저녁기도회(금요일)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혹은 안식일 저녁식사(금요일) 식탁에서 수호 천사(섬기는 천사)들에게 기도문을 낭송 하는 것이 관례이다. “섬기는 천사시여,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가장 높은 곳의 천사들이시여, 만왕의 왕으로

부터, 거룩하신 분이시여 복 받으소서.” 또 상당수 유대인들은 잠들기 전에 네분의 대천사들께 기도문을 낭송한다. “저의 오른쪽에서 미카엘이, 저의 왼쪽에서 가브리엘이, 저의 전면에서 우리엘이, 저의 뒤편에서 라파엘이, 저의 머리위에서 하나님의 쉼키나가 지켜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구약외경 〈에녹1서〉에는 이들을 포함한 일곱 대천사들이 언급되고 있다.

또 유대인들은 초막절축제 직후 토라 완독을 축하하는 ‘심햇 토라’ 때 회당에서 모든 남자아이들에게 혹은 모든 아이들에게 토라를 읽게 하고, 전 회중은 그들을 위해서 창세기 48장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를 낭송하여 축복한다.

헬라인들도 천사를 숭배하였다. 헬라인들의 천사숭배는 어떤 천사들이 인간의 일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지배한다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천사들을 달라고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에게 영지(gnosis)를 계시하는 인간보다 더 높은 계급의 신적 존재 즉 빛의 사자들을 믿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참이 아니고, 불완전한 창조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동굴감옥 같은 어둠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인간 역시 불완전하지만, 그 내면에 신적인 불꽃이 있어서, 인간보다 높은 계급인 빛의 사자들로부터 영지를 받아 깨달으면, 육체감옥을 탈출하여 근원적인 빛의 세계에 도달하여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또 저급한 신인 구약성서의 조물주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것을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 뱀을 지혜와 빛의 사자로 높였다.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논쟁을 일으키고 헛된 논쟁에 빠져들게 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에 힘썼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런 복음에 걸맞은 건전한 교리를 따랐다.

####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4)



로마의 신들이나 화성과 금성을 위한 희생제단(AD 124년경). 후에 실바누스 신상의 받침대로 사용되었다. 로마 창립에 관련된 로물루스와 레무스, 양치기 파우스투루스, 의인화된 티베르 강이 복조되어 있다(팔라초 마시모 박물관, 로마).

신화는 3만이 넘는 거짓 신들을 만들어냈다.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격화하여 ‘주와 신,’ ‘신의 아들,’ ‘신의 현현’이라고 주장하였다.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의 바로(Pharaoh), 바벨론의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메데 파사의 고레스(Cyrus), 헬라의 알렉산더, 안티오코스 4세,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등이 모두 거짓 신들 혹은 거짓 신의 아들들이었다.

신화는 잘못된 종교와 신앙으로 발전되었다. 그중 바쿠스축제는 악명이 높았다. 2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황제숭배나 각종 우상숭배를 위해 지어진 신전들과 신상들과 제단들이 유물로 남아 있다.

신화는 신들에 대한 믿음과 불굴의 투지와 용기와 인내 또는 선과 악(오만과 자기우상화)에 대한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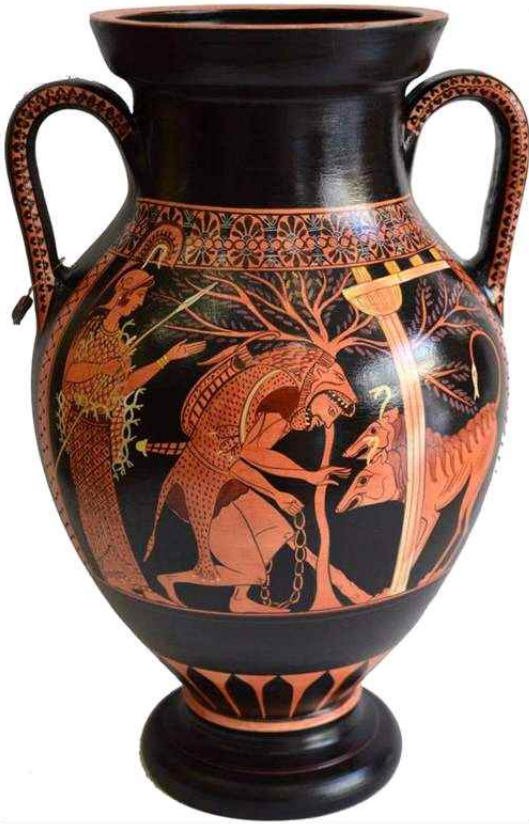
들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통치자의 통치이념과도 맥을 같이한다. 바벨론의 창

조신화가 대표적이다. 인간창조의 목적이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신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벨론의 창조신화는 백성을 황제의 노예로 삼기 위한 속임수였다.

신화는 문화예술과 사상까지 창출한다. 모든 민족이 갖는 독특한 문화예술은 그 대부분이 그들이 믿는 신들에 대한 신심의 표현들이다. 그것이 신전이든, 사찰이든, 사당이든, 교회이든, 조각이든 프레스코이든, 도기화이든 다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신화가 허구에 불과하다고 해서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신화는 당대의 문화와 사상과 예술과 지혜와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대학에서 신화를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성경은 동시대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섬긴 신앙인들의 글이므로 동시대의 신화들과는 전혀 다른 사상과 지혜를 담고 있다. 신화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신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성경이 신화에서 차용됐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 바울이 4절에서 지적한대로,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신화보다 월등히 뛰어난 글이다. 만의 하나 성경에 신화적 요소들이 다소라도 담겨있거나 그 차별성이 월등하지 못했다면, 성경을 헐뜯고자 하는 이들의 공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신구약성경에는 신화도 없고 여신도 없고 여사제도 없고 우상도 없다. 계시의 차이로 말하자면, 신화는 별빛에, 구약은 달빛에, 신약은 햇빛에 비교된다. 여기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성이 있다.

## 1세기 교회질서04: 믿음의 선한 싸움(4)(답전 1:12-17)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헤라클레스와 아테나를 그린 암포라(520 BC, Louvre)  
헤라클레스를 음부로 안내한 아테나가 헤라클레스를 뒤에서  
응원하고 있고, 헤라클레스는 아테나의 지직에 힘입어  
음부의 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를 사로잡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내하기도 했다. 페르세우스는 아테나가 준 방패를 가지고 메두사의 모습을 비춰보며 접근하여 그녀의 목을 베었고, 벨레로폰은 아테나가 준 황금고삐를 가지고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를 잡아타고 괴물 키마이라를 물리쳤다. 아테나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내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도움을 주었다.

반면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생각에만 존재하는 가짜 신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자신들을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신다고 확신하였다. 그

바울시대에 그리스 로마인들은 인간에게 귀감이 되는 영웅들을 묘사할 때는 반드시 그들 곁에 조력자인 지혜와 용기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그려 넣었다. 헤라클레스가 헤라로부터 부과된 숙명적인 과업들을 수행해낼 때마다 아테나는 그의 곁에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아손과 페르세우스와 같은 다른 영웅들도 마찬가지였다. 아테나는 그들을 능력으로 덧입혔고, 그들을 충성되게 여겼으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그들 곁에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테나는 헤라클레스가 조국 테베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의 곁에서 함께 싸웠고, 스팀팔로스 숲의 새를

쫓을 때는 청동으로 된 딱따기를 만들어주었으며, 케르베로스를 잡

고자할 때는 음부로 가는 길을 안

방패를 가지고 메두사의 모습을 비

쳐보며 접근하여 그녀의 목을 베었고, 벨레로폰은 아테나가 준 황금고삐를 가

지고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를 잡아타고 괴물 키마이라를 물리쳤다. 아테나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내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도움을 주었다.

반면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생각에만 존재하는 가짜 신들을 의지

하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자신들을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신다고 확신하였다. 그

러므로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는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주께 은혜를 입고 성실히 살아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설사 능력이 뛰어나고 충성스러울지라도 그들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주께서 덧 입혀주신 것으로 여길 뿐 아니라, 자신들의 성실함과 충성심조차도 주께서 베풀어주신 자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도 자기가 잘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고 재주가 미천하지만 자비하신 주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한다.

###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오디세우스와 아테나를 그린 암포라(440 BC, Vulci)  
아테나가 오디세우스와 알키누스의 딸 나우시카아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습. 손에 쥔 나뭇가지들은 알몸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써 그가 당한 처지를 상징한다. 이로써 오디세  
우스는 나우시카아의 도움으로 20년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된다.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교인으로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다. 유대교는 교리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민족의 생사가 유일신 야훼와 맺은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믿는 민족 종교요 실천 종교이다. 게다가 유대민족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육신의 문제였다. 따라서 유대교인들에게는 장차 올 메시아가 영적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할 하등의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의 빼앗긴 주권과 추락한 명예와 고토를 되찾아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정치인이면 족하다. 따라서 바울도 헬기왕성하던 시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야가 장차 오실 자 메시아라는 주장,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주장,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주장,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그리스도교의 주장들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의 위임장을 받아들고 그리

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주요 도시와 심지어 외국에까지 다녔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대로 공회에 넘겼고, 공회의 장로들은 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며 곤장을 치게 한 후 옥에 가뒀다. 여기서 공회란 회당을 말한다. 회당은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 열 명이상만 모이면 조직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행위는 그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지나친 열심과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그의 이 열심과 열정은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었다. 그 열심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돌려놓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13-15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한 말씀의 뜻이다.

####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아테나와 페르세우스를 그린 시툴라(양동이, 370BC, Puglia) 아테나가 페르세우스에게 그가 메두사의 목을 벨 수 있도록 방패와 단칼을 건네고 있고, 페르세우스는 창과 헤르메스의 날개달린 부츠와 하데스의 모자(cap)로 무장하고 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님께 긍휼을 입은 까닭이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라도 그리스도 예수님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까닭을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13절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하였다. 아무리 큰 죄라도 알지 못하고 행했다면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16절 전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음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없는 인내로 대하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자기를 본보기로 삼아 보여주셨다는 뜻이다. 셋째는 16절 후반에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죄인 중에 괴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기에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까닭은 훗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기위한 것이었다는 뜻이다.

바울은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은총과 믿음과 사랑이 자기에게 넘쳐흘렀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다.”고 하였고, 17절에서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찬양하였다.

“그리스인들에게 신을 만들어준 사람은 호메로스(800?-750 BC)와 헤시오도스(740-670 BC)이다”는 말이 있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저자이고, 헤시오도스는 신의 족보를 정리한 <신통기>의 저자이다. 신화는 통치자들에게 필요했지만, 오락이 필요한 평민들에게도 필요했다. 신들의 이야기는 연극무대에서 희화되었고, 인간보다 못한 신들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종종 오버랩 되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신화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신앙에서 신화를 철저히 배제시켰다.

## 1세기 교회질서05: 믿음의 선한 싸움(5)(답전 1:18-20)

## “선한 싸움을 싸우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십자가’ 주화(AD 320)  
전면에 갑옷차림에 오른쪽 어깨에 창을 결친 황제의 두상을 새겼고, 임페라토르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투스(IMP CONSTANTINVS AVG)라고 새겼다. 뒷면에 승리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서 ‘로마 백성의 명성세’(VOT PR=VOTA POPVLI ROMANI)라고 쓴 방패를 붙든 모습을 새겼고, 제단 전면엔 월계관과 그 사이에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새겼다. 그리고 둘레에 ‘영원한 왕에게 즐거운 승리를’(VICTORIAE LAETAE PRINC PERP)이라고 썼고, 밑에 주조 마크인 PLN를 새겼다.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 교회는 세 가지 고통을 겪고 있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리적인 박해로 고통을 겪고 있었고, 두 번째는 내부의 적대자인 이단자의 도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었으며, 셋째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질서문제, 치리문제, 예배문제 등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었다. 신약성경 뿐 아니라 구약성경조차도 그 때

부분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록되었다. 따라서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끈, 인내의 끈,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권면하고, 박해자를 향해서는 기독교의 무흠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 이단에 직면해서는 이단자들로부터 교회를 보수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을 교회의 표준과 잣대로 세우고자 하였다. 또 교회가 성장하면서 발생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펜을 들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교는 3백여 년에 걸쳐 로마제국의 황제들이 말살을 시도한 10여 차례의 대 박해(Great Tribulation)를 이겨내고 제국의 유일한 종교 곧 국교가 되었으며, 4세기 초부터 삼위일체론을 담은 신앙고백서들의 작성 등을 통해서 단일신론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한 싸움에 힘썼다. 또 4세기 말부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27권의 신약성경을 정경으로 확정짓고, 예배예전을 발전시켰으며, 사제직제도 등을 확립하였다. 다른 한편 이때부터 서서히 1천여 년에 걸쳐서 교회(가톨릭)는 적폐를 쌓기 시작했고, 결국 또 다른 선한 싸움 곧 종교개혁이란 대수술을 받아야했다.

디모데전서는 교회내부에 침투한 이단처리와 일군선임 등에 관해서 기록한 목회서신이다. 교회에 침투한 이단자들에 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두 차례나 당부하였다. 디모데전서 1장 18-19절에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고,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고 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함으로써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지난 2천년에 걸친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선한 싸움의 역사였다.

###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십자가’ 주화(AD 334)  
전면에 갑옷차림에 월계관을 쓴 황제의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아우구스투스(CONSTANTINVS MAX AVG)라고 새겼다. 뒷면에 투구를 쓴 두 군인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각각 오른손에 거꾸로 세운 창을, 왼손에 땅에 내리놓은 방패를 쥔 모습을 새겼으며, 둘레에 군대의 영광(GLORIA EXERCITVS)이라고 새겼다. 그리고 두 개의 군기(LABARUM)사이에 그리스도(XPISTOS)의 첫 두 글자 키-로(XP=CHR)를 새겼다. 밑에 ‘PCONST’는 프랑스의 로마노시 아를(Arles 혹은 constantia)을 뜻하는 주조 마크이다.

디모데전서 1장 18-20절의 내용은 이렇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네게 선포된 예언의 말씀들을 회상하면서 이 지시를 내린다. 너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19절,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란 군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양심을 버림으로써 파선하였다.” 20절 “그들 가운데에 히메나오스와 알렉산드로스가 있는데, 나는 그들을 사탄이

란 적장에게 잠시 넘겼다. 그들이 사탄의 노예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했던 행위를 회개할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

여기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라는 말씀은, 첫째, 4장 14절,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라.”에 연결된다. “전에”란 말은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를 말한다. 1세기 그리스도교에는 오늘날과 같은 총회나 지방회 조직이 없었다. 목사들도 없었다.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같은 이들은 떠돌이 목회자들이었고, 장로들이 개교회의 불박이 지도자들이었다. 유대교 회당에는 보통 세 명의 장로들이 있었다. 그들은 회당장과 지방공회원(지방재판장)이기도 했다. 1세기 교회들에도 세 명의 장로들이 있었다. 그들은 목양자와 감독자였다. 디모데에게

안수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이를 바울은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라고 한 것이다.

둘째,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에서 예언은 안수식에서 장로들이 디모데에게 준 권면을 말한다. 이를 바울은 다른 말로 “네 속에 있는 은사”라고 하였다. 장로들이 디모데에게 권한 말씀 곧 디모데가 자기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은사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워야 할 선한 싸움에 필요한 무기 또는 군함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나가 영웅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그들의 곁을 지키며 응원하고 격려한 것과 같다.

셋째,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라는 말씀은,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에 연결된다. 디모데는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특히 많은 증인 앞에서 다짐했던 결심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이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본을 보이며 그의 길을 인도하였다.

####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십자가’ 주화(AD 334-5)  
전면에 갑옷차림에 월계관을 쓴 황제의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아우구스투스(CONSTANTINVS MAX AVG)라고 새겼다. 뒷면에 투구를 쓴 두 군인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각각 오른손에 거꾸로 세운 창을 왼손에 땅에 내리놓은 방패를 쥔 모습을 새겼으며, 둘레에 군대의 영광(GLORIA EXERCITVS)이라고 새겼다. 그리고 두 개의 군기(LABARUM)사이에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새겼다. 고 지옥에도 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무모한 짓을 한 것은 아니다. 헤라클레스에게는 방망이가 있었고,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 아폴론에게는 백발백중하는 활이 그리고 아킬레우스에게는 방패가 있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가진 무기(타고난 재능)가 그들을 영웅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천하의 영웅호걸이라도 아무런 도움 없이 맞닥뜨린 난관을 헤쳐 간 것은 아니다. 헤라클레스나 오뒤세우스에게는 지혜와 용기와 전쟁의 신 아테나의 도움과 격려와 응원이 있었고, 페르세우스나 벨레로폰도 마찬가지였다. 아테나는 페르세우스에게 그가 메두사의 목을 벨 수 있도록 방패와 단칼을 건넸고, 벨레로폰에게는

바울은 선한 싸움의 무기로써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였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영웅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장에 나가 싸운다. 영웅들은 거친 바다에 배를 띄우고 돛을 올린다. 영웅들은 높고 험한 가시밭길 산을 오른다. 영웅들은 미궁에도 빠지고 하늘도 날

그가 키마이라를 죽일 수 있도록 페가수스를 다룰 황금고삐를 주었다. 여신 헤라는 금양모피(황금양의 털가죽)를 찾아 거친 바다에 배를 띄운 이아손을 돕기 위해 마녀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이아손이 시련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마법의 힘을 써 돕게 만든다. 이아손이 금양모피를 지키는 용에게 잡혀 먹히는 순간에 아테나가 이아손을 돕고 나선다.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거친 바다에 띄운 함선에 비유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착한 양심”은 헤라클레스의 방망이, 포세이돈의 삼지창, 아폴론의 활, 아킬레우스의 방패, 페르세우스의 방패와 단칼, 벨레로폰의 황금고삐, 이아손이 금양모피(황금양의 털가죽)를 찾아 거친 바다에 띄운 함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는 행위는 적에게 무장해제당한 것과 같고, 배가 파선당한 것에 같다. 바울은 그 같은 사람들 가운데 20절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하였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싸움의 무기인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다는 것이다. 20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이미 파선 당했으므로 교회공동체에서 추방되었는데, 그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던 행위를 멈추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란 때문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자신도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모독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개한 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봉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금 이 선한 싸움에 종군하기를 바랐다.

## 1세기 교회질서06: 믿음의 선한 싸움(6)(답전 2:1-4)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1)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하나님을 향한 눈' 주화(AD 328-9)  
 황제는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였고, 자신의 취임 15주년을 기념하였다. 동시대의 초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황제가 제국의 금화에 자신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새겨넣게 한 것은 그의 영혼이 신성한 믿음의 능력에 얼마나 깊이 감명받았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고 진술하였다. 전면에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투스(CONSTANTINVS AVG)라고 새겼다. 뒷면에 두 개의 파수대 사이에 별을 새겼고, 둘레에 아우구스투스들의 예지(PROVIDENTIAE AVG)라고 썼으며, 밑에 주조 마크(?)인 SMKB • 를 새겼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성벽과 열린 성문을 통해서 제국의 안녕과 개방을 홍보하였다.

왕(황제)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동시대의 인물들 가운데 시행한 사례가 있는가를 찾아보았다. 1세기 후반기 로마교회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AD 101 사망)에게서 비슷한 기도문을 찾을 수 있었다.

.... 당신의 종들의 모든 죄를 헤아리지 말아주시고, 말씀히 씻는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씻어주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거룩

함과 의로움과 마음의 순결함으로 걷게 하시고, 선한 일들과 당신의 눈과 통치자들의 눈에 흡족할만한 일들을 하게하소서. 진실로 주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의 용안이 우리한테서 평화롭게 빛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강한 손에 보호받게 하시고, 당신의 뻗은 팔로 모든 죄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또 우리를 부당하게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소서.

우리와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치(harmony)와 평화(peace)를 주소서. 우리 조상들이 믿음과 신뢰로 당신께 경건히 청할 때 당신께서 그들에게 일치와 평화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리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가 전능하고 가장 뛰어난 당신의 이름에 복종하는 동안 그리하소서. 또 우리를 다스리는 지구상의 통치자들과 지배자들에게도 일치와 평화를 주소서.

로마황제들은 신성을 참칭한 자들이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숭배냐, 그리스도숭배냐를 놓고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었다. 황제숭배를 우상숭배로 알고 이를 거부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놓아야했다.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조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천황을 현인신(現人神)으로 믿었던 일

제는 천황과 예수님을 대립시켜 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천황이 높으냐? 예수  
가 높으냐?”는 물음으로 압박하였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1천여 명의 조선인들  
이 탄압을 받았고, 그들 중 50여명이 순교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만  
일 황제와 황실의 유력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상황이 확 바뀔 수 있  
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구원받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바울  
도 황실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에 개종한 사례들을 언급한바가 있다. “가이사  
의 집 사람들 중 몇이”(빌 4:22) 그리스도를 믿었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행  
17:4) 그리스도를 믿었다.

###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2)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얼린 성문’ 주화(AD 307-337)  
전면에 열기둥을 쓴 황제의 얼굴을 둘러싸고, 뒷면에 열린 성문을 새겼고,  
성문 위에 파수대와 병을 새겼으며, 아래에 초승달을 새겼다. 뒷면에  
비르투스 아우구스투스(VIRTVS AVGVG)이라고 새겼다. ‘VIRTVS’는  
(남자다운 탁월성, 용맹)을 뜻하며, 헬라의 ‘ARETE’에 해당된다.  
황제는 성벽과 열린 성문을 통해서 제국의 안녕과 계보를 홍보하였다.

들은 당시 통용되는 주화들에 자신들의 얼굴을 새기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새겨  
넣기도 하고, “만왕의 왕,” “승리자” 또는 십자가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글자  
를 써넣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황제들은 세상을 바꿔놓았다. 3만이 넘  
던 그리스 신들이 사라졌고, 그들을 섬기던 신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  
당으로 바뀌거나 폐허로 변했다.

가톨릭교회의 예수회는 스페인 사람 이냐시오 데 로올라와 프란치스코 하비  
에르 및 다른 5명의 동료에 의해서 1534년 8월 15일 창설되었다. 1517 독일에  
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7년 후의 일이었다. 예수회는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해외선교에 나섰다. 그들은 시대흐름, 현지문화, 생활방식 등에 민감하게 적응  
했을 뿐 아니라, 파격적이고 진보적이어서 그리스도(개신)교가 막 종교개혁에  
피치를 올리고 있을 무렵인 1500년대 중반부터 인도(1541년), 일본(1549년),  
중국(1583년), 중남미 대륙(1492년 신대륙발견이후)을 복음으로 휩쓸었다.

그들은 수도복도 입지 않았다. 1583년 10월에 마테오리치가 중국 광둥에 도

주후 30년 그리스도교가  
출범하고 처음 300여 년  
동안 전 로마제국에 걸친  
대박해가 10여 차례나 있었  
다. 그 박해에 마침표를 찍  
은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대  
제요, 그리스도교를 로마제  
국의 국교로 만든 황제가  
테오도시우스 대제이다. 그  
로부터 로마의 황제들은 하  
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  
었고,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착하여 배에서 내릴 때 승복으로 갈아입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나중에 그는 사대부를 공략하기 위해서 사대부 복장으로 전도하였다. 상류 지식층에서 하류층으로 복음이 전도되게 하려는 방식을 취했던 것인데 성공적이었다. 예수회는 중국 곳곳에 대학을 세우고 한문으로 서적들을 출판하였다. 그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나라 조선왕국에 파급되었다. 조선에서도 젊은 엘리트들이 먼저 가톨릭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는데, 불행히도 그들 대부분은 정치기반이 약한 남인 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집권세력인 북인 벽파들은 남인 시파의 씨를 말리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묵인한 정조가 승화한 이듬해 신유년(1801)에 박해를 단행했고, 기해년(1839)에도 같은 이유로 박해를 일으켰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 네로의 부인 폼페아(Poppaea)가 하나님 경외자(theosebes)였듯이, 흥선대원군의 부인 여흥부대부인도 조선가톨릭신자였다. 1860년 베이징조약체결의 결과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였고, 1864년에는 함경도 경흥지방 관청(경흥부)을 찾아와 통상을 요구하였다. 이 통상요구로 대원군을 비롯한 조정대신들은 러시아의 남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3)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하나님의 손’ 주화(AD 337-340)  
하나님의 손(MANUS DEI) 주화는 황제가 사망한 직후에 안디옥에서 제조되었다. 전면에 베일을 쓴 황제의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신성한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투스들의 아버지(DV CONSTANTINVS PT AVGG)라고 새겼다. 뒷면에 전차를 탄 황제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모습을 새겼다. 밑에 새긴 SMANA는 주조마크이다.

이에 대원군은 베르뇌 주교에게 사람을 보내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주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베르뇌 주교는 러시아와는 나라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그 후 베르뇌와 다블뤼 신부가 한양에 입성하였으나 이미 상황이 바뀐 뒤였다. 우려했

던 러시아의 남진은 없었고, 베이징조약으로 영국에게 홍콩을 빼앗겼고, 러시아에게 연해주를 넘겼으며, 프랑스에게 가톨릭선교를 허락한 청나라가 도리어 가톨릭을 탄압하는 쪽으로 선회하자 조선조정의 안팎에서도 가톨릭을 탄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대원군은 1866년 봄에 박해를 재가하였고, 이 박해를 빌미로 늦가을에 프랑스함대 7척이 강화도를 점령하고 프랑스 신부를 살해한 자에 대한 처벌과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일로 대원군은 쇄국정책을 한층 강화하였고, 병인박해(1866)를 시작으로 기묘박해(1879) 때까지 거의 1만여 명을 용산 새남터와 양화진 잠두봉에서 참수케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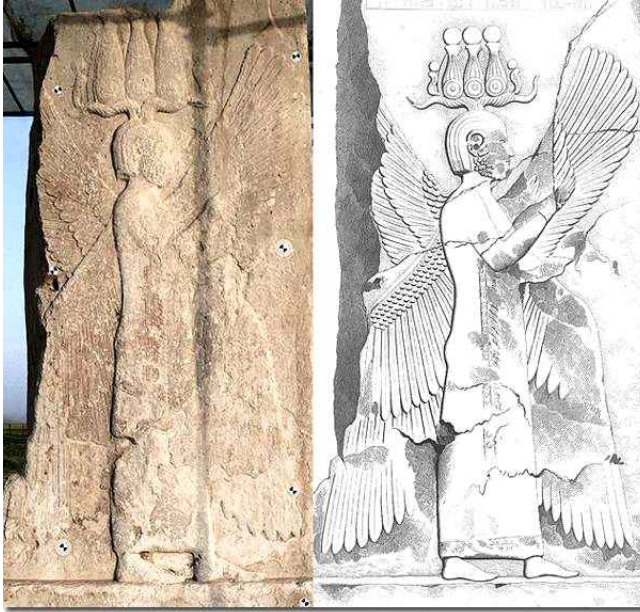
한강을 피로 물들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대원군은 가톨릭신앙을 묵인하고 있었다. 자신의 부인과 부인의 하녀들 가운데 몇이 가톨릭신자였다. 만일 대원군이 가톨릭신앙을 받아드리는 상황이 벌어졌더라면 역사는 달리 쓰였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울은 1-4절에서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하였다. 만일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교에 포용적이라면, 실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함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고,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구원받도록, 현명하고 의롭도록, 공정하고, 불의와 부정을 멀리하도록, 사리와 사욕을 버리고 국가와 백성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 1세기 교회질서07: 믿음의 선한 싸움(7)(딤후 2:5-7)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란 파사르가다에(Pasargadae)의 키루스 대제의 복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와 크세노폰은 키루스에 대해서 “샤한샤  
(Shahanshah, 왕중의 왕), 페르시아 국민의 아버지, 이상적인 군주,  
비밀로니아 유대인들의 해방자.”라고 기술하였다. 날개가 세 쌍인  
것은 그가 페르시아 대국의 수호신이란 뜻이다.

디모테전서 2장 5-7절,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  
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  
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  
거니라. [7]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는 말씀  
은 바울 당대에 종교적으로  
논란이 매우 큰 주장이요,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주  
장이었으나 인류 역사상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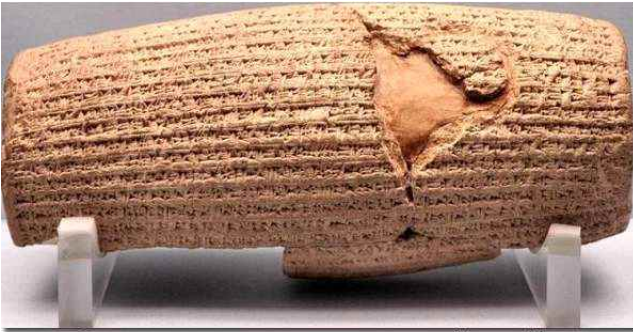
장 위대한 영성이 낳은 kerygma 곧 선포였다.

첫 번째 논란과 위험은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에 있다. 3만이 넘는 신들을 믿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었던 당대의 사람들이 “신은 한분뿐이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어떠했을 지를 생각해보면 단박에 짐작할 수 있다. 이 주장은 로마제국 전역에 세워진 각종 신상들과 신전들 및 제단들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황제가 신 곧 신성, 신의 아들, 신의 현현이라는 주장을 거부하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숭배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황제(아우구스투스)를 섬겨야하는 로마군대에 입대를 거부하다가 참수당한 사례들이 있었다. 당대의 그리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다신교를 믿지 않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비난하였고 이는 결국 대 박해로 이어졌다.

두 번째 논란과 위험은 5-6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

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에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주장이 모세를 비롯한 대제사장들의 권위를 찬탈하는 행위로 보였을 것이고, 그리스 로마인들에게는 황제의 권위를 찬탈하는 행위로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였고, 신성을 지닌 신의 아들이었으며 신의 현현이었다. 또 아우구스투스는 백성에게 평화(pax)와 행복(felicitas)을 가져다주는 구세주였다. 그러므로 IXTHUS 곧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황제에게는 심각한 도전이었으나 위대한 영성이 남은 선포였다.

### “내가 ...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쿠르스 2세(코레스, Cyrus, 559-529 BC) 황제의 실린더  
이 실린더는 바빌로니아 에사길라(Esagila) 신전에서 발견되었다.  
이 실린더는 길이 23cm, 직경 10cm 크기로 여러 민족에게  
종교와 주거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쏘메르어로 쓰여 있다.  
“... 나는 오랫동안 폐허가 된 티그리스 반대편에 있는 이 성스러운  
도시들로 신상들을 되돌려 보냈다. 그곳에 그 신상들이 있었고, 그 신상들을  
위해 항구적인 성소들이 세워졌던 곳들이다. 또 나는 그 성소 도시들에  
거주했었던 주민들을 모았고, 그 도시들의 거주민들을 그 도시들로 되돌려  
보냈다. 나는 신들의 위대한 주이신 마르둑(Marduk)의 명령에 따라,  
신들의 주의 분노로 인해서 나보니두스(Nabonidus)가 바빌론으로 가져온  
수메르(Sumer)와 아카드(Akkad)의 모든 신들을 그 신들을 복되게 했던  
장소들 곧 그 신들의 이전 신전들에 손상됨이 없이 다시 안착시켰다.  
부디 내가 신성한 도시들에 안착시킨 신들이 벨(Bei)과 네보(Nebo)  
에게 내가 장수하게 해달라고 매일 빌어주기를 바라며, 또 그들이  
나의 주이신 마르둑에게 내가 호감을 얻도록 말해 주기를 바란다.”  
<Edict of Cyrus, 538 BC>.

세 번째 논란과 위험은 7  
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  
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  
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  
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에 있다. 유대교  
인들이나 유대교적 그리스  
도인 에비온파의 입장에서  
는 바울의 이 주장이 터무  
니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들은 바울을 향해서 거짓  
사도라고 했고, 모세의 율법  
과 규례를 심각하게 훼손하  
는 자라고 생각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그들로부터  
여러 차례 린치를 당하였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그러나 바울의 소명의

식과 사명의식은 전 인류에게 위대한 영성과 그리스도교 문화를 유산으로 대물림하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2:1-2)는 바울의 권면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필요를 느낀다. 바울은 1장 18절에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 싸우

라”고 하면서 19절에서 그 무기로써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한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2장 1-2절의 권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선한 싸움의 또 다른 무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믿음과 착한 양심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획득해야한다.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획득해야한다. 그들을 이기고 그들의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는 힘은 칼날에 있지 않고 기도의 날에 있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우상들을 의지하거나 칼날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자 그 이상의 승리자들이 된 사람들이다.

## 기도의 힘



2017년 독일에서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된 제 21대 로마황제 카라칼라의 안토니누스 칙령 파피루스 사본(AD 212)  
(caracalla, Edict of Constitutio Antoniniana,  
소장: Justus Liebig University Giessen 대학교서관)  
카라칼라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베루스 안토니누스(AD 186-217  
제위) 황제의 별명으로서 켈트족의 전통 모자를 뜻한다.  
이 칙령으로 인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3개  
대륙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단일한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시민권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로마제국에서 그리스도교가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역대기하 36장 22절과 에스라 1장 1절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라고 적고 있다. 이는 유대인들의 끈질긴 기도가 성취되었음을 적은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키루스 대제는 실제로 주전 538년에 다음 같은 칙령을 발표하였다.

... 나는 오랫동안 폐허가 된 티그리스 반대편에 있는

이 성스러운 도시들로 신상들을 되돌려 보냈다. 그곳에 그 신상들은 있었고, 그 신상들을 위해 항구적인 성소들이 세워졌던 곳들이다. 또 나는 그 성스런 도시들에 거주했었던 주민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의 거주민들을 그 도시들로 되돌려 보냈다. 나는 신들의 위대한 주(主)이신 마르둑(Marduk)의 명령에 따라, 신들의 주의 분노로 인해서 나보니두스(Nabonidus)가 바벨론으로 가져온 수메르(Sumer)와 아카드(Akkad)의 모든 신들을 그 신들을 복되게 했던 장소들 곧 그

신들의 이전 신전들에 손상됨이 없이 다시 안착시켰다. 부디 내가 신성한 도시들에 안착시킨 모든 신들이 벨과 네보(Bel and Nebo) 신들에게 내가 장수케 해달라고 매일 빌어주기를 바라며, 또 그들이 나의 주이신 마르둑에게 내가 호감을 얻도록 좋게 말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역시 주후 212년 로마황제 카라칼라의 안토니누스 칙령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시민권자들이 되었다. 기도의 힘은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도 이끌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제 콘스탄티누스와 정제 리키니우스는 ... 모든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오늘부터 기독교든 다른 어떤 종교든 관계없이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의에 참가할 자유를 완전히 인정받는다.... <지령>... 지금까지 그것을 훼손당하는 일이 많았던 기독교도에 대해서는 특히 몰수당한 기도처의 즉각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몰수된 기도처를 경매에서 사들여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반환할 때 국가로부터 정당한 값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기에 명기한다. AD 313년 6월 밀라노에서 로마의 두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공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힘은 주후 392년에도 발휘되어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대제로 하여금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하도록 하였다. 그로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그리스도교는 유럽의 국교 자리를 유지하였다.

## 1세기 교회질서08: 믿음의 선한 싸움(8)(딤후 2:8-15)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헤르모나크스(Hermonax)가 그린 암포라(450 BC)  
출전을 위해 무장하는 남성과 그를 돕는 여성. 이들은 복부이거나  
모자 또는 남매일 수도 있다. 두 사람 다 키톤(chiton)이라  
불리는 통옷을 입고 있다. 남성이 칼을 착용하고 있고, 여성이  
오른손으로 투구를 건네고 있으며, 왼손에 뱀이 장식된 방패를  
들고 있다. 뒷면에는 창을 가진 남성이 출전에 앞서 여성이  
건넨 포도주를 채운 신주 잔(patera)을 받고 있다고 한다.

바울은 1장 18절에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 싸우라”고 말하면서 19절에서 그 무기로써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고, 선한 싸움의 다른 무기로써 2장 1-2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다. 믿음과 착한 양심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무장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2장 8-15절에서도 선한 싸움의 무기들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다.

먼저 바울은 8절에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했다. 또 9절에서는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라.”고 했다.

성서시대 유대인 여성들은 아버지 또는 남편의 소유물로서 그들의 지배아래 있었다.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남성과 차별되었다. 유대인 여성이 아들을 출산하면 40일만 부정하지만, 딸을 출산하면 80일간이나 부정하였다. 딸인 경우 안식일 날에 이름을 공표하지만, 아들인 경우 제8일째 날에 거행하는 할례의식 때 공표한다. 할례의식은 남자아이의 외피를 베어내는 절차로써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백성 곧 선민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한다. 그러나 여자 아이는 할례를 받지 않는다. 당연히 언약백성의 일원이 아닌 게 된다. 남자아이

는 13세가 되면 계명의 아들이 된다.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할 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아이에게는 그 같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 다만 1922년부터는 남녀동등차원에서 재건주의(급진주의)자들과 개혁주의(진보주의)자들이 12세가 된 여성들에게도 성인식을 거행하고 있다. 여자아이들을 계명의 딸이 되게 하는 것이다. 또 1980년대부터는 보수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재건주의자들이 여성을 랍비로 인수하고 있다.

###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소재 에레크테이온의 땅은 머리 기둥여성상  
(421-407 BC, Acropolis Museum, Athens Greece)

유대인 여성들은 회당 장 곧 장로나 공회원이 될 수 없었다. 정통주의에서는 지금도 모든 여성과 13세 이하 사내아이들은 본당 곧 성소에 들어가 남성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고, 별도의 공간에서 기도해야한다. 이런 차별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매월 첫날을 여성들의 날(Rosh Chodesh)로 정하고 있다.

이날 유대인 여성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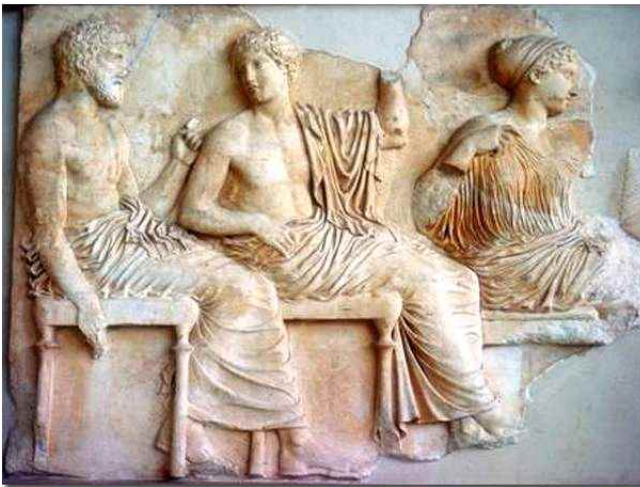
는 일을 멈추고 하루 동안 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또 각 가정에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 촛불을 밝히는 일을 여성들에게 담당시키고 있다. 예루살렘 멸망이후 언제부턴가는 부계혈통보다 모계혈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성서시대에는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서시대 여성들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었다. 노예가 주인에게 예속되듯이,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예속되었다. 여성에게 임신과 집안 일 말고는 법적 지위란 것이 없었다. 여자는 투표권도 없었고, 교육도 받지 못했다. 이혼이 흔했지만 여성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폭력은 자연스런 일상이었다. 가장은 부인과 어린 딸을 매춘부로 내몰기까지 했다. 폭력적인 남편에게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참금을 되돌려 받고 이혼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혼녀가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없었다. 가난은 여성들을 합법을 이유로 매춘부의 길로 내몰았다. 당대의 그리스 로마인들은 윤리나 도덕개념이 약해 성적으로 문란했고, 우상숭배나 난잡한 바쿠스축제 등에도 참석하였다. 이런 정황에

서도 많은 수의 여신들이 있었고, 존경과 흠숭을 받는 여신들도 있었으며, 비록 대다수가 성장이었지만, 여성사제들이 아주 많았다. 여성의 인권이나 참정권이 없던 시절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늘 당하고만 산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에게는 남성들을 조종할만한 탁월한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선한 싸움의 한 가지로 여성들에게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1-12절)고 한 것은 앞서 언급한 당대의 문란한 사회적 상황 특히 악명 높았던 바쿠스축제와 그 축제를 주도한 여성사제들의 광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바울시대에 바쿠스(디오니소스) 여성사제들은 술방울과 리본으로 장식한 디오니소스 지팡이(thyrsos)를 손에 들고 술에 취해 머리를 앞뒤로 심하게 흔들며 광적이고 음란한 춤을 추었다. 바울이 여성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땀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9-10절)고 권면한 이유를 이런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동쪽 끝에 있었던 복조물(448-429 BC, New Acropolis Museum, Athens Greece)의 일부로서 묘사된 인물들은 왼쪽부터 포세이돈, 아폴로, 아르테미스이다. 그들의 모습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의 복장과 헤어스타일 등을 엿볼 수 있다.

1세기 교회질서에서 여성들이 누릴 수 없었던 것은 리더십이었다. 당대 교회들에는 유대교 회당의 3명의 장로들(회당장과 공회원들)에 해당되는 3명의 장로들(목양자와 감독자들)이 있었다. 이 리더십에 여성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 상황은 20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바뀌기 시작했다.

교회의 장로들은 4세기 경부터 사제(priest)로 바뀌어 계급화 되었으며, 칼뱅

과 루스에 의해서 평신도 장로대의제가 도입되면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사제가 목사(pastor)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1세기 교회질서로 볼 때, 장로들이 반드시 설교자였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의 리더십인 장로들과 목회자를 별개로 본다. 목회자가 장로를 겸할 때의 직책이 pastor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설교자와 전도자이다. 이들 교회들에서는 목양과

감독권이 장로들에게 있고, 목회자조차도 장로들의 감독을 받아야한다.

그렇다고 1세기 교회질서에 여성 지도자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구약시대에 여성 왕과 사사와 선지자들이 있었듯이, 신약시대에서도 빌립의 네 딸들은 선지자들이었고, 브리스길라, 루디아, 뵈뵈, 유오디아, 순두게, <바울행전>에 나오는 테클라(Thecla) 등은 여성 지도자들이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11-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앞서 말한 장로 리더십을 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예언 곧 권면조차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6-40절에서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한 것도 공적 예배질서를 말한 것이다. 바울은 26절에서 공적 예배순서의 목적을 세움(살림)에 두라고 했고, 31절에서 예언과 방언의 목적을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려는 데”에 두되, 40절에서 순차에 따라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했다. 고린도교회에는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37절) 자들이 남녀무론하고 많았고, 성도들 앞에 나서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9-15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읽힐 수 있다. 바울은 여성들에게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절과 검소함과 선행과 순종함과 겸손한 배움을 선한 싸움의 무기로 삼으라고 했고, 이브가 뱀에게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여성들이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지만, 해산으로 새 생명이 탄생되듯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설사 그것이 해산의 고통과 같을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값진 일이요 구원을 얻는 일이라고 하였다.

## 1세기 교회질서09: 믿음의 선한 싸움(9)(답전 3:1-7)

##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70명도 가운데에 조차부터 바드로바(네이폴리 감독),  
허마(달파티아 감독), 리누스(로마 감독), 가이오(에베소 감독),  
빌로로고(시노페 감독)를 묘사한 그림(10-11세기, 참고: 롬 16:14-15, 23).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며,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는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직무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과연 옳다” 는 뜻이다. 그만큼 감독직분은 훌륭한 일이란 것이다. 여기서 감독은 장

로의 다른 말로써 개 교회마다 3명씩 뽑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대교 회당의 3명의 장로들이 회당장이자 공회원과 율법판사였던 것처럼, 장로들은 개 교회의 당회장이자 목양자와 감독자였다(행 20:28).

바울은 디모데전서 첫머리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 (the good fight of the faith)과 그 무기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3장 1-13절에서는 이 선한 싸움의 지휘관급인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들은 개 교회의 장로들과 봉사자들이었다.

바울은 여성들에게 선한 싸움의 무기로서 선행을 하라고 했다. 이 선행에서 리더십을 빼 나며지 단정함, 소박함, 정절, 검소함, 순종함 및 겸손함과 배움을 강조하였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2:11-12)고 했다. 바울의 이 말씀은 교회의 리더십은 남성들에게 맡기고, 여성들은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봉사하는 일꾼으로 섬기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입 닥치고 병어리처럼 지내라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조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원들이며, 뛰어난 봉사자들이요 일꾼들이다. 다만 목양과 감독과 권면(설교)과 같은 리더십은 남성에게 맡기라. 남성들에게 장로직분(감독직)을 맡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직무는 사모할만한 훌륭한 것이긴 하지만, 어그러진 말 곧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으로 교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나운 이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양떼를 지키고 보호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직무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 함으로써, 자기와 동행들의 쓸 것을 자기 손으로 해결함으로써,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범사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수행하였다(행 20:28-35).

###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그나티우스(안디옥 감독 및 사도 요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는 트라야누스 황제(AD 98-117) 때인 107년경에 로마로 압송되어 원형극장에서 들짐승들에 찢겨 순교하였다. 그는 안디옥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Theophoros)’란 별명을 얻었다. 위의 그림은 나폴리(네아폴리)학파에 속한 cesare Fracanzano(1605-1651)가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Galleria Borghese, Rome 소장).

1세기 교회질서에서 장로(감독)들은, 예루살렘교회의 사례 곧 성도들이 일곱 사람들을 뽑고 사도들이 안수한 것에서 보듯이, 임명직이 아니라 회중에 의해서 뽑힌 후 안수를 받고 목양권과 감독권을 가졌던 불박이 목회자들이었다(행 6:3, 20:28, 딤후 5:17, 약 5:14). 선교지역에 세워진 개척교회들에서 그들을 장로(감독)로 장립한 이들은 바울, 바나바, 디도, 디모데와 같은 떠돌이 전도자들이었다(행 14:23, 딤후 1:5). 떠돌이 전

도자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장로들을 세웠으나, 대체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교회들은 장로들의 리더십아래 놓여 있었다. 그러나 당대에는 교회들이 새로 조직되던 때였으므로 그 새로 조직되는 교회들에는 당연히 장로들이나 장로회가 없었다. 그러나 루스드라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때 세워진 교회였으므로, 장로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에 동행하기 위해서 장로회로부터 안수를 받았다(딤후 4:14. 행 13:3).

디모데전서 3장 1-13절은 교회가 감독 곧 장로를 뽑을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교훈한 말씀이다. 예루살렘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

는 사람들”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행 6:3,5)을 뽑았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특히 감독(장로)은 2-7절,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딤후 1:6),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고 하였다. 또 사도행전 20장 28-35절에서는 어그러진 말 곧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으로 교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나운 이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양떼를 지키고 보호할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 바울처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 함으로써, 자기와 동행들의 쓸 것을 자기 손으로 해결함으로써,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기억함으로써, 범사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클레멘트 1세(로마 감독, 모자이크)  
윗부분은 모자이크로 11세기경의 것이고,  
아랫부분은 18세기경에 유화로 복원한 것이다.

지역교회가 각자의 장로(감독)들의 사목을 전적으로 받기 시작한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떠돌이 복음전도자 시대가 끝난 1세기말부터였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교가 392년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고, 성체신학(Mass)의 발전으로 장로들을 사제(제사장)로 호칭하게 되었고, 사제(장로) 밑에 부제(집사), 사제위에 주교(감독), 주교위에 대주교, 그 위에 가톨릭에서는 추기경(Cardinal)과 교황(Pope)의 직제가 생겼으며, 정교회에서는 총대주교(總大主教, Patriarchs)가 생겼다. 따라서 목사라는 호칭은 가톨릭교회, 정교회, 성공회, 미국 감리교 등에는 없는 직책이다. 당연히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에도

없었던 직책이다. 이들 전통교회들에서는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 특히 가톨릭교회에서는 1400여 년간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 미사만 허용되었으므로 라틴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신자들 때문에 설교자는 물론 대표기도자도 없었다.

16세기에 이르러 가톨릭교회 사제들이었던 마르틴 루터, 올리히 츠빙글리, 장 칼뱅, 마르틴 부처가 사제(priest)라는 호칭을 버리고 대신에 목사(pastor)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장 칼뱅과 존 녹스가 평신도 장로 대의제도를 개혁주의 교회들에 도입함으로써 생긴 것이 1년 임기의 선출직 장로들이었다. 이때부터 개신교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나뉘게 되었고, 목사가 장로인가 혹은 목사는 장로가 아닌가라는 논쟁이 불거졌다. 종교개혁으로 생긴 그리스도교 역시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지 아니한 시의회교회 또는 국가교회체제였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나라는 미국이며, 1791년 12월 15일 채택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서였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고 하였다. 장로는 교회를 관리감독하고 치리하는 자로서(행 20:28, 롬 12:7-8, 고전 12:28, 딤후 5:17) 집사보다는 높으나 사도, 선지자, 교사보다는 낮았다(고전 12:28, 딤후 5:17). 사도, 선지자, 교사의 업무는 가르치는 일과 권면하는 일이었다(갈 6:6, 딤후 4:13).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다음이 “다스리는 것” 이라고 하였다.

## 1세기 교회질서10: 믿음의 선한 싸움(10)(딤후 3:8-13)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뵈비(Phoebe by Leo Pfisterer)

11절의 “여자들”은 문맥상 집사들의 아내라는 주장도 있고(NIV, KJV),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는 구절로 봐서 여자 집사라는 주장도 있다. 또 집사들의 아내와 여자 집사 모두를 의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헬라어 ‘디아코노스’(diakonos)는 종종 ‘집사’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래서 겐그레아 교회의 뵈비가 집사로 오해되고 있다. 그러나 뵈비가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뵈비를 “겐그레아 교회의 디아코노스”(a diakonos of the church in Cenchrea)라고 썼는데, 디아코노스는 봉사자, 일꾼, 집사, 장관 등 다양한 의미로 쓰였다. 심지어 사도들과 예수님도 디아코노

스였다. 이 때문에 영어성경 KJV과 NIV는 로마서 16장 1절의 디아코노스를 ‘종’(servant)으로 번역하였다. 단 NIV는 각주에서 “뵈비는 바울의 동료 신자로서 바울의 편지를 로마로 가져갔을 것이다. ‘종’이란 어떤 방법으로든 섬기거나(serve) 봉사하는 자(minister)를 말한다. 로마서 16:1-2에서처럼 디아코노스가 교회와 연관될 때는 그것이 특정한 직책 곧 여자 집사를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설을 달았다. 반대로 NRSV는 ‘집사’(deacon)로 번역하고, 각주에 ‘봉사자’(minister)라는 해설을 달았다.

뵈비가 디아코노스였다고 해서 여자 집사가 아닌 것은 사도로 번역된 ‘아포스톨로스’(apostolos)가 항상 사도를 뜻한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으로써 바나바(행 14:14), 아볼로(고전 4:9), 실루아노와 디모데(살전 2:7)에게도 쓰였고, “사도들”이라고 칭하였으나 직제로써의 ‘사도’

는 12제자와 바울에게 국한된다.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전서 3장에 쓰인 ‘감독’(bishop)도 마찬가지이다. 감독은 장로를 지칭한 것일 뿐 오늘날의 사제계급으로써의 감독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안식일교회 신학자 낸시(Nancy Vyhmeister) 박사는 ‘역사로 본 여자 집사의 사역’(The Ministry of the Deaconess through History)이란 글에서 초대 교회에 안수 받은 여자 집사가 존재했었다고 보았다. 낸시는 여자 집사들이 여성들이 침례 받을 때 조력하는 자들이었고, 사람들을 돌보는 자들이었으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비잔티움 교회의 여성 일꾼 루디아(Lydia)

여성들이 침례 받을 때 여성 집사들의 조력이 필요했던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사실이다. 첫째, 고대 그리스도교 침례는 별거벗은 몸으로 물속에 들어가 세 번 침수를 했다. 이 때문에 감독(장로)이 별거벗은 여성에게 침례를 베풀기가 난감했을 것이다. 같은 이유로 개종자가 별거벗은 몸으로 물속에 들어가 개종침례를 받아야하는 유대교에서는 개종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3명의 여성 조력자들이 랍비를 대신해서 침례를 베풀어왔다. 이 때 랍비는

문밖이나 차단막 밖에서 의식을 집전한다. 둘째,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고 조직과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침례를 베풀 수 있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침례가 주로 강에서 새벽이나 밤에 베풀어졌지만, 신체접촉은 여전히 난감한 문제였을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여성 조력자들 곧 안수 받은 여자 집사들이 필요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앞서 말한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고 조직과 제도가 정비된 이후에는, 특히 예배가 성체(빵)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Mass)로 발전된 이후에는 여자 집사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 게다가 수녀회가 조직되고 침례 대신에 약식세례를 시행한 중세기에는 더더욱 여자 집사란 제도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 다만 오늘날의 가톨릭교회는 사제의 말단계급인 ‘부제’(보제)라 불리는 집사와는 별도로 ‘봉사자’ 개념의 평신도 사역자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이들을 가톨릭에서는 ‘minister’라 부른다.

참고로 유대교에서 행하는 침례의식(Tevilat Keilim)은 반복적인 정결례로써

그리스도교에서 행하는 단회적인 침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서시대 때부터 유대교인들은 정결례를 위한 침례탕을 구비해놓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는 예루살렘 근교인 세레 요한의 고향인 에인 케렘에서 2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의식용 침례탕이 발견되었고, 2019년 3월에는 서울 남산 인근에 유대교인들의 정결침례와 이방인들의 개종침례를 위한 의식용 침례탕(Mikvah)이 설치된바가 있다.

유대교에서의 침례는 미슈나 구전이 정한 정결례(Tohoroth)이지 회개나 죄사함을 받기 위한 침례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출산이나 월경, 배우자와의 잠자리 뒤에도 침례탕에 들어가 부정(treyf)을 정(kosher)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회당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다. 또 새로 구입한 부정한 식기를 침례탕(Mikvah)이나 자연수(강, 호수, 바다 등)에 담갔다가 꺼냄으로써 정(kosher)하게 해야 사용할 수 있다. 유대교 개종자에게 요구되는 침례도 마찬가지 의미라 볼 수 있다. 유대교 침례의식은 반복적이지만, 단 개종 침례만은 단회로 그친다고 볼 수 있다.

#### “집사들은 ...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린도교회와 에베소교회의 일꾼 브리스길라(Priscilla)

뵈뵈를 여자 집사로 봤던 교부들이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155-220), 오리겐(185-254), 크리소스톰(347-407), 데오도렛(393-460)이 그들이다.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소 플리니도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두 명의 “ministrae”를 언급하였는데, 이 단어는 ‘여자 집사들’ 혹은 ‘여자 일꾼들’로 번역될 수 있다.

감람산 인근 굴무덤에서 “소피아 곧 그리스도의 종과 신부, 집사, 제2의 뵈뵈 여기에 높다.”라고 새긴 4세기 후반의 석비가 발굴되었고, 카파도키아에서도 “마리아 집사”라고 새긴 6세기경 석비가 발굴된바 있다.

451년에 개최된 칼케돈 공의회 문서에는 “40세 이하의 여자를 집사로 안수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고, <교부들의 삶>(Liber Patrum)은 “여자 집사들은 정숙하고 점잖아야하며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들은 여성들에게 침례를

베폰다. 사제들이 벌거벗은 여성들의 몸을 보는 것이 절절치 않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4세기 후반의 〈사도헌법〉(The Apostolic Constitutions)은 감독에게 남녀 교회지도자들의 안수에 관해 지시하고 있고, 감독이 여성에게 안수할 때 드리는 기도문까지 적었다.

이처럼 현존하는 자료들로 볼 때 1세기 교회시대이후 곧 2세기부터 13세기까지는 일반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안수 받은 여자 집사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교회시대의 통념으로 볼 때, 교회직제로써의 여성 장로(감독)나 여성 집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능력을 지닌 여성들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직제로써가 아니더라도 일꾼으로서의 디아코노스는 그 의미가 무엇이든 지 간에 있었을 것이 확실하다. 그런 측면에서 1세기 교회질서에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드물게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한 교회들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1세기 교회질서에 여자 집사 장립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디모데전서 3장 8-13절이다. 특히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가 그것을 입증한다. 아무튼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한다”(8-9절)고 했고, “책망할 것이 없는”(10절) 사람이어야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하였다.

## 1세기 교회질서II: 믿음의 선한 싸움(II)(딤후전 3:14-16)

###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에서 발굴된 주택의 벽감실  
벽감실은 가족 신들, 특히 가정의 수호신들과 집을 지키는 조상의 혼령들을 모신 성감을 말한다. 사진에 보이는 벽 앞쪽에 장식된 두 작은 기둥 안쪽에 벽감실이다.

15절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한다. “진리의 기둥과 터”는 하나님의 가족이 진리의 기둥과 기초라는 뜻이다. 정리하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요, 진리를 고백하고 믿는바 진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바울은 아마 당대의 웅장했던 신전들을 연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탱하는 기초와 대리석 기둥과 같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의 기초와 기둥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그리스도교의 진리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전한 전통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리를 사수하는 보루요 진리를 전파하는 스피커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수하고 전파하는 진리는 어디서 왔고 유지되는가? 그 진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에서 비롯되고 지속적인 고백으로 유지된다. 그 진리는 신비하고 비밀스럽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외쳤다. 그러면 “경건”은 무엇이고, “비밀”은 무엇인가? “경건”은 앞서 말한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사수하며 전파하는 진리 곧 믿음의 내용을 말한다. 그리고 “비밀”은 “참된 경건에서 분출되는 신비”(TNIV)를 말한다.

그러면 그 경건 곧 진리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이 신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은 16절에서 그 “경건의 신비”를 여섯 가지로 노래했다. 첫째, “그분은(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둘째, 그분은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다.” 셋째, 그분은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넷째, 그분은 “만국에 전파되셨다.” 다섯째, “세상이 그분을 믿었다.” 여섯째, “그분은

영광에 싸여 들려 올라가셨다.” 이 여섯 가지는 그 자체가 신비한 경건의 내용, 진리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다. 이것들은 325년 니케아 신조에 담겼고, 이후 사도신경을 비롯한 많은 신앙고백서들에 담겨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었다. 또 바울은 이 내용을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다.”고 했는데, 그 뜻은 “논란의 여지없이”(NKIV), “모든 의문을 뛰어넘어”(NIV), “이구동성으로”(NASV)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 경건과 진리와 믿음의 내용이 신비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고, 어떤 이들에게는 신비하게도 믿어지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싫고 어리석게만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이다.

### 그리스로마인들의 가족 신



잘 보존된 토크에이 유적의 벽감실과 모셔진 가족 신상들. 가족 구성원들은 그들의 노예들까지 다함께 이곳에서 매일 제사나 기도를 바쳤다. 출정하는 군인이나 여행을 떠나는 자가 출발에 앞서 헌주하며 안전을 빌었던 제단이기도 하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집에 딸려 집을 지키는 가족 신으로 모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기 가족에 속한 수호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은 하나님 가족을 구성하는 일원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가족 신이라는 생각과 우리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 가족은 피를 나눈 작은 이익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 가족은 다른 많은 가족들과 차별된다. 또 우리 가족 신 또는 조상신들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수호신들이다. 따라서 우리 가족 신 또는 조상신들은 다른 많은 가족들을 위한 신 또는 그들의 조상신들과는 다르다. 따라서 제의형식도 가족마다 조금씩 달랐다. 반면에 피의 공유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공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믿는다. 그리스

도인들은 아무리 많은 수의 각기 다른 피를 나눈 가족들이 모여도 그들은 다 한 믿음을 공유한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런 점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

은 가족 신을 따로 모실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 가톨릭교회와 이방인들의 관행이었던 가족 신 숭배를 그리스도교 신앙에 혼합하여 개종이전에 가족신상들을 놓았던 벽감실에 십자가상, 성모상, 성모자상 또는 수호성인상을 놓도록 허용하였다.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가족 신들을 집에 모셨다. 가족 신들이란 가정의 수호신들이나 집을 지키는 조상신들을 말하며, 이들을 집에 모시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인들은 집안 한쪽 벽에 벽감실(성감)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이 가정에 모셨던 신들은 잘 알려진 주신들이 아니라, 하찮은 신들이었는데, 가장 흔한 신들이 가족의 조상신들이었다. 조상신들은 생전에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보상으로 특별히 영적 존재로 격상된 조상들이었다. 이들 조상신들의 역할은 가족과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대신에 노예까지 포함해서 가족 구성원들은 벽감실(성감) 앞에서 매일 제사(헌주)와 기도를 바쳤다. 따라서 가족 신들은 가족들과 그들의 노예들로부터 주신들보다도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많이, 거의 매일 제사와 기도를 받았다. 또 벽감실은 출정하는 군인이나 긴 여행을 떠나는 자가 출발에 앞서 헌주하며 안전을 빌었던 제단이기도 하다.

### 한국인의 가족 신



한국의 조상단지들

좌측: 경남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당동마을(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우측: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지동마을(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조상단지는 가정신앙에서 조상숭배를 위하여 모시는 귀신 곧 집에 딸려 집을 지키는 조상신의 신체로서 조상의 유골, 신위(위패) 등을 안치(대신)하는 작은 향아리나 자루, 상자, 선반 등을 말한다. 조상단지이외에도 신주단지, 세존, 제석 등이 있다. 조상단지나 신주단지에는 대개 쌀이 담기고, 세존과 제석도 쌀을 담아 걸어두는 자루인데, 그 자체가 신체 곧 신의 몸이요, 집에 딸려 집을 지키는 조상신이며, 가족 신인 것이다.

도 신주단지, 세존, 제석 등이 있다. 조상단지나 신주단지에는 대개 쌀이 담기고, 세존과 제석도 쌀을 담아 걸어두는 자루인데, 그 자체가 신체 곧 신의 몸이요, 집에 딸려 집을 지키는 귀신이며, 가족 신이자 조상신인 것이다.

〈우리역사넷〉에 실린 ‘조상신’(정연학)과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실린 ‘조상단지’(김시덕)에 의하면, 집안에서 조상을 섬기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교식 제사를 통해 조상신을 모시는 것이다. 명절이나 기일에 제사를 드리는 조상으로, 종가에서는 4대를 제사로 받들고(봉사), 5대째 조상부터는 철마

조상신 숭배는 적지 않은 나라와 민족들에서 수천 년에 걸쳐 전해져온 가정신앙이다. 한국의 조상단지는 가정신앙에서 조상숭배를 위하여 모시는 귀신 곧 집에 딸려 집을 지키는 조상신의 신체(神體)로서 조상의 유골, 신위(위패) 등을 안치(대신)하는 작은 향아리나 자루, 상자, 선반 등을 말한다. 조상단지이외에

다 드리는 제사를 올린다(시제). 조상의 위패는 사당이나 벽감실에 모셔둔다. 둘째는 가족의 수호신으로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때의 조상신은 유교식 조상신과 달리 모든 조상을 신으로 대하고 서열도 무시한다. 조상신은 유교적 관념에 따라 종손 집에서만 모신다. 셋째는 경기와 충청도 일대에서는 ‘왕신’이라고 하여 특별한 조상신을 섬기는데, 단지에 쌀이나 상자 안에 한복 등을 넣어둔다. 예를 들어 병이 있거나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가 단명하면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종손 집이나 아니냐에 상관없이 한두 세대만 집안의 조상신으로 모신다.

지역에 따라 조상신은 집안의 으뜸 신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경기도 내륙 지방에서는 시월상달(으뜸 달) 고사 때 안방에서 제일 먼저 제사를 올린다. 떡 시루도 다른 신체 곧 조상단지보다 크다. 시월상달 고사 말고도 봄가을과 칠월 칠석에 쌀을 잡아 조상단지의 쌀을 갈아 넣는다. 제사를 지낼 때 차리는 음식은 메(밥), 과일, 조기, 채소 등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미역국을 바치기도 한다. 설과 추석 차례 때는 메 대신 떡국이나 송편을 바친다. 이때 조상단지 안에 있는 쌀의 상태를 보고 길흉을 점치기도 한다. 조상단지의 묵은쌀은 가신의 특별한 뜻이 담겼으므로 밥을 지어 반드시 식구끼리만 먹는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자기들 집에 딸려 자기들 집을 지키는 가족 신으로 여기지 않았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만으로 믿지 않았으며,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색깔에 상관없이 인류가 한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의 가족 곧 형제자매가 된다는 위대한 사상으로 인류애를 실천하였다.

## 1세기 교회질서2: 믿음의 선한 싸움(12)(딤후전 4:1-5)

##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전사들의 결투(화가: Andokides, 출처: Vulci, 530 BC, 소장: 루브르)  
지혜와 용맹과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응원하는 좌측의 그리스 전사  
(아킬레우스?)의 승리가 예상된다. 우측 트로이 전사(헥토르?) 곁에는  
저승사자인 헤르메스가 패자의 혼령을 음부로 데려가려고 대기하고 있다.  
신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은 자가 싸움에서 이긴다는 그리스의 한 공방화가  
(Andokides)의 교훈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딤후전 1:12, 빌 4:13).

말은 먼 미래 곧 종말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암시한다. 바울은 이미 디모테전서를 쓰기 10여 년 전인 50년대 초부터 교회에 침투를 시작한 이단과 심각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였다. 이 싸움의 과정에서 쓰인 글들이 고린도전후서와 갈라디아서이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여우처럼 달려들어 에베소 교회들의 기초를 허물려고 했지만, 고린도 교회들과 갈라디아 교회들에서처럼 잘 막아내고 있었다. 그렇다고 적들이 공격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책임진 디모테에게 혹 있을 그들의 공격에 대비할 것을 부탁하였다. 10여 년 전 디모테는 고린도 교회에 적대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었으나 연소함 때문이었는지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디모테가 완수하지 못한 임무는 노련한 디도가 대신 처리하였다.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신자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자들을 말한다.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그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노예라는 뜻이다. 화인은 불에 달군 인두로 노예의 몸에 도장을 찍어서 소유자를 표시한

디모테전서 4장 1절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대구로 차용하였다. “성령이 밝히” 하시는 말씀은 신자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지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신자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그리고 “후일”로 번역된 헬라이어 ‘히스테로이스 카이로이스’(hysterois kairois)는 문자적으로 ‘둘째 날’ 또는 ‘다음날’이라는 뜻이다. 이

것을 말한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도 그렇게 했고, 미국에서도 1865년에 끝난 남북전쟁 전까지 그렇게 했다. 따라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자기 양심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다.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말을 바울이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인가? 사무엘 진너(Samuel Zinner)는 <도마 복음>(The Gospel of Thomas)이란 책에서 그들이 유대인 에비온파라고 확신하였다. 진너는 바울의 적대자들을 두 그룹, 곧 헬라인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인 에비온파로 나누지 않고, 둘이 통합된 유대교적 영지주의 그리스도인 에비온파로 보았다.

###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영웅과 용사들의 결투(c. 530 BC, Walters Art Museum, Baltimore). 헬거송이 영웅이 짙은 튜닉차림의 두 용사와 싸우는 장면을 묘사한 '마스토스(Mastos)'라 불리는 접이다. 마스토스는 접가슴이란 뜻이다. 양쪽 끝에 선 사람들은 전투상형을 보고할 전령(?)들이다. 마스토스는 대개가 두 개의 손잡이와 바닥에 접꼭지를 갖는다. 한쪽은 걸이용이고, 다른 쪽은 음용이다. 임종이 가까운 노인들이 내세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하며 모유를 닦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서 그들의 용어들을 다시 도구로 쓴다.”(125쪽)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에비온파가 사용하는 주요 언어들에 자신의 서신들에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말과 생각이 구조적으로 왜 병든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리스도교 복음의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뜻이다. 에비온파의 문제는 하나님 성령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데”(고전 2:9-10) 있었다.

진너는 에비온파가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다거나 강하다거나 명예롭다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의 권위로 이러쿵저러쿵하면서 선생노릇을 하려고 한 것을 두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

“말재주” 곧 말의 지혜(고전 1:17)와 “훌륭한 말이나 지혜”(고전 2:1)는 일반적으로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것으로 여겨졌으나 사무엘 진너는 표적을 요구한 유대인들(고전 1:22)의 말 곧 에비온파가 사용한 말들이라고 규정하였다. 진너는 “고린도전서 2장 6-16절에서 바울이 에비온파의 주요 형이상학적 용어를 사용하지만, 단어의 외적인 것을 채택하여 전략적으로 내적 의미로 바꾸면

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2-13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말하는 자유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말하는 금욕을 외친 자들도 에비온파로 보았다(128쪽). 에비온파는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음식에서만큼은 금욕을 주장했는데 바울은 그것이 서로 상반된 주장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1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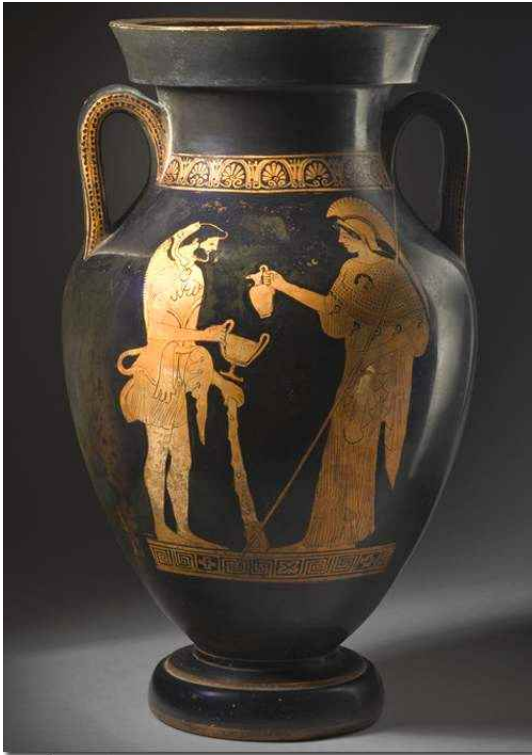
진너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도 에비온파가 주장하는 독신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스도교 이전 유대인들은 결혼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후에는 일시적이든 항구적이든 부부의 합방을 삼갔는데, 랍비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모세를 꼽는다.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후에 항구적인 독신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1세기 에센파인들도 가족부양이 끝난 다음에만 독신자가 되었고(129쪽), 후에 시리아 교회에서 에비온주의 전통이 지속되었는데, 시리아 교회에서 예수님께 개종한 후에 독신생활을 시작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고서 항구적 독신생활을 시작한 것과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와 관련된 유대교적 영지주의 그리스도인 에비온파의 교리는, 사무엘 진너에 따르면, 지혜(Chokhmah)와의 결혼이 언급된 히브리어 성구와 독신생활의 전통과 금욕주의가 언급된 랍비 문헌들에서 증명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헬라파 유대교와 히브리파 유대교사이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뜻인데, 1세기 유대교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는 성별이 여성(Lady Wisdom)이다. 잠언 8장 22절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했는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과 타르굼에는 “나를 가지셨다”가 ‘나를 낳으셨다’ 또는 ‘나를 창조하셨다’로 되어 있다고 한다. 잠언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고 있다. 잠언 7장 4절은 “지혜(chokhmah)에게 너는 내 누이(achot)라 하며 명철(binah)에게 너는 내 친족(kinsman)이라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누이’는, 아가서 4장 12절에 따르면, ‘신부’를 뜻할 수도 있다. 문자적으로 ‘누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호트’(achot)는 남자와 동등한 여성 곧 배우자를 뜻하기도 한다.

진너는 고린도에서 유대교적 영지주의 그리스도인 에비온파가 그들이 지혜로 침례를 받았다는 뉘앙스에 대해서(참고: 지혜서 10:18, 집회서 15:3, 6:31, 잠



지혜와 용기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타고난 고난과  
 용감히 싸우는 헤라클레스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암포라)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를 여성(Lady Wisdom)으로  
 의인화하고 있다. 중간기시대에 유대교에서는 이미 이 지혜  
 (Holy Wisdom)와 성령을 동등하게 여겼다(지혜서 7:7,  
 9:17). 따라서 바울의 적대자들이었던 유대교적 영지주의  
 에비온파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일신론자들이었으므로 성령을  
 지혜로 인식하였고, 그들이 지혜로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  
 한다는 암시가 고린도서에 담겨있다(지혜서 10:18, 잠 9:1,  
 15:3, 6:31, 잠 18:4).

을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용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였다. 5절에서 바울은 고기제품과 유제품을  
 (유대교의식에서) 철저히 구별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  
 씌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유대교의식에 상관없이)고 하였다.

그리스도교의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은 천지만물을 선하게 보고 선용(정신이든  
 물질이든 과학과 기술에서)하는 것이다.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선용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것이 창조신  
 앙이요, 부활신앙이다.

18:4) 그리스도교 이전 유대교에  
 이미 지혜와 성령을 동등하게 여겼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30쪽. 참고:  
 지혜서 7:7, 9:17). 이것은 단일신  
 론을 믿었던 예루살렘 에비온파가  
 성령을 지혜로 곧 지혜의 의인화로  
 가르쳤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진너 박사는 아볼로가 고린도인들  
 에게 이런 에비온파의 교리를 만들  
 어주지는 않았을지라도 최소한 확  
 증은 해줬을 것으로 보았다(131쪽).

3-5절은 바울이 토라를 지키는  
 에비온인들 사이에 퍼진 독신 관행  
 과 ‘카샤룻’(kashrut) 음식법을 반대  
 한 것이다. 이 음식법의 핵심은 고  
 기제품과 유제품을 어떤 경우에도  
 함께 먹거나 섞거나 담거나 씻거나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고, 율법과  
 규례에 따라 정한(kosher) 것과 부  
 정한(treyf) 것을 철저히 구별하여  
 거룩히(kadosh) 하라는 것이다. 이  
 에 바울은 혼인이든 음식물이든 “하  
 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

## 1세기 교회질서3: 믿음의 선한 싸움(13)(답전 4:6-10)

##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1)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무화과나무이고, 그것은 여성으로 표현되었다. 영지주의자들이 빛의 사자라고 말한 뱀도 지혜와 맞닿아있어서 여성으로 표현되었다. 잠언서에서도 지혜가 여성(Lady Wisdom)으로 의인화 되었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과 타르굼에서는 하나님이 낳으시고 창조하신 자로 표현되었다(8:22).

또 잠언 7장 4절은 “지혜(chokhmah)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려 명철(Binah)에게 너는 내 친족(kinsman)이라”고 했는데, 아가서 4장 12절은 “내 누이 내 신부”라고 했다. 이를 유대교 신비주의로 풀면 “내 누이”는 하나님이 낳으시고 창조하신 지혜요, 아담의 아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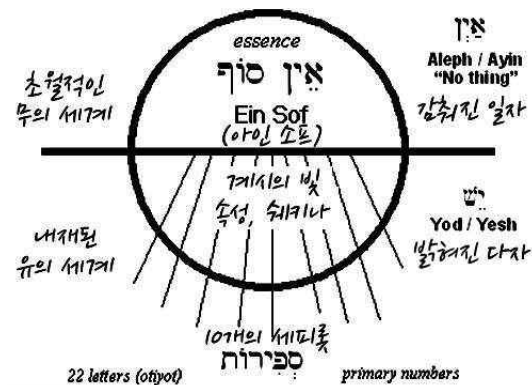
다. 그 가운데 두 번째가 지혜 곧 지혜 부인(Lady Chokhmah)이다. 바울은 에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토라의 교사들이 되기를 원한다(답전 1:7)고 비난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사무엘 진너(Samuel Zinner)는 <도마 복음>(The Gospel of Thomas)이란 책에서 디모테전서 1장 4절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헬라 영지주의 형태가 아니라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식 토라주석의 형태로 보았다. 바울의 적대자는 디도서 1장 10절에 언급된 “할레파”였고(143쪽),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딤후 1:14)고 보았다. 따라서 디도서 3장 9절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올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는 권면은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 또는 할라카 문제들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바울은 디모테전서 4장 7절에서 언급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대한 논쟁을 디모테후서에서도 이어갔다. 바울은 디모테후서 2장 14절에서 에비온파의 주장을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폄훼하였다. 에비온파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첫째, 카발라주의자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음가인 숫자로서, 예를 들어 666(거짓 선지자)과 888(예수)처럼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 구약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인

디모테전서 1장 4절은 신화, 족보, 억측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바울이 에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반박하는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특히 유대인 카발라인들의 주장 곧 태초의 빛에서 유출된 열 가지 세피롯(sefirot)을 족보라고 말한 것일 수 있다. 세피롯은 열개로써 각각의 명칭과 태초의 신인 아인 소프(Ein Sof)의 특성(형상)을 갖는

게마트리아(gematria); 둘째, 말장난; 셋째,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 하는 것처럼 단어들의 세피루트 의인화; 넷째, 토라의 단어들에 내재한 비밀을 신비스럽게 해석하는 소드(sod)가 그것들이다. 바울은 이들을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라고 하였다. 디모데후서 2장 17-18절에서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고 했는데, 특히 후메나오와 빌레도(Hymenaeus and Philetus)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유일하게 신약성서로 인정한 아람어 마태복음 27장 52-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를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144쪽).

###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2)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에서는 EM초의 빛 곧 영원한 무의 세계에 계셨던 유일하신 초월적 존재를 ‘아인 소프’ (Ein Sof)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성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아인 소프에서 유출(발산)된 ‘쉐키나’ (Shekhinah) 곧 하나님의 속성과 계시의 빛 열 가지를 ‘세피로트’ (Sefirot)이라 하는데, ‘아인 소프’ 곧 하나님은 이 열 가지 세피로트를 통해서 우주와 상호작용한다고 말한다.

랍비들이 토라를 해석(Midrash)하는 단계는 네 단계로 나뉘는데, 문자적 의미를 새기는 ‘페샤트’(Peshat), 심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찾는 ‘레메즈’(Remez), 랍비들의 미드라쉬적인 해석을 추구하는 ‘데라쉬’(Derash), 토라에 숨겨진 비밀스런(신비한) 의미를 찾아내는 ‘소드’(Sod)가 그것들이다. 유대교의 카발라는 이 ‘소드’ 곧 토라에 감춰진 비밀 또는 신비를 추구하는 유대교 신비주의로써 신플라톤주의에 가깝다고 한다.

신플라톤주의(Neoplatonism)는 3세기의 플로티노스(AD 205~270)가 발전시킨 헬라철학의 마지막 형태이다. 529년 그리스도교의 옹호자였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것을 금지시킬 때까지 그리스도교 사상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다. 신플라톤주의의 핵심개념은 이렇다. 첫째, 존재에는 여러 단계의 위계가 있다.

사무엘 진너 박사는 <도마 복음>이란 책에서 의인 야고보의 조력자였던 토비아(Theboutsis-Thobiah)란 사람이 유대인 그리스도교 곧 에비온주의를 견고히 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시킴으로써(76쪽), 결국엔 그 비밀스런 유대인 이단사설들로 교회를 허물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75쪽). 그리고 의인 야고보가 수장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에비온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아브라함 영지주의가 지금도 이슬람에 존재한다고도 했다(105쪽).

가장 낮은 단계는 물질세계이다. 둘째, 각각의 단계는 그들의 직전 단계에서 유출(발산)된다. 셋째, 각각의 존재는 그것이 유출된 직전 단계로 돌아가고자 한다. 넷째, 각각의 단계는 그들의 직전 단계의 거울이자 그림자이며 모형이다. 이 자연(물질)세계가 하나님을 보는 거울 곧 계시라는 주장과 같다. 다섯째, 최상위의 존재는 최초의 원인, 참 본질, 존재이전 또는 존재 너머의 일자 곧 태초의 빛이다. 존재와 그 위계는 이 태초의 빛에서 유출된다. 따라서 이 태초의 빛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단계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물질(육체)세계이다.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에서는 이 태초의 빛 곧 영원한 무의 세계에 계셨던 유일하신 초월적 존재를 ‘아인 소프’(Ein Sof)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아인 소프에서 유출(발산)된 ‘셰키나’(Shekhinah) 곧 하나님의 속성과 계시의 빛 열 가지를 ‘세피루트’(Sefirot)이라 하는데, 아인 소프 곧 하나님은 이 열 가지 세피루트를 통해서 우주와 상호작용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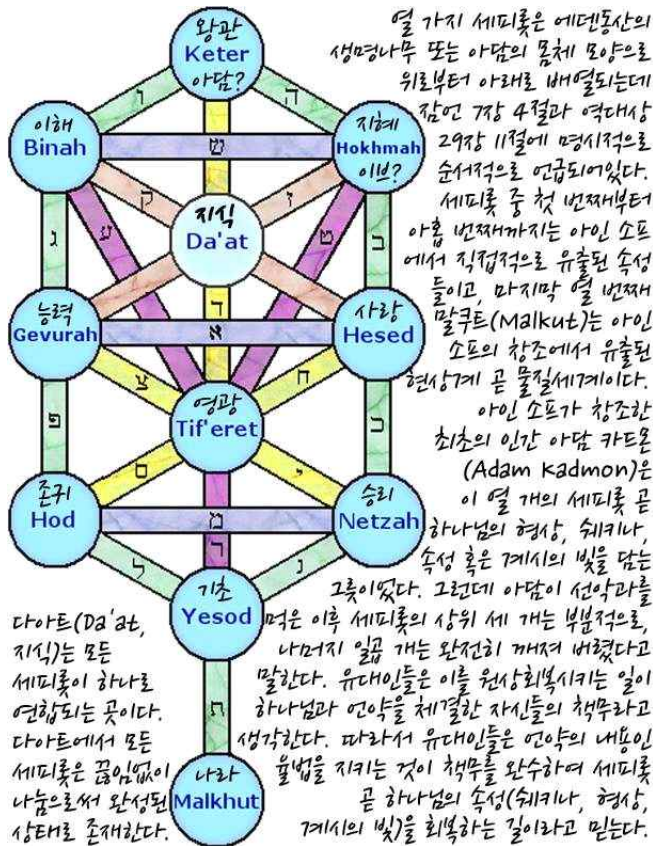
이 열 가지 세피루트는 에덴동산의 생명나무 또는 아담의 몸체 모양으로 배열 되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케테르(Keter, 왕관), 호크마(Chokhmah, 지혜), 비나(Binah, 이해), 헤세드(Chesed, 사랑), 게부라(Geburah, 능력), 티페레트(Tiferet, 영광), 네짜흐(Netzach, 승리), 호드(Hod, 존귀), 예소드(Yesod, 기초) 그리고 말कु트(Malkut, 나라)로 구성된다.

###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3)

중앙의 다섯 개의 특성들은 역대상 29장 11절, “주님, 위대함(gedulah)과 능력(gevurah)과 영광(tiferet)과 승리(netzach)와 존귀(hod)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Malkut)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의 머리 되신 분(Ein Sof)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에 명시적으로 순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세피루트는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성을 포함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선악간의 모든 일이 이 세피루트를 통해서 울려 퍼지고, 하나님과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세피루트 생명나무에서 다아트(Da'at)는 지식을 뜻하며, 모든 세피루트가 하나로 연합되는 곳이다. 다아트에서 모든 세피루트는 끊임없이 나눔으로써 완성된 상태로 존재한다. 세피루트의 첫 아홉 개는 아인 소프에서 직접적으로 유출된 속성들이고, 마지막 말कु트(Malkut, 나라)만 아인 소프의 창조에서 유출된 현상계 곧 물질세계이다.

아인 소프가 창조한 최초의 인간 아담 카드몬(Adam Kadmon)은 이 열 개의 세피루트 곧 하나님의 형상(셰키나와 속성 혹은 계시의 빛)을 담는 그릇이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이 열 개의 세피루트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세피루트의 상위 세 개는 부분적으로,



나머지 일곱 개는 완전히 깨져 버렸다고 말한다. 유대인들은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신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책무를 완수하여 세피루트 곧 하나님의 형상(쉘키나, 속성, 계시의 빛)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유대전통에서는 모든 유대인의 영혼들이 토라를 받던 시기에 존재했었고 그곳에 있었으며 시내산 언약에 동의했다고 말한다. 그것은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4:7절)고 하였고,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4:6절)고 했으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며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둔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4:8-10) 선언하였다.

## 1세기 교회질서4: 믿음의 선한 싸움(14)(답전 4:3-16)

## “그리스도 예수와 좋은 일꾼”(1)



에베소 교회의 감독 디모데

비잔틴 황제 바질2세(AD 976-1025)에 의해 편찬된 축일표(예배서)에 실린 삽화. 디모데는 아르테미스 숭배자들과 맞서 싸웠고, 고난을 감내했으며, 끝내는 둘에 맞서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3-16절은 “그리스도 예수와 좋은 일꾼”의 세 가지 조건들과 그 일꾼의 선한 싸움 곧 “수고하고 힘쓰는” 세 가지 이유들과 일곱 가지 추가 권면으로 읽힌다.

좋은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3-5절 혼인과 음식물에 대해서 성경말씀 곧 믿음의 말씀대로 형제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 있다.

유대교나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혼인은 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것은 다 좋고 깨끗하다. 창세기 2장 24절은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고 하였다. 또 남녀가 혼인하여 한 몸을 이루면 둘 다 별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25절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혼인상태가 깨끗해 정한 상태 곧 ‘코스’(kosher)일 때를 말한다. 그러나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는 말씀은 혼인상태가 깨지고 찢겨 부정한 상태 곧 ‘트레이프’(treyf)일 때를 말한다. 유대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결국 깨끗한(kosher) 것과 찢겨져 부정한(treyf) 것과 거룩한(kadosh) 것을 구별할 줄 안다는 뜻일 것이다. 아담과 이브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찢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관계도 깨지고 찢겼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담이 이브 탓을 할 수 없고, 이브가 뱀 탓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혼인에 대해서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던 것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4-6절에서 “사람을 지으신 이”의 뜻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고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독신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남녀가 짝을 이뤄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바울은 음식물에 대해서도 3-5절에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다.

###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2)



디모데(스테이인드클라스, Musée National de l'Art Medieval, cluny). 디모데는 보통 수염이 아직 나오지 않은 청년으로 묘사된다. 디모데가 자신을 대러 죽게 한 몽둥이를 어깨에 메고 있다. 몽둥이는 깃털모양으로 그려졌는데, 순교자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로 여겨진다. 머리 위쪽에 S. TIMOTHEVS. MARTYR(성 디모데 순교자)라고 새겼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15-16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그 음식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성결하다 해도,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다.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마음속의 악을 제거하는 것이지, 특정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에 있지 않다는 말씀이다.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킨다는 자만과 우월감에 빠진 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한 것은 마음속에 악이 가득한 때문이요, 마음속의 악을 제거하지 않은 채, 부정한(treyf) 음식을 멀리하고 정한(kosher) 음식만 골라먹는다고 해서 거룩하게(kadosh) 될 수 없다는 말씀이다.

좋은 일꾼의 두 번째 조건은 자신이 가르친 “믿음의 말씀과 ...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데 있다. 6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

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

로 양육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네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너는 믿음의 말씀과 네가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혹은 네가 지금까지 따라온 그 훌륭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는 뜻이다.

남을 가르치는 자는 자신의 가르침으로 스스로 양육을 받는다. 만일 가르치는 자가 남을 가르치기만 하고 정작 자신은 양육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분명 실패한 것이다. 훌륭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면, 자기가 연구하고 깨우친 믿음의 말씀을 남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실천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혹은 “지금까지 따라온”이란 구절이 바로 그런 뜻이다. 자신이 가르쳐온 믿음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충실히 이행하고 따라야 “좋은 교훈”인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것이다. 그리고 6절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는 7절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과 동일하다. 따라서 남을 가르치기만 하고 정작 자신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아니라 돈을 위해 일하는 실패한 것이다.

###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3)

세 번째 좋은 일꾼의 조건은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데 있다. 그 결과는 8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현세에서 뿐 아니라, 내세에서조차 기업을 가진 자 곧 그 기업의 약정서를 손에 쥔 자란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내세를 약속받았다. 이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하였다. 경건은 금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고, 내생에서의 삶을 확증해주기 때문이다.

9-10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기” 때문이다(9절).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10절). 세 번째 이유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기” 때문이다(10절).

마지막으로 11-16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세 가지 조건들과 그 일꾼의 선한 싸움 곧 “수고하고 힘쓰는” 세 가지 이유들에 대한 일곱 가지 추가 권면이다.

첫째,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11절).

둘째,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12절).



디모데(프레스코)  
5세기경, 산 파울로 푸오리 레 무라 대성당

셋째,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12절).

넷째,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13절).

다섯째,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14절).

여섯째,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15절).

일곱째,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16절).

## 1세기 교회질서5: 믿음의 선한 싸움(15)(딤후 5:1-16)

“아버지에게 ... 형제에게 ...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가난한 바오리족 미망인(charles Goldie, 1903)

디모데전서 4장에서 “좋은 일꾼”의 세 가지 조건들과 그 일꾼의 선한 싸움 곧 “수고하고 힘쓰는” 세 가지 이유들과 추가로 일꾼 가치를 권면한 바울은 5장 1-16절에서 권면할 때의 태도와 교회가 미망인들을 어떻게 돌봐야할지를 조언하였다.

1절의 “늙은이”는 헬라어 ‘프레스비테로스’(presbyteros)의 번역으로써 흔히 장로(사제)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2절의 “늙은 여자”가 대조되고 있어서 남성 노인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꾸짖지 말고”는 ‘주먹으로 치다’는 뜻이 담긴 말인데, 심하게 질책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권하라”는 헬라어 ‘파라칼레이’(parakalei)의 번역으로써 문자적인 뜻은 ‘곁으로(para) 부르다(kaleo)’이다. 곁으로 부르는 경우는 대개가 도움이 필요한 때이다. 119나 의사나 변호사를 부르든지, 상담사나 교사나 교회지도자를 부르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권하라”는 ‘격려하라’ 혹은 ‘조언하라’가 된다. 그러므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는 말은 “아버지에게 하듯” 존경과 정중함으로 조언하라는 뜻이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도 마찬가지로 의미이다. 특히 젊은 여자에게는 성희롱이나 성적수치감을 느낄만한 말이나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전 세대들에서는 지도자들이 위임된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꾸짖기도 하고 징계도 내릴 수 있었고, 또 그 같은 권위를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수용했지만, 오늘날에는 부모조차도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매사에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꼭 권면이나 격려해야 하는 경우에

도 듣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아드릴 만한 태도와 말로써 조언하거나 격려해야한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것이 설사 천사의 말일지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다 헛소리가 되고 만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라고 노래한 고린도 전서 13장 전체를 우리는 늘 상기할 필요가 있다.

### “과부를 존대하라”



남편을 추모하는 젊은 미망인(Nikolay chekhov, 1885) '미망인에게 희망을' 회장 그웬 패터슨(Gwen Peterson) 여사에 따르면, 미망인들 가운데 삼분의 일 정도가 45세 이전에 배우자를 잃는다고 한다. 또 급작스레 닥친 불행으로 젊은 미망인들은 외상후 스트레스로 큰 혼란을 겪는다고 한다.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나날이 개선되고 있어서 1세기 교회시대 때처럼 교회나 친족이 짊어져야할 부양의 짐이 상당히 가벼워졌다. 성서시대에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부양이라고 해봐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해주는 정도였다. 그 정도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하지 않나 쉽다.

1세기 그리스 로마에도 미망인들이 많았다. 특히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들이 많았다. 전쟁이 많았기 때문이다. 많은 아이들이 열 살 이전에 죽었고, 인구의 절반은 20세 무렵에 죽었다. 기대수명은 50세에 못 미쳤다. 가난과 빚도 걱정거리였다. 가난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은 노예로 팔리기 십상이었다.

디모데전서 5장 3-8절에 언급된 과부 곧 미망인들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처럼 큰 정부 곧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했던 때의 말씀이다. 우리나라에 6.25동란이후 수많은 과부들과 고아들이 생겼을 때, 성경말씀대로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발 벗고 나서서 공활사역을 담당하였다. 일제의 36년간의 착취와 태평양전쟁, 뒤이어 터진 6.25동란으로 인해서 국가는 피폐해졌고, 해외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국가가 이만큼까지 재건되고 성장된 데에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국내외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희생이 매우 컸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해외원조가 필요치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가난한 많은 나라들을

1세기 그리스 도시국가들에서는 미망인들이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 반면에 크레타에서는 합법적 남성 상속자에게만 재산을 남길 수 있었다.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선물뿐이었다. 아테네에서는 미망인의 재혼이 흔했고, 지참금도 되돌려 받았다. 자녀를 둔 미망인은 죽은 남편의 집에 머물 수 있었는데, 그녀에게 성장한 아들이 있다면, 대개는 그들 중 한 아들이 그녀의 지참금을 관리하게 되고 새로운 ‘주인’(kyrios)과 ‘보호자’가 되었다. 또 아테네 법은 아들이 미망인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장치를 제공하였다. 또 다른 선택은 미망인이 자신의 지참금을 가지고 가족 곧 자신의 부모에게 돌아가 그들에게 보호를 받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아래 있는 미망인들은 교회로부터 도움이 필요치 않았다. 왜냐하면 미망인의 지참금을 관리하는 자가 그녀를 돌보아야 할 법적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3-8절의 과부들은 “존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자들이고, 9-16절의 과부들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들이다. 전자의 자격은 궁핍과 경건이고, 후자의 자격은 “나이가 육십이 될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이다. 이 자격은 동시에 이들이 교회에서 맡았던 봉사자의 임무와 같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5,16절에 “참 과부”란 말이 세 번 나온다. 이 어구의 뜻은 도움이 절실한 과부를 의미한다. 지참금이나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거나 자신을 돌봐줄 친척이 없는 미망인을 의미한다. 이것이 참 과부의 첫 번째 조건이다(4절). 두 번째 조건은 “외로운 자”이다.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이다(5절). 6절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지참금이나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거나 자신을 돌봐줄 친척이 없기 때문에 결국 몸을 팔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일 수도 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들은 교회에서 상기한 봉사, 특히 여성들을 위한 봉사를 맡았던 자들로 추정된다. 테르툴리아누스에 의하면, 2세기 후반부터 명부에 올라간 과부들은 기도해 힘썼고 병자를 간호했으며 고아를 돌보고 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이교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회심한 여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했다(존 스토티, <디모데전서, 디도서 강해> 김현희 옮김, IVP). 이들의 조력은 여성들이 침례를 받을 때 반드시 필요했다. 고대 그리스도인 침례는 벌거벗은 몸으로 물속에 들어가 세 번 침수를 했기 때문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유대교 개종침례 때도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바울이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한 것은 첫째, 재혼의 가



무덤의 비석을 화환으로 장식하는 미망인  
(lekythos 기름병, 420-410 BC)

능성과 정욕 때문이었다(11-12절). 둘째,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을 쫓이기” 때문이었다(13절). 셋째, “쓸데 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 할 말을 하기” 때문이었다(13절). 덧붙여 바울은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14절)고 했고, 교인들은 과부 친척을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 지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 1세기 교회질서6: 믿음의 선한 싸움(16)(답전 5:17-25)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그나티우스(안디옥 감독 및 사도 요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는 트라야누스 황제(AD 98-117) 때인 107년경에 로마로 압송되어 원형극장에서 들짐승들에 찢겨 순교하였다. 그는 안디옥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Theophoros)'란 별명을 얻고 있었다.

디모테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는 이보다 10여년 이상 먼저 쓰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13절 “...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와 동일한 말씀이다.

장로는 교회를 관리 감독하고 치리하는 자로서(행 20:28) 집사보다는 높으나 사도, 선지자, 교사보다는

낮았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와 남을 돕는 자와 다스리는 자와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라.”고 하였다.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로 언급된 사도, 선지자, 교사는 불박이 교회 사역자들이 아니라 교회들을 순회하는 사역자들이었다. 불박이 교회 사역자들은 장로들이었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와 남을 돕는 자 다음으로 언급된 ‘다스리는 자’에 해당된다. “다스리는 자”로 번역된 말은 ‘관리자’ 또는 ‘지도자’란 뜻이다.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하였다.

장로는 주후 30년 교회창립과 동시에 채택된 직책이다. 사제는 테오도시우스 대제가 392년 그리스도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삼고 암브로시우스와 아우구스

티누스(어거스틴)가 주교로 섬겼던 시대에 본격화된 제사예배(미사)로 인해서 장로(presbyter)란 말 대신에 가톨릭교회, 정교회, 성공회 등에서 쓰이고 있고, 목사(pastor)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사제라는 말 대신에 사용하여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에서 쓰이고 있다. 이처럼 사제와 목사는 모두 장로를 대신한 말들이다.

오늘날의 평신도 장로개념은 종교개혁가 장 칼뱅과 존 녹스가 평신도 장로대 의제를 교회에 도입함으로써 처음 생겼다.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장로 교회이다. 이후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로, 평신도 장로들은 치리 장로로 일컫게 되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카파도기아 교부들(17세기, Lipie, 역사박물관, Sanok, Poland)  
좌측부터 가이사라의 바실(330-379), 닛사의 그레고리우스(335-395, 바실의 동생),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329-389, 바실 형제의 친구). 이들은 삼위일체 신앙을 확정한 콘스탄티노플 신조(381)의 공헌자들이었다.

평신도 장로제도는 가톨릭교회, 정교회, 성공회, 미국 감리교회와 같은 전통교회들에는 없는 제도이고, 침례교회를 뺀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에만 있는 제도이다. 게다가 유럽대륙의 교회들은 전통교회들과 개신교회들을 막론하고 모두 국교이거나 시의회 교회들이었다. 한마디로 종교(신앙)의 자유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까, 평신도장로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시의회들이 선출하는 임기 1년직이었지만, 그들은 평신도들의 삶을 감독 감시하고 권선징악하거나 성만찬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토큰이나 표를 나눠주는 권리를 행사

하는 이들이었다. 임기직은 인물난으로 인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종신직으로 대체되었다.

불박이 교회 사역자로서의 장로는 유대교 회당의 장로들에서 유래되었다. 주후 30년에 출범한 예루살렘교회는 유대인 성도들로 구성되었고, 열두 사도뿐 아니라, 바울, 바나바, 스테반, 빌립 등도 모두 유대인들이었다. 그런데 유대인

들에게 장로는 이미 모세시대에 정착된 직책일 뿐 아니라, 바벨론유배이후 회당기도회가 정착되면서부터는 회당중심의 유대인 공동체를 책임진 회당장이자 유대교법의 재판관이였다. 장로의 구성인원은 세 명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이나 증인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세 사람이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도와 교육 및 공회의 책임과 율법규정에 따라 채찍질을 하게 하거나 옥에 가두거나 파문을 시키는 등의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마 10:17, 눅 21:12, 행 22:19).

주후 40-50년대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들과 장로들이였고(행 11:30), 장로 야고보가 그들의 수장이였다. 40년대 후반에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 지도자로 세웠고(행 14:23), 50년경에 디모데는 고향 루스드라 교회의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으며(딤후 4:14), 58년경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석별의 정을 나눴다(행 20:17). 이때 바울은 그들을 양들의 감독과 목자(목사)로 호칭하였다(행 20:28). 이 장로가 감독(주교)과 목사로 나뉜 것은 2세기 초 이그나티우스 때부터이고, 국교시대에는 장로가 사제(제사장)로 둔갑되어 계급화되었다.

####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고대 러시아(Kievan Rus)가 11세기에 발행한 책색  
책에 실린 교회 교부들(Svyatoslav's Miscellany)

바울은 19절에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했다. 바울은 20-22절에서 디모데에게 치리와 관련된 권면을 하였는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책임 장로였다. 바울은 20절에서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했는데, 당대에는 성도들의 권징이 장로들의 책임이였다. 이 권징의 효력이 18-19세기, 심지어 20세기에도 강력했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가 국가 또는 시의회 종교였기 때문이였다.

장로들은 불박이 교회 사역자들이였기 때문에 그들이 안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토록 하게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가지를 보장해줘야 했다. 첫 번째가 의식주의 안정이였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신분보장이였다. 그래서 바

그러나 미국에서 정교분리 곧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수정헌법이후에는 권징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었고, 교회의 권징은 오히려 법적소송에 말려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21-25절의 권면은 오늘날에도 매우 유용하다. 바울은 21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고 했는데, 디모데로 대표되는 장로들은 “편견이 없이...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22절에서는 세 가지를 추가로 권면하였는데, 첫째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3절에서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하였다. 사실 지중해연안과 유럽의 물에는 다량의 석회가 함유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 석회수는 '수산화칼슘'의 함유로 위장을 자극하여 복통을 유발하거나 요로결석 등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수 처리되지 않은 생 석회수를 장기간에 걸쳐 마셨을 때 발목 부위부터 석회 성분이 퇴적되어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물에 포도주를 희석하여 마셨고, 유럽의 현대인들은 맥주와 탄산수를 선호한다. 24-25절은 선악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고 심판도 따르게 된다는 말씀으로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하는가를 일깨워준 말씀이다.

## 1세기 교회질서7: 믿음의 선한 싸움(17)(딤후전 6:1-2)

## “자기 상전들을”



연회를 준비하는 노예들(214년경, 칼타고, 모자이크, 파피 루브르)  
노예들의 상당수는 여자 노예가 낳은 모태 노예들이었다. 여자 노예 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은 로마법에 의해 모두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디모테전서 6장 1-2절에서 두 종류의 상전 곧 비그리스도인 주인과 그리스도인 주인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명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말한다.

먼저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비그리스도인 상전을 어떻게 섬겨야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한다.”고 했다. 여기서 “마땅히 공경할 자”는 “아주 존경할

분”(새번역), “크게 존경해야할 사람”(가톨릭), “worthy of full respect”(NIV), “worthy of all respect”(HCSB)를 의미한다. 온 맘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한다는 뜻이다. 왜 그래야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를 <표준새번역>은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게”로, <가톨릭성경>은 “하느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로 번역하였다.

이점에 있어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충분히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못함으로써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 및 주변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 및 주변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그리스도인 상사나 고용주로부터도 부당한 처우나 요구 및 부당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정반대로 그리스도인 상사나 고용주가 불의한 고용인들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부당한 희생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는 일도 흔하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그리스도인 상전을 어떻게 섬겨야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소홀히 여기지 말라”(공동번역), “are not to show less respect”(NIV) 혹은 “should not be disrespectful”(HCSB)이란 뜻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그리스도인 상전을 더 잘 섬겨야 한다고 했다. 바울은 그 이유를 그리스도인이 정성껏 섬김으로써 얻는 유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섬김으로써 얻는 유익이 섬김을 받는 자뿐 아니라, 섬기는 자에게까지 돌아간다는 뜻이다.

###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노예들이 동물을 잡아 음식을 준비하는 프레스코(AD 100-150)

(J. Paul Getty Museum, Malibu, California)

노예들의 상당수는 여자 노예가 낳은 모태 노예들이었다. 여자 노예 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은 로마법에 의해 모두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새 주인에게 팔아넘기는 것보다 더 굴욕적인 것이 있겠는가?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철저히 파괴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노예는 시장에서 자신이 경매에 붙여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노예는 언제라도 다시 팔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 잡혀 있었다. 아무 때라도 가족 중 누군가가 팔려나가 가족이 해체될 수 있었다. 노예는 주인이 죽으면 상속재산의 일부가 되었다. 노예는 주인이 파산하면 담보물의 일부가 되었다. 노예들은 미래의 주인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휴식을 얻지 못했다.

로마의 노예법은 노예를 재산으로 규정하였다. 노예 신분은 사회적 지위였다. 모든 사람은 노예와 자유인으로 구분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노예 신분이었다. 이 악명 높은 구분이 노예를 주인의 지배아래 놓이게 했다. 이것은 로마재산법의 근본이념이었고, 소유자가 자기 것을 마음껏 부리고 팔수 있는 권한을 말한 것이었다.

로마의 노예법은 로마인들이 노예 제도를 전쟁과 깊게 관련지었다는 점을 시

1절의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노예들을 말한다. 여기서 노예는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 또는 주인의 재산을 의미한다. 이 점에 대해서 로마의 웅변가 리바니우스(Libanius)는 “노예는 언제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될 사람이다. 노예에게 있어서 이전 주인이

새 주인에게 팔아넘기는 것보다 더 굴욕적인 것이 있겠는가?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철저히 파괴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노예는 시장에서 자신이 경매에 붙여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노예는 언제라도 다시 팔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 잡혀 있었다. 아무 때라도 가족 중 누군가가 팔려나가 가족이 해체될 수 있었다. 노예는 주인이 죽으면 상속재산의 일부가 되었다. 노예는 주인이 파산하면 담보물의 일부가 되었다. 노예들은 미래의 주인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휴식을 얻지 못했다.

사한다. 로마인들은 노예들이 큰 틀에서 전쟁포로가 되어 노예 신분이 되었다고 믿었다. 실제로 그들은 노예들이 전쟁 때 죽었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전쟁포로로 살아남은 것이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다. 노예들은 비록 지금 살아 있지만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전쟁에서 도륙당하는 대신에 노예 신분이라는 자비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로마의 노예법은 여자 노예한테서 태어난(ex ancilla natus) 아이는 엄마를 따라 노예 신분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노예주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다. 이 규정은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전혀 물을 필요가 없도록 했고, 친자여부에 대한 모호성도 없애주었으며, 노예주들이 자기 노예들을 성적으로 착취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노예들은 법적으로 인간이 아닌 사고파는 물건이었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운명의 결정권도 일의 재량권도 없었다. 따라서 노예들은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 노예들은 주인이 때리면 맞고 겁탈하면 겁탈 당해야 했다. 저항은 곧바로 병신이 되도록 맞거나 죽음에 처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 “자기 상전들을 법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멧돼지를 사냥하여 어깨에 메고 가는 노예들(모자이크, AD 315-350)  
(Villa Romana del casale, Piazza Armerina, Sicily)  
노예들의 상당수는 여자 노예가 낳은 모태 노예들이었다. 여자 노예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은 로마법에 의해 모두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로마시대의 노예들에 대한 지난 20년의 연구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은 로마사회에 거주한 대다수의 노예들이 모태 노예 곧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자들이었다는 이해이다. 노예들을 시장에 공급한 주공급원이 전쟁이나 해적이 아니라 출산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해이다. 이런 이해의 전환은 남성노예들에 집중되었던 연구를 여성노예들에게 집

중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역사가들은 이제 노예들이, 비록 합법적 결혼은 아닐지라도, 가정을 꾸린 일이 흔했을 것으로 믿게 되었다. 비록 노예들의 가족은 모태 노예라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가족애는 노예들이 일상에서 노예 상태의 비인간화를 극복하거나 저항한 주된 힘이였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석비가 최근에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부지 내에 작은 가족단위로 거주했던 152명의 노예들의 이름과 나이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노예들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했다. 노예들은 포도주, 밀, 기름 등과 같은 농

산물 생산에 종사했고, 섬유업이나 가사노동에도 종사했다. 고등교육을 받은 노예들은 의사, 서기, 가정교사, 집사, 사업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로마사회에 고등교육을 받은 노예들이 적지 않았는데, 다수가 헬라인들이었다. 그들은 헬라문화와 고전에 해박했다. 이들 중 에픽테투스(Epictetus)는 주후 55년 로마에서 모테 노예로 태어났는데, 비록 다리를 절었지만, 좋은 주인 덕분에 교육도 받고, 나중에는 해방노예가 되어 심오하고 영향력 있는 스토아철학자가 되었다. 그는 참된 자유는 외적이거나 법적이지 않고 내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했고, “모든 선한 사람은 자유하다”고 가르쳤다. “모든 선한 사람은 자유하다”는 이 스토아철학의 역설은 노예 신분과 자유인 신분을 육체적 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내적 영적으로 구분한 말로써 에픽테투스뿐 아니라, 키케로(Cicero), 디오 크리소스툼(Dio Chrysostom), 유대인 필로(Philo of Alexandria)조차도 강조하였다.

“모든 선한 사람은 자유하고, 모든 나쁜 사람은 노예이다.”는 이 유명한 글귀는 역설적으로 고대 로마사회에서 노예폐지운동이 결코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에픽테투스처럼 교육을 받은 노예들조차도 노예 제도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노예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적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였다. 그 초석을 놓은 인물이 바울이다. 비록 바울에게는 노예제도를 제거할만한 권력이 없었지만, 복음이란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어서 신분의 담을 비롯한 모든 차별의 담들을 무너뜨렸고, 인류를 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 수가 있었다.

## 1세기 교회질서18: 믿음의 선한 싸움(18)(답전 6:3-10)

## 자족의 경건



만민들의 성자, 만교 최후선 목사(1921-2001.09.08)  
최후선 목사는 지양철 통로에 서서 종종 이렇게 외치셨다.  
“예수 십자가는 생명의 젖줄이, 평화의 젖줄이, 그래서  
십자가 젖줄기 하나, 교회 하나, 교단은 여러 개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다!” 이 외침, ‘교회는 하나다!’는 그가 한때 집포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설립자요, 진실한 목회자였음을 말해준다.

디모데전서 6장 3-10절에서 바울은 경건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다. 두 가지 경건을 말씀하였는데, 한 가지는 “이익의 방도”로써의 경건이고(godliness as a means to financial gain, 5절), 다른 것은 ‘자족으로써의 경건’(godliness with contentment, 6절)이다. 여기서 바울은 자족함이 없는 경건 즉 재정 수입의 수단으로써의 경건을 경계하고 있다. 바울은 “이익의 방도” 또는 재정수입의 수단으로써의 경건을 “다른 교훈”으로, ‘자족으로써의 경건’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구별하고 있다. 9-10절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고,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 근심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6-8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이익이 됨으로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권면하였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거지에서 백만장자에 이르기까지 자기 뭇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천 명 중 한명도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세속이 정한 기준을 좇아 힘을 탕진하고 갖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가 꿈꾸던 목적을 이루자마자 또 다른 것을 꿈꾼다. 이러한 시지포스의 노동은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 400만원을 버는 사람은 500만원을 벌기 위해 애쓰고,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6천만 원을 받기 위해 애쓴다. 오늘은 새 옷과 새 가구를, 내일은 오디오와 소파를 사야하고, 다음날은 자동차와 휴대폰을 새 걸로 바꿔야 하며, 그 다음에는 집을 넓은 평수로 옮겨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그런 다음에는 과로로 인해 혹은 병을 얻어 죽는 것이다. 살아남는 자들도 저들과 똑같이 새로운 것을 사고 사들이는 생활을 계속하며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깨닫지 못한 채로 죽음에 이른다.

1923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재벌들이 미국 시카고 에지워터 비치호텔에 모여 회합을 가졌다. 이 첫 모임이 있던 후 25년 뒤, 이들의 성공과 부가 어떻

게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해진 한 작가가 이들의 삶을 추적하여 1948년에 발표하였는데, 세계 최대 철강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스왑은 파산하여 빚더미에 눌러 살다가 죽었고, 세계 최대 전기회사 사장이었던 사무엘 인솔은 객사하였으며, 세계 최대 가스회사 사장이었던 하워드 홉슨은 정신병자가 되었고, 세계 최대 밀 회사 사장이었던 아더 커튼은 피살당하였으며, 뉴욕증권사 사장이었던 리처드 휘트니는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후 죽었고, 월가의 맥주회사 사장이었던 제시 리버모오는 자살하였으며, 세계 최대 전매회사 사장이었던 이반 크루거는 객사하였고, 국제은행의 은행장이었던 리온 프레이저는 자살하였으며, 내무장관이었던 앨버트 폴은 무직으로 살다 죽었다고 한다.

### 자발적 가난



자발적 가난의 성자, 만고 최후의 목사. 2001년 9월 8일 소천하신 바로 그날 수원형전철에서 마지막 모습. 최후의 목사는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 천당, 날마다 천당...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초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것,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병을 없이 앓는 복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일을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 배 권세예요...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닦아드립니다.”라고 고백하셨다.

알로이스 피어리스는 <아시아의 해방신학>이란 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 됨의 영성은 가난한 사람이 되겠다는 신념과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겠다는 신념이라고 하였다. 진정한 영성은 가난해지려는 싸움과 가난한 자를 위한 싸움이라고 하였다. 첫 번째 싸움은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려는 자신과의 싸움이고, 두 번째 싸움은 가난을 강요하는 자들과의 싸움이다. ‘종교사회주의’를 지향한 피어리스는 “가난은 가난으로 치유된다”고 말한 보프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발적인 가난이야말로 기독교의 아가페적 영성이라고 믿었다.

가난이 복이란 신념을 갖고 자발적으로 가난해진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자발적 가난을 실천한 수도자였다. 그는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무너진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기사가 되려던 꿈을 버리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 그 후 수도회를 만들어 청빈의 가치를 실천하였다.

미국에는 일체의 현대문명을 거부한 채,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24만여 명에 이르는 아미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들은 자동차, 전기, 전화기, TV, 라디오, 컴퓨터, 핸드폰 등을 일절 금하며, 마차를 타고, 말과 쟁기로 밭을 갈며, 패물착용을 금하고, 검정색이나 회색으로 소박한 옷차림을 한다. 또 외부의 공

격과 폭력에 보복하지 않으며, 법적소송을 금한다. 아미쉬 그리스도인들은 “Jesus first, Others next, Yourself last” 곧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상대방을 그 다음, 자기 자신을 맨 마지막에 놓기를 힘쓴다. 그것이 JOY 곧 기쁨이라고 믿는다.

법정 스님이 강조한 무소유도 ‘자발적 가난’이었다. 법정은 ‘자발적 가난’의 의미를 열심히 일해 부를 쌓고, 필요이상의 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씌으로써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E. F. 슈마허의 <자발적 가난>에 따르면, 자발적 가난은 창조적 가난이고, 자유를 얻기 위한 성스러운 가난이다. 가난에 대한 공포는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최악의 도덕적 질병이다. 버리면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많은데도 권 것을 놓지 않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 “Less is more.” 즉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자발적 가난은 빈곤이 아니라 나눔이며,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려는 신념이다. 자발적 가난은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탕진하지 않으며, 돈에 휘둘리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의 태도이다.

###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이국지사 최춘선 목사의 묘(대전 현충원)

최춘선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곧 이익이 되느니라...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는 말씀을 실천해왔다(딤후 6:6-8).

최춘선 목사는 일제 말 동경 유학시절인 20대 때에 낮은 곳, 가난한 자들, 밑바닥 삶을 지향하면서 빈민운동을 했던 가가와 도요히코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만주로 건너가 광복군의 섭외부장으로서 김구 주석 밑에 있다가 종전 후인 30대 때에 김포에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당시 50대였던 김은석 목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활동하였다. 최춘선 목사는 김은석 목사의 성경메모에 수차례 언급되어 있다. 최춘선 목사는 지하철 통로에 서서 종종 이렇게 외쳤다. “예수 십자가는 생명의 젖줄기, 평화의 젖줄기, 그래서 십자가 젖줄기 하나, 교회 하나, 교단은 여러 개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다!” 이 외침 ‘교회는 하나다!’는 그가 한때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의 개척설립자요 진실한 목회자였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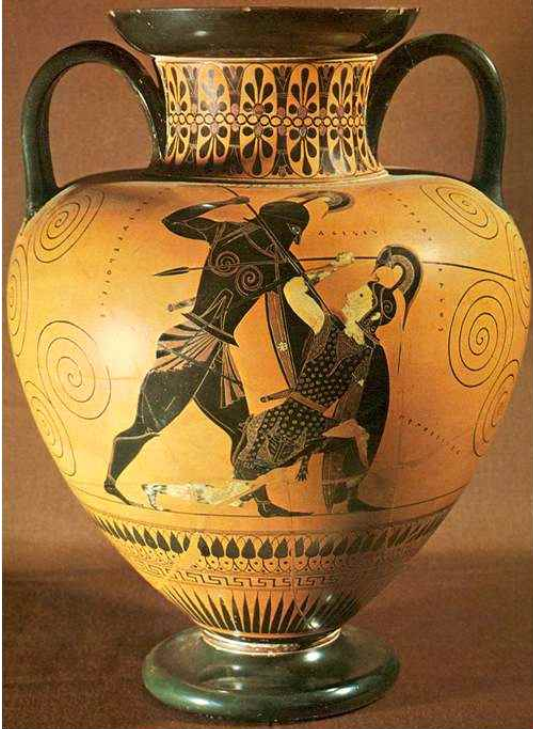
최춘선 목사는 5개 국어를 할 줄 알았고, 5남매를 목사와 교수 등으로 길러냈으며,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큰 길에서 인천 국도까지 수십만 평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던 엄청난 부자였다. 최춘선 목사는 유산으로 받은 땅을 자신의 것

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믿고 실향민과 가난한 이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3천 평을 자신의 몫으로 남겼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며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걸 알고 누군가 그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해 그마저도 다 빼앗겨 버렸지만 힘든 표정 한번 짓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6.25직후 거두기 시작한 수백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서른 번도 넘게 이사를 다녔다. 최춘선 목사는 독립유공자였기 때문에 도장만 찍으면 연금과 자녀들 학비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신청을 거부하였다. 그 후 50살이 되는 1970년경부터 2001년 9월 8일 80세의 일기로 소천 하던 순간까지 남북통일이 되면 신겠다며 30년을 넘게 추우나 더우나 맨발로 다니며 전도하였고, 소천 하던 바로 그 날도 지하철에서 전도하던 중에 의자에 앉은 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분의 유해는 지금 대전 현충원 제2애국지사 묘역에 모셔져 있다.

최춘선 목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였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가장 큰 복을 누렸다. 그분이 남긴 어록들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 천당, 날마다 천당...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초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것,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일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일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 배 권세예요... 말세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합니다.”

## 1세기 교회질서9: 믿음의 선한 싸움(19)(딤후 6:11-21)

##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킬레우스와 펜테실레이아의 전투(암포라, 540-530 BC)  
트로이 전쟁에서 아킬레우스(Achilles)가 아마존의 여왕  
펜테실레이아(Penthesileia)를 죽이는 장면이다.  
펜테실레이아는 12명의 여전사들을 데리고 패색이 짙은  
트로이군을 지원하였다. 이 암포라의 특징은 묘사된 인물들과  
함께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점이다. 아킬레우스의  
창끝이 표범가죽차림의 펜테실레이아의 심장에 이미 닿아  
있다. 죽이는 자와 죽여가는 자가 철나적으로 사랑에  
빠졌기에 서로의 눈을 응시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1-12  
절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하였다. 싸워서 무찔러야 할 대상을 오직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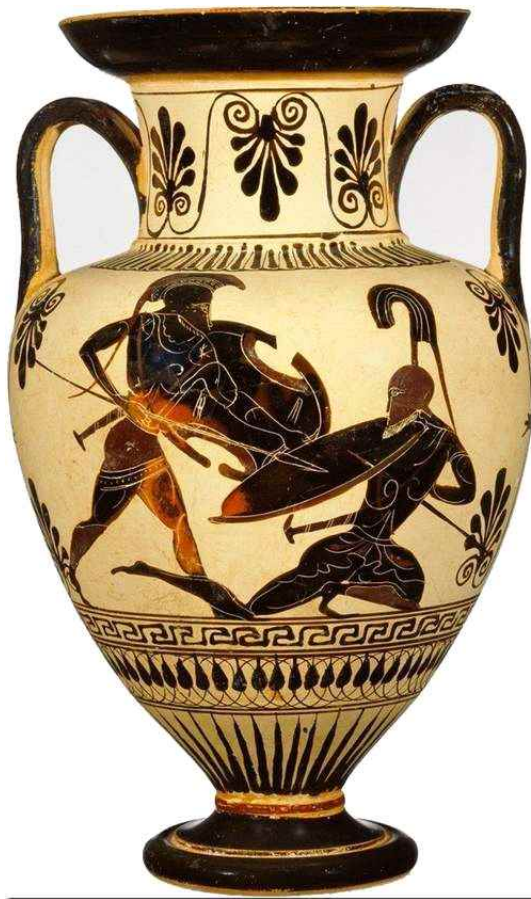
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고 하였다.

바울은 6장 3-10절에서 디모데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관련해서 피해야 할 것들과 공격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였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사단의 공격을 피하라는 말씀인데, 앞에서 언급한 “다른 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한 것은 디모데의 존 재의식과 사명의식을 일깨운 말이다. 구약시대에서는 이런 표현이 모 세, 다윗,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과 같은 특정한 인물들에 한하여 사용 되었으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었다. 게다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는 바울의 적 대자들이자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들 곧 에비온 유대인 율법적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대구적 인 표현이다. 그들은 병들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악성 종양”과 같고(딤후 2:17) “듣는 자들을 망하게”(딤후 2:14) 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그러 므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12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 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 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 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

훈”(3절), “교만하고” 무식한 “변론과 언쟁 ...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4절),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9절), “돈을 사랑”(10절)하는 행위를 피하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같은 것들이 정통교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게”(3절) 만들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5절) 만들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며”(9절), 거짓교리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10절) 속에서 살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두 영웅의 결투(암포라, 500-480 BC)  
아카이아(그리스) 연합군의 영웅 아킬레우스(Achilles)와  
트로이군의 영웅 헥토르(Hektor)의 전투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좌측이 승자 아킬레우스, 우측이 패자 헥토르이다.

반면에 바울은 1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공격을 무찌를 무기와 수단들으로써 6가지 덕목을 언급하였다. 이것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인데, 12절에 언급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무기들이자 그 결과로 “영생을 취할” 수단들이다. 이 싸움은 창칼과 방패로 겨루는 육체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물리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악플이나 문자폭탄과 같은 것들로 상대방을 꺼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고, 그분의 마음을 얻고 있고, 그분의 자비를 입고 있고, 그분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로써 삶에서 풍겨나는 의로움과 경건함과 믿음직함과 변치 않음과 굳건함과 신실함과 풍성한 사랑과 끈질긴

인내와 친절하고 부드러운 온유함을 말한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고

하였다.

바울의 이 말씀은 헤라클레스의 삶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는 자신에게 부과된 가엾은 운명과 싸웠고, 싸움을 하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했으며, 옳은 가치와 정의를 위해서 했다. 그로인해서 그는 지혜와 용기와 전쟁의 신인 아테나의 자비와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그가 행한 싸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영적 싸움과 크게 다르지만, 그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신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영웅이 된 자가 없다. 신은 영웅에게 고난을 극복할 방법을 예비했고, 때때로 능력을 덧입혔다. 신은 앞문을 닫으면, 반드시 뒷문을 열어두셨다. 신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하락하지만, 신의 자비를 입은 자는 그 시련으로 인하여 영웅이 된다. 그러므로 헤라클레스는 최후까지 신 앞에서 겸손했다. 그 결과 그의 영혼은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신들의 대전에 올라 영생을 취했으며, 많은 신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헤라까지도 그에게 박수를 보냈고 자신의 딸로 부인을 삼게 하였다. 그래서 그는 ‘헤라의 영광’이 되었다.

####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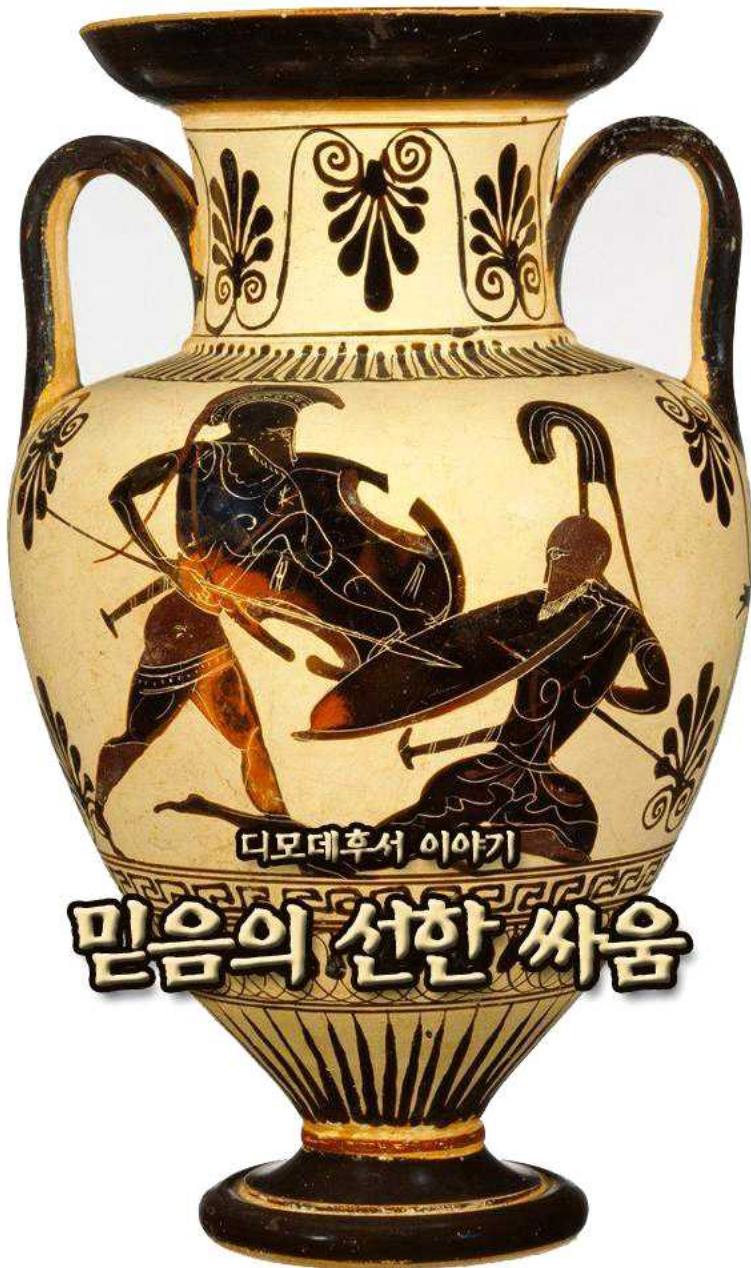
동로마제국 니사살로노스 2세와 콘스탄티노스 8세 때의 주화(976-1025) 전면에 복음서를 들고 계신 예수님의 상체를 십자가 후광과 함께 새겼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 EMMA NOVH / IC - XC) 라고 썼다. 뒷면에는 상하 장식 사이에 네 줄로 “예수 그리스도 왕중의 왕” (+ IHVSUS / XRISTYS / BASILEV / BASILE)이라고 썼다. 예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신 후 영생을 취하신 승리자이시요 주권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다(담전 6:12, 15).

성령님과 늘 동행하셨던 예수님은 영웅적 삶을 사셨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된 것을 볼 때,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비롯한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서 뿐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하는 적대자들 앞에서조차 “선한 증언”(good confession)을 하셨다고 말한다. 이 “선한 증언”은 입으로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뤄진 것들이다. 그리고 이 “선한 증언”의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헤라클레스에게서 보듯이, (헤라클레스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지혜와 용기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앞에서 뿐 아니라, 자신을 그토록 괴롭힌 증오의 여신 헤라 앞에서까지도 선한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제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신들뿐 아니라, 헤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상급을 얻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천군천사들뿐 아니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로부터도 인정을 받으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뿐 아니라,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었다(15절). 그러므로 바

울은 디모데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1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라”(14절)고 권하시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였다.

17-21절까지는 앞서 행한 말씀 곧 “믿음의 선한 싸움”에 관한 말씀의 반복이자 강조이며 결론이다.

[17]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20]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이야기

믿음의 선한 싸움



## 1세기 교회질서20: 복음을 위한 고난(1)(딤후 1:1-10)

##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



외조모 로이스(Lois)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디모데  
에드워드 번 존스 경(Sir Edward Coley Burne-Jones)의 작품(1872년, 옥스포드대학교 Christ Church).

유대인들의 신앙고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자자손손 대대로 자기 민족과 함께 하셨다는 신앙고백이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먼저 있었다고 말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이 3대에 걸쳐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를 잇는 믿음은 가정에서의 자녀신앙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로

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다. 오늘날까지 그녀들이 가정에서의 자녀 신앙교육의 훌륭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는 까닭이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유대인 여성들이었다. 그들이 바울을 처음 만난 것은 40년대 후반기에 이뤄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여행 때였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부녀로서 기도회 시간마다 루가오니아 지역 루스드라의 유대교 회당에 출입하였을 것이다. 루스드라는 오늘날 ‘하툰사라이’라 불리는 터키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로써 대중교통수단이 전무할 정도로 낙후된 곳이다. 그러나 바울 당대에는 지금과는 달리 소아시아에 세워진 리디아왕국의 수도 사르디스(사데)에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Susa, Elam)로 이어지는 대로가 인근에 있었다. 또 이곳은 반자치(semiautonomy)가 허용된 로마시민들의 정착지였다. 따라서 루스드라는 자체 주화들을 발행할 수 있었고, 발굴된 주후 1-2세기의 주화들에는 “율리우스의 정착지” 또는 “로마시민의 정착지”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과 더베가 포함된 루가오니아와 안디옥이 포함된 비시디아 지역 전체가 주후 1-2세기경에 로마시민들, 특히 로마군단에서

제대한 군인들의 정착지였다.

비시디아와 루가오니아 지역에 거주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노예들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주전 63년 폼페이아가 이끄는 로마군단에 의해서 유럽과 이곳 아나톨리아 땅으로 끌려왔다. 꽤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 및 이탈리아에까지 고루 분산되었고, 점차 동유럽과 스페인이 포함된 서유럽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유대인들의 유럽지역 분산은 근동이나 아랍과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분산에 비해서 오히려 늦은 시기에 이뤄졌다.

### “거짓이 없는 믿음”



로마 유니케(Eunice)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디모데  
영국 캔버리지 곤빌-카이우스(Gonville & Caius) 대학 채플 모자이크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주전 722년, 605년, 597년, 586년에 각각 지금의 이라크, 이란지역으로 끌려갔고, 주전 312년에 프톨레미라구스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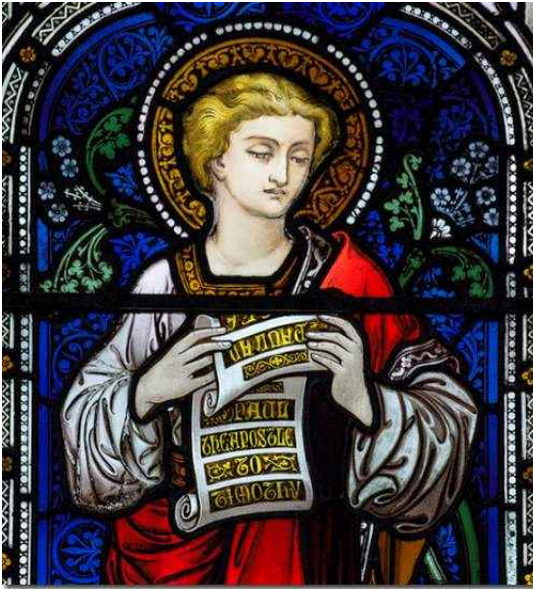
바울시대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 모든 나라들에 흩어져 살았고, 기도회 장소인 유대교 회당이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곳에는 반드시 조직되어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는 바로 이들 유대교 회당을 공략하는 것에서 출발되었다. 이 같은 선교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유대교 회당 기도회에 유대인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헬라인들 특히 유력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그리스도교가 구약성경의 예언 성취와 유대인들의 희망 성취와 깊이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전도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교 복음을 수용하기 힘든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반발심이 뜨거웠고, 헬라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감춰두셨던 비밀(신비)이 드러났기 때문에 뜨거웠다. 이 반응의 결과는 상당수의 헬라인 ‘하나님 경외자’(유대교 절반 개종자)들에게 자기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수용하여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교인들을 잃게 된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에 대한 증오와 박해로 발전되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할 이단의 괴수로 여겨졌을 것이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받아드린 몇 안 되는 유대인들이었다. 로이스의 딸이자 디모테의 모친 유니게의 남편은 헬라인이었다. 그가 유대교 회당기도회에 출입한 ‘하나님 경외자’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가 이 당시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지 않다. 분명한 것은 단 한 가지 로이스와 유니게가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여행 때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는 점뿐이다. 바울은 이곳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기절했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여 바울을 성문 밖에 내다버렸다. 돌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바울을 극진히 간호하고 돌본 성도들이 로이스와 유니게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을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해 볼 때, 그때의 일로 바울과 디모테 가족은 각별한 사이가 되었을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집에서 보호를 받는 동안 그들은 어린 디모테를 장차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될 재목으로 눈여겨보았을 것이다.

####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테(성 마리아의 주교성당 스테인드글라스, 1871년경,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 디모테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섬겼고, 97경에 아르테미스 숭배자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

또 로이스와 유니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많은 시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교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날로 커져갔을 것이다. 디모테의 부친이 그리스도교에 개종을 했었는지, 혹은 그 당시 생존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그들이 사랑하는 어린 디모테를 바울과 함께 사지로 가게 하여 주의 일꾼이 되게 한만큼 그들은 매우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울이 몇 번이나 이곳 루스드라 교회를 방문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로이스와 유니게의 집은 드로아 가보의 집처럼, 빌립보 루디아의 집처럼, 고린도 그리스보의 집처럼 바울 일행이 지친 몸을 누이고 씻을 물과 먹을 양식을 공급받았던 곳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정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된 것임을 밝혔고(1절), 디모테를 일컬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다(2절). 디모테는 적대자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디모테에게 바울은 디모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가 다시 불일 듯”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랐다(6절). 따라서 바울은 7-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였다. 여기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또는 나처럼 고난에 동참하라는 뜻이다(join with me in suffering for the gospel). 그러나 그 고난은 값진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는 고난에 동참하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또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라는 것이다. 그 이유를 바울은 9-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둘째, 거룩한 부름으로 불러주신 분이시다. 이 부르심은 첫째, 우리의 행실을 보고 결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며, 둘째,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그 사실이 셋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밝히 드러났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폐하셨으며,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또는 나처럼 고난에 동참해야하는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 1세기 교회질서21: 복음을 위한 고난(2)(딤후 1:11-14)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모친 유니게(Eunice)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디모데  
삼위일체 교회 스테인드글라스(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자기처럼 고난에 동참하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고난에 동참하라고 명하였다. 그 이유를 바울은 9-1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지 않으시고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당신의 계획과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폐하셨으며,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바울은 11-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 직분을 주셨는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 하였다.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는 말씀에 연결된다.

12절에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이라고 한 것은 첫째, 말할 수 없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 이김을 주셨고” (고전 15:57), 세상을 이기는 믿음(요일 5:4)의 끈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은 것은 자신이 믿어왔던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누구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롬 8:39)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이라고 한 것은 둘째,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전파의 직무를 자기가 완수하는 “그 날까지 그분이 능

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의 이 말씀은 그리스신화를 잘 알고 있던 당대의 헬라인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이해되었을 것이다. 그리스 로마인들은 인간에게 귀감이 되는 영웅들을 묘사할 때마다 그들 곁에 조력자인 지혜와 용기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하곤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헤라클레스였다. 헤라클레스는 헤라로부터 부과된 숙명적인 과업들을 수행하느라 엄청난 고난을 감내했는데, 늘 아테나가 그의 곁에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로이스로이스(Lois)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디모데  
성 파리아 교구 교회 스테인드글라스(Prittlewell, 영국).

이 점에 있어서는 이아손과 페르세우스와 같은 다른 영웅들도 마찬가지였다. 아테나는 그들에게 능력으로 덧입혔고, 그들을 충성되게 여겼으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느라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들 곁에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아테나는 헤라클레스가 조국 테베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의 곁에서 함께 싸웠고, 스팀팔로스 숲의 새를 쫓을 때는 청둥으로 된 딱따기를 만들어주었으며, 케르베로스를 사로잡고자할 때는 음부로 가는 길을 안내하였다. 또 페르세우스에게는 방패와 칼을 주었으며, 벨레로폰에게는 황금고삐를 주어 페가수스를 타고 괴물 키

마이라를 물리치게 하였다.

반면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같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어도 사람들의 생각에만 존재하는 가짜 신들을 결코 의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자신들을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신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13-14절에서 자신이 디모데에게 전하여 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기를 원하였는데, 두 가지 수단을 언급하였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란 수단으로써 하라고 명하였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에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주님께 배워서 가르치고 전한 복음과 전통을 말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대항하여 싸운 유대인 율법적 영지주의 예비온파가 전한 “다른 예수” 또는 “다른 복음”과 아주 상반된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였고, 이것을 “지키라”고 명하였다.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자기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라고 명한바 있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받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울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곧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올바른 복음을 표준삼아 가르치라고 명하였다. 이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은 1세기 그리스도교의 복음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기록으로 전한 신약성경을 표준삼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레니 루이스와 아메니 유네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디모데(성 마리아의 교회, 영국 Brighton)  
빛 정도에 불과하였다. 고대 근동세계와

고대 근동의 종교와 신화들은 유대교와 구약성경이라는 한층 높은 차원의 영성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 몽학교사였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대교와 구약성경 및 고대 그리스 로마 종교들과 신화들은 그리스도교와 신약성경이라는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 몽학교사였다고 볼 수 있다(갈 3:24). 그것은 마치 한국 그리스도교가 무교와 도교와 불교와 유교라는 밀거름이 풍성한 토양위에서 성장한 것과 같다. 그리스도교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종교들은 그리스도교 성장을 위한 밀거름 곧 질소인산 칼리가 섞인 혼합비료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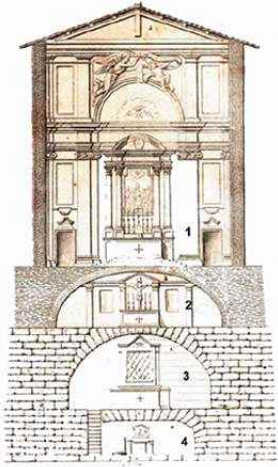
그리스도교 이전 종교들이나 신화들은 그 계시의 빛이 별빛과 달

신화들의 계시의 빛이 별빛에 불과했다면, 유대교의 계시의 빛은 달빛 정도였다. 달빛계시는 별빛계시보다 한층 뛰어나기 때문에 달빛계시아래 있던 사람들에게는 별빛계시가 필요 없다. 또 햇빛계시는 달빛계시보다 한층 더 뛰어나기 때문에 햇빛계시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달빛계시가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 복음을 받아드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전 종교들이나 신화들이 필요치 않았다. 그것은 마치 최병헌(1858-1927) 목사가 <성산유람기>(聖山遊覽記)에서 지적하였듯이, 초식을 하던 사람이 육식을 만나 후에는 더 이상 초식을 찾지 않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름지고 맛난 음식(膏糧玉食)인 신약성경에 기초한 그리스도교를 만나지 못하여 거친 음식인 구약성경에 기초한 유대교를 믿었고, 풀죽(疏食菜粥)인 유교 불교 도교 무교 및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딤후 4:7) 믿었을 뿐이다.

이것은 토착화나 혼합화하고는 다르다. 한국의 종교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믿음에는 무용한 것과 같다. 고대 근동의 종교들과 신화들이 유대교 발전에 얼마간 영향을 주었지만 유대교 신앙에는 무용한 것과 같다. 같은 점에서 그리스 로마의 종교들이나 신화들이 그리스도교 복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전혀 가치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에 얼마간 영향을 끼쳤을 타종교문화와 신화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영성과 믿음과 능력을 확인하고 그들의 순수성과 본래성과 능력을 회복하자는데 있다.

## 1세기 교회질서22: 복음을 위한 고난(3)(딤후 1:15-18)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



1. Church of San Giuseppe dei Falegnami
2. Cappella del Santissimo Crocifisso
3. Carcer
4. Tullianum



마메르티노 감옥(Mamertinum) 위의 사진은 조각 그림 4번에 해당되는 '툴리아눔'이라 불리는 지하 감옥으로서 베드로와 바울이 갇혔던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3번 '카르케르'는 '감옥'이란 뜻이다. 2번은 '거룩한'

십자가 예배당'이고, 1번은 이 감옥 위에 1540년에 지어진 '산 주세페 데이 포를레그나미' 성당이다. 우리 말로 '목수들의 성 요셉'이란 뜻이다.

문이 나돌았고, 이에 네로는 자신에게 집중된 화살을 피할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세워 대학살을 감행하였다.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사나운 짐승에 물려 죽었다. 바로 이 시기에 바울은 로마와는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소아시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우두머리로 지목받았고, 드로아가보의 집에서 갑자기 체포되어 로마의 지하 감방(Mamertine Prison)에 갇히게 되었으며, 네로가 자살하기 일 년 전쯤인 67년경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는 말씀은 드로아에서 긴급히 체포될 당시의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바울은 58년 초여름부터 60년 초가을까지 2년 조금 넘게 가이사랴에 주둔한 유대총독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이감되어 거기서도 62년 가을까지 대략 2년 정도 셋집에 연금되어 있다가 풀려난바가 있다.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다시 체포된 때는 64년 초가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마에서 풀려나 활동을 시작한 지 만 2년 만에 또다시 로마로 끌려가게 된 사건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고 하였다.

주후 64년 7월 18일에 로마의 대경기장 상가에서 발화된 불이 때마침 불어온 바람을 타고 크게 번져 9일 동안 전체 로마 시 가운데 3분의 1이상을 잿더미로 만든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었다. 항간에 는 네로가 방화범이란 소

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때,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줄행랑을 쳤던 것처럼, 바울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될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시키지 않고 자신들이 먼저 줄행랑을 쳤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때의 기억이 생생했던 바울은 15절에서 “디모데 너도 알다시피 피겔로(Phygelus)와 헤르모게네(Hermogenes)를 비롯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다 나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고 서운함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바티칸 발행 순교자 베드로와 바울 기념우표(1967년)

흥미로운 것은 ‘오네시보로’ (Onesiphoros)가 문자적으로 ‘유익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인 반면, ‘부겔로’ (Phygelus)는 ‘도망자’ (Fugitive)를 연상시키는 이름이다. ‘도망하다’는 뜻을 갖는 헬라이어 동사 ‘퓨고’ (pheugo)와 어근이 갖기 때문이다. 또 ‘헤르모

게네’ (Hermogenes)는 ‘헤르메스한테서 태어난 자’란 뜻을 갖는다.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으로써 날개 달린 모자(Petatos)를 쓰고 있고, 날개 달린 샌들(Talaria)을 신고 있어서 새처럼 잽싸게 날아다닐 수 있다. 이름대로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왔지만, 이름대로 부겔로와 헤르모게네는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을 버리고 자기들만 잽싸게 도망하였다.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두 번, 디모데후서에서만 나타나 있다(딤후 1:16, 4:19). 외경 <바울행전>을 보면, 오네시보로가 이고니온의 주민으로 언급되어 있고, 이고니온으로 오고 있는 바울을 마중 나간 이야기가 나온다. 이때 오네시보로가 본 바울이 “작은 체구, 맞닿은 양미간, 코는 조금 길고, 대머리에 다리는 휘었고, 단단한 체격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 ‘마메르티노’ (Mamertinum)에서 디모데후서를 써서 에베소교회의 감독 디모데에게 보낼 당시에는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족이 에베소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드로아 가보(Carpus at Troas)의 집에서 체포되었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

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한 말씀 때문이다. 바울은 갑자기 체포되었기 때문에 소지품을 미처 챙기지 못하였고, 그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아직 항해가 가능한 64년 초가을이나 65년경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로마감옥에서 쓴 디모데후서가 디모데에게 전달된 시기는 빨라도 이듬해 65년 여름이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겨울항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디모데가 바울의 소지품을 챙겨 로마에 갇힌 바울을 찾았을 때쯤은 이미 바울이 갇힌 지 6개월 이상 1년쯤 지난 시점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드로아와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를 거점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오고갔다. 드로아에는 누가의 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가보의 집이 있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은 바울이 가보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말해준다. 빌립보에서는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오가며 자주색 옷감장사를 하는 루디아의 집에 머무르곤 하였다.

####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비잔틴 황제 바질2세(AD 976-1025)에 의해 편찬된 축일표 (예배서시)에 실린 삽화. 오른쪽이 오네시보로이다. 그 옆이 케사르, 에비브로디도, 두기오, 게나, 아볼로, 소스테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이다. 고한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오네시보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잔인하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네시보로는 다르다넬스해협 인근 드로아에서 야생마에게 묶여 사망할 때까지 난폭하게 끌려 다녔다.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로 끌려간 곳에서 오네시보로도 체포되어 장렬하게 순교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15-18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보로 개인에게 문안을 보내지 않고 오네시보로 집에 보내고 있고,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원하였다. 또 바울은 오네시보로와 관련해서 과거시제를 사용하여 “그는 나에게 용기를 복돋아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로마에 와서는 나를 찾느라고 굉장히 애쓴 끝에 나를 만났다.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였는지 너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고 하였다.

바울이 언급한 “오네시보로의 집” 이 오네시보로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그 유족들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오네시보로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헌신과

희생 때문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중요한 것은 오네시보로가 소아시아 교회들의 부겔로와 헤르모게네 및 기타 그리스도인들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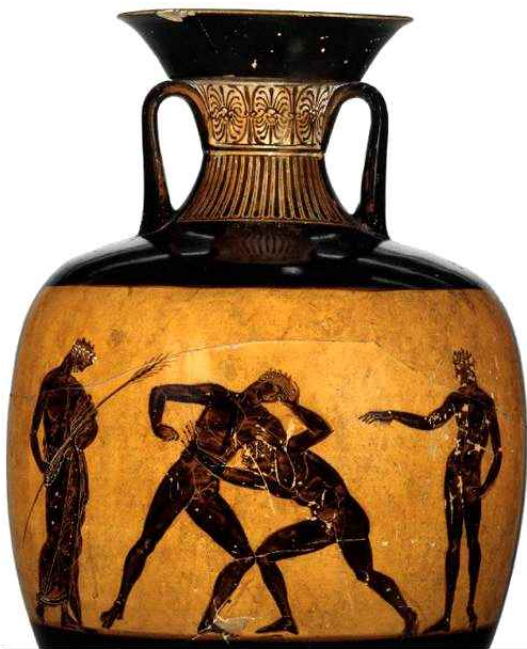
첫째, 오네시보로는 바울일행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도 매우 헌신적이었지만, 특히 바울이 갑자기 체포되어 끌려갔을 때, 금전적 손실이나 여행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찾아 나섰고 로마에까지 갔다.

둘째, 16절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오네시보로가 남의 시선이나 비난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죄수의 친구란 점을 창피스럽게 생각하거나 바울을 가까이하다가 자신도 혹시 공범으로 몰려 체포되지 않을까하여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오히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어디로 끌려갔는지를 알아내려고 최선을 다했고, 로마로 끌려간 것을 알고서는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 먼 로마에까지 달려갔으며, 또 바울이 어디에 수감됐는지를 알아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기어코 바울이 수감된 곳을 알아내어 자주 면회하여 격려하였으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주었다.

셋째, 오네시보로의 헌신은 그의 가족의 희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핍을 베풀어주실 것을 빌었고, 주의 재림의 날에 주의 궁핍을 입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이다.

## 1세기 교회질서23: 복음을 위한 고난(4)(딤후 2:1-13)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중합격투기 시합(pankratōn, 암포라, 365-360 BC, Kithos 작품, 영국박물관). 왼쪽의 선수가 상대방의 몸을 잡아서 안고 편지를 날리려하고 있고, 오른쪽 선수는 상대방의 이마를 밀치며 복부를 강타하고 있다. 물리보가지를 손에 든 왼쪽 사람은 심판관이고, 오른쪽 사람은 훈련사이거나 복전승으로 다음 경기를 치를 사람으로 추정된다. 이 암포라는 판아테나이크(범아테나) 경기 우승자에게 준 상품이었다.

바울은 2장 1절에서 “강하라”고 권면하였다 이 말에 쓰인 헬라어는 ‘엔뒤나모우’ (endynamou)로써 ‘~안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엔’ (en)과 ‘강하게 하다’ 또는 ‘능력을 불어넣다’는 뜻을 가진 동사 ‘뒤나모오’ (dynamō)의 합성어이다. ‘엔뒤나모우’는 2인칭 수동태 명령형이기 때문에 ‘너는 강하게 되어져라’는 의미가 된다. 바울이 디모테에게 권한 강함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디모테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강함이나 타고난 강함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어떤 강함이나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강함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 강함은 어디에서 오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첫째, 이 강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1절) 만들어진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지혜와 용기와 용맹의 여신 아테나의 격려와 위로와 능력의 덧입힘을 인해서 곧 아테나의 은혜 가운데서 헤라클레스는 타고난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12가지 과업들을 성공리에 완수했고 또 타고난 불운과 역경을 딛고 일어난 불세출의 영웅이 될 수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최고신의 아들이자 타고난 괴력의 소유자였으나 그에게 닥친 불운한 운명, 곧 그에게 주어진 12가지 숙명적 과업들은 그의 괴력을 압도하는 것들이었다. 최고신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괴력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헤라클레스에게 주어진 과업들은 헤라클레스가 자신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들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종국에는 모든 신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가 지혜와 용기와 용맹의 여신 아테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운명의 십자가들을 져냈기 때문이다. 신들에 대한 겸손한 믿음과 불굴의 인내가 최후에는 그에게 신들의 대전에 오르는 영광을 보상으로 받게 했다는 점이다.

누가는 예수님께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항상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머물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다고 말해준다. 그분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가 감당키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해준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승리자(Ic Xc Nika)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종합격투기 시합(pankratíon, 암포라, 500 BC, Attic, Kleophrades 작품, The Met Fifth Avenue, New York, NY). 판아테나이온 제전은 566 BC부터 AD 3세기 까지 여신 아테나에게 바친 범아테나 경기로서 4년마다 개최되었다. 종합격투기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와 음악 경연이 열렸다. 왼쪽 선수가 상대방의 다리를 붙잡고 밀어서 넘어뜨리려하고 있다. 오른쪽 사람은 심판관이다. 이 암포라는 판아테나이온 경기 우승자에게 주어진 상품이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인 오뒤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자 트로이 목마의 고안자였다. 트로이전투를 승리로 장식한 영웅 오뒤세우스는, 그러나, 고향에 당도하기까지 운명적인 유랑 곧 20년간 파란만장한 방랑자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뒤세우스는 아테나의 충애를 받던 영웅 중의 한명이었다. 아테나는 그에게 지혜로운 호의를 베푸는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20년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절제된 도움을 준다. 여기서 ‘절제된 도움’이란 그리스 도교의 신학으로 말하자면 성령님의 영감에 해당된다. 영감은 마치 고삐와 같아서 성령님이 고삐를 잡고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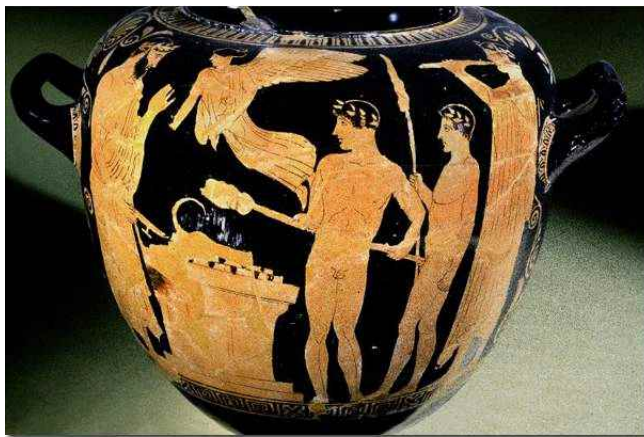
를 본향인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테나가 영웅들에게 능력을 덧입히기도 하였다. 헤라클레스에게는 스틱팔로스 숲의 새를 쫓을 수 있도록 청동으로 된 딱따기를 만들어주었고, 페르세우스에게는 메두사의 목을 벨 수 있도록 칼과 방패를

주었으며, 벨레로폰에게는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를 잡아타고 괴물 키마이라를 물리칠 수 있도록 황금고삐를 주었다. 이처럼 그리스 신화에서는 영웅들이 신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그 은혜 가운데서 영웅이 될 수 있었다. 조상대대로 수백 년 이어져온 노예의 사슬을 끊어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역경의 길을 떠난 히브리인들을 인도한 것은 구름기둥이었다. 여기서 여신 아테나로 의인화된 지혜나 하나님의 쉼키나였던 구름기둥은 모두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또 성령님의 인도 위로 격려 능력 덧입힘 속에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고 했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다. 또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였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다.

####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승자들의 감사제사(stamnos, 액체용기, 450-430BC, Attica, Polygnotos 작품, 영국박물관). 제물이 불타는 제단 왼쪽에 사제가 헌주잔(kylix)을 들고 있고, 걸개관을 쓴 우승자들이 막대에 고기를 꿰어 들고 있으며, 악사가 오른쪽에서 피리(aulos)를 불고 있고, 우승자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준 여신 승리가 그들의 감사제사를 함양하는 모습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다는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어린 다윗이 물매와 돌 다섯 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상 17:45) 나아갔기 때문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 3:6) “일어서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강함에 관한 것이었다. 바울은 이밖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질 수 있는 이유들을 10-12절에서 덧붙이고 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10절).

셋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 영원한 영광”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10절).

넷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11절).

다섯째, 만주의 주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 이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12절).

그리고 여기서 강함은 4절의 “병사로 복무하는 자,” 5절의 “경기하는 자,” 6절의 “수고하는 농부,” 8절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9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한 바울에 연결된다. 병사나 경기하는 자나 농부나 예수 그리스도님이나 사도 바울도 모두 고된 훈련과 갖은 역경과 수고를 통해서 단련되고 숙련되어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었거나 된다는 뜻이다(4-6절).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를 금치 않았다.

첫째, 주께 받아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다(2절).

둘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는 것이었다(3절).

셋째, 주께 받아서 전한 복음의 내용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범사에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었다(7절).

넷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는 것이었다(8절). 그 끝이 “구원” 과 “영원한 영광” 과 영생과 “왕 노릇” 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0-12절). 또 주님은 믿으실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3절).

## 1세기 교회질서24: 복음을 위한 고난(5)(답후 2:14-19)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몬레알레 대성당(Monreale cathedral, 시칠리아)의 모자이크  
(12세기경). 바울이 실루아노와 디모데에게 편지들을 건네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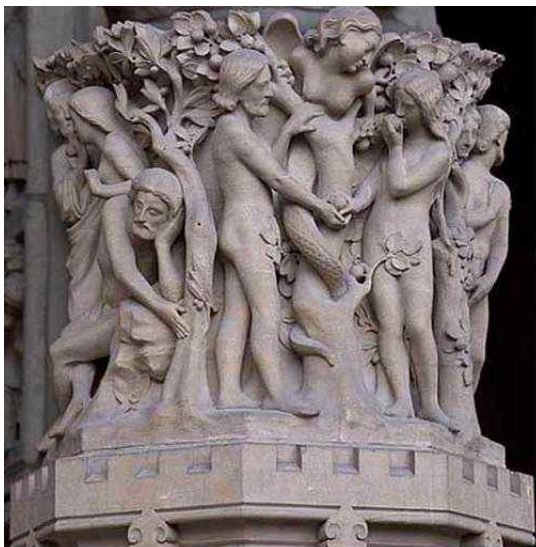
14절 전반,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는 그들에게 디모데 후서 2장 2-13절에서 언급한 것들을 늘 가르쳐 그들이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 내용은 네 가지로써 첫째, 주께 받아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는 것(2절); 둘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3절); 셋째, 주께 받아서 전한 복음의 내용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범사에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7절); 넷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8절), 그 끝이 “구원”과 “영원한 영광”과 영생과 “왕 노릇”이기 때문이라는 것(10-12절), 또 주님은 믿으실만한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13절).

14절 후반,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는 사소한 일에 말로 논쟁을 일으켜 서로 감정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전혀 유익하지 못한 언쟁을 하지 말도록 권면하라는 말씀이다.

우리 사회가 정치사회적 이슈들이나 윤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그 입장이나 견해가 대체로 반반으로 나뉘어져있다. 양진영 모두 사실(fact)에 근거하기보다는 자기편 진영논리에 빠진 경우가 많아서 토론이나 다툼이 사실상 무익하다. 따라서 교우들끼리의 사소한 말다툼은 입장이나 견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경멸하거나 심지어 감정싸움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

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교우들끼리 자기 견해나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수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의 절반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드리고 또 그 같은 생각이나 판단이, 싫겠지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는 것, 사회적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피차 상대방의 견해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릴수록 나의 설득력은 작아지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할수록 나의 설득력은 더 커진다. 설득은 상호신뢰에서 만들어지지 지식의 유무나 사실여부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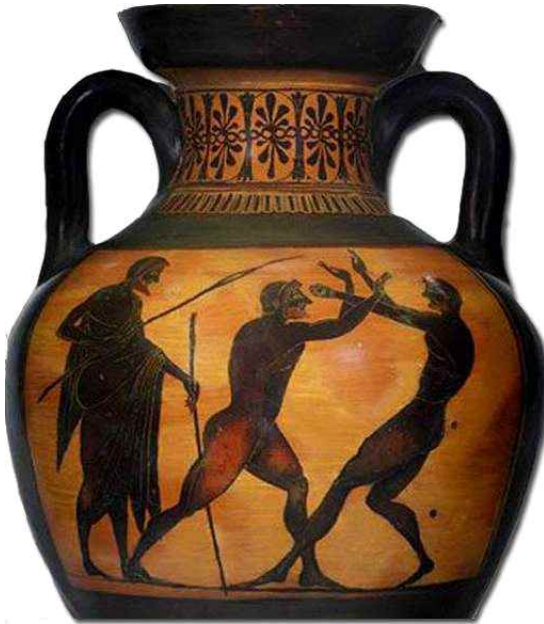


노르망 대성당 입구의 기둥조각도(13세기, 파리)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서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와 지식의 상징으로 두와과나뭇과 뱀이 여성으로 의인화되었다.

15절 전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에서 “진리의 말씀”은 바울이 주님께 배워서 전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말한다. 아직 신약성경이 없었던 때인 만큼 “진리의 말씀”은 구약성경에 대한 해석을 뜻한다. 구약성경은, 유대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실천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구약성경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하는 상황은 첫째, 유대교적 그리스도교를 주장하는 에비온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라는 것이고; 둘째, 주님께 배워서 전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이고 기준이며 기초이고 잣대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며; 셋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구약성경을 유대교인들처럼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한 것이 아니고, 장차올 더 좋은 것들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해석한 것임을 알라는 것이고; 넷째, 비록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는 있지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전혀 다른 믿음체계임을 알라는 것이며; 다섯째, 그러므로 에비온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는 단일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고, 유대민족만의 종교가 아니라 열방민족의 종교이다. 그리스도교 복음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성인이나 유아나 차별이 없고, 또 토라율법의 준수나 할례를 받음으로써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이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뤄진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한 것은 에비온파처럼 강하게 들이대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사도의 가르침에 굳게 서라고 권면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다(15절).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것이다.”(16절)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교 경전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자들이다(17).

####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종합격투기 시합(pankration, 암포라, 6세기초 BC)  
선수들이 손과 발 모두를 써서 상대방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는  
종합격투기이다. 왼쪽 사람은 훈련사이거나 심판관이다.  
이 암포라는 우승자에게 주어진 상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같은 자들에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하였다(17절). 후메내오(Hymenaeus)는 결혼의 신 ‘히멘’에서 따온 이름이고, 빌레도(Philetus)는 ‘사랑받는’ 또는 ‘사랑할 만한’이란 뜻이다. 이들은 유대교 율법적 영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였다. 또 자신들이 유일하게 신약성경으로 인정한 아람어 마태복음 27장 52-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를 근거로 미래부활을 부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18-19절에서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

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고 하였다.

유대교는 교리종교가 아니라, 실천종교이기 때문에 신앙고백서가 없다. 가장 널리 수용되는 유대교 신앙은 중세시대 랍비 마이모니데스가 정리한 열세 개의 믿음의 원리들이다. 1)하나님은 존재하신다. 2)하나님은 한분이시고 유일하시다. 3)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다. 4)하나님은 영원하시다. 5)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직통으로 연결되고 다른 누구에게도 연결되지 않는다. 이 5번은 삼위일체신앙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다. 6)예언자들의 말씀은 진실하다. 7)모세의 예언들은 진실하다. 8)성문 토라 즉 모세오경과 구전 토라 즉 탈무드와 기타 문서들에 포함된 율법들이 모세에게 주어졌다. 이 8번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나 가톨릭교와 다른 점은 구전과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다. 참다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적 그리스도교를 버리고, 신약성경에 기초를 뒀야 한다. 9)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 이외에 다른 토라는 없다. 이는 또한 신약성경을 부정하기 위한 말이다. 10)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아신다. 11)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보상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벌하신다. 12)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이 12번은 2천 년 전에 이미 오신 메시아를 부정하는 것이다. 13)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부활신앙은 헬라시대에 추가된 믿음이다. 죽은 자의 부활은 메시아사상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언제 누가 부활할지에 대해서는 유대교인들의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 1세기 교회질서25: 복음을 위한 고난(6)(딤후 2:20-21)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도리아에서 발굴된 1세기경의 황금 컵(golden scyphos)

골동품 감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그 물건이 진품이냐는 것이고, 둘째는 그 물건이 명품이냐는 것이다. 진품이라도 명품이 아니면 높은 감정가를 받을 수 없다. 반면에 그 물건이 진품이면서 또한 명품이면 고가의 감정가를 받을 수 있다. ‘TV쇼 진품명품’에서 2004년에 ‘고려역상감청자장구’ (高麗易象嵌靑瓷杖鼓)가 12억 원의 감정가를 받았고, 2006년 1월 15일에는 한석봉 선생의 서첩이 7억 원의 감정가를 받은바 있다. 또

2005년 6월 25일에는 국보급 고려청자가 2억 원의 감정가를 받았다.

신학적으로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기본교리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진품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진품이 된 자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곧바로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TV쇼 진품명품’에서와 같은 장면들이 마지막 심판 때, 혹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으로 확인할 장면들이다. 사람들은 외적인 현상들, 곧 명예와 권세와 학력과 재력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은 겉으로 들어난 현상들을 보고 감정가액을 매기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보신다. 다음은 성경적 진품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이다.

첫째, 모든 인간은 다 진품으로 세상에 나온다. 진품이 아닌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을 보아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딤후 4:4)는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 “그러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

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실린 이 말씀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 인간을 토기로 비유하고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그릇은 세상에 없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이 빚어 만든 진품들이다. 가짜가 아니다.

둘째, 모든 인간은 죄에 묻혀서 빛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다. 이 가운데는 깨진 토기 그릇, 녹슨 쇠붙이, 빛바랜 금은 장식과 같이 대부분 처음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깨지고 녹슨 채 방치되었던 자들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발견되어 진품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전혀 쓸모가 없던 자들이었다.

###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주후 1세기경의 은접(AD 15-20, Silver scyphos, 루브르)  
예수님시대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개신 장면이 복조된  
이 접은 폼페이아가 소재한 보스콘레알레 지역에서 발굴  
되었다. 사두이론 전차를 탄 티베리우스가 오른손에 열계수  
가지로 왼손에 독수리를 장식한 홀을 들고 있고, 뒤에서 황실  
(stabe) 노예가 티베리우스 12리터 열계관을 씌우고 있다.

하나님은 제조자로서 자신이 만든 그릇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깨지고 녹슨 채 묻혀 버린 그릇들을 찾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나 그것도 마땅치 않아서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셨다(히 1:1-2).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일하셨고, 신약시대의 종들이 구약시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그릇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셋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가 파송한 전도자들에게 발굴되어 옛 모습을 회복한 사람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게인 교회를 채우는 골동품들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때 죄로 인해서 깨지고 녹슬고 버려졌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발굴되어 옛 모습을 회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럽혀진 곳이 씻기고, 깨진 곳이 수리되고, 녹슬었던 곳이 닦여 빛을 발하는 진품들이다.

넷째, 진품으로 확인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명품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감정가가 수 억 원에 이르는 명품이 있는가 하면, 수 만원에 불과한 골

동품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명품인 것은 아니다. 교회 안에 진열된 그리스도인 골동품들 가운데 사탄이 만들어낸 모조품들이 적지 아니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된 진품들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명품인 것은 아니다. 또 진품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종류의 같은 그릇들은 아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고 하였다. 또 로마서 9장 20-21절에서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고 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도 45장 9-10절에서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네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마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의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고 하였다.

###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주후 1세기경의 접과 국자(terracotta scyph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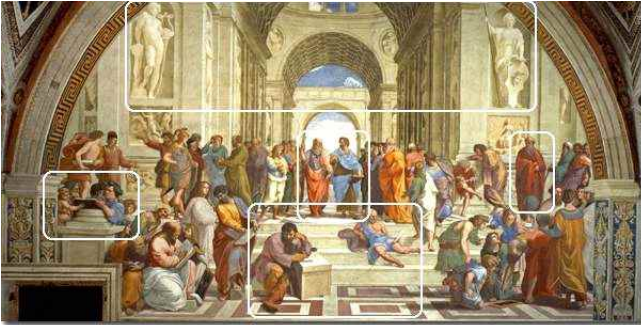
이 같은 말씀들로 볼 때, 각 사람이 금 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혹은 질그릇으로 태어난 것은 숙명처럼 어찌해볼 수 없는 단힌 부분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자기 운명과 숙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어떤 운명과 숙명을 타고 나왔던, 그릇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이는 귀하고 성별된 그릇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느냐,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느냐의 문제는 닫힌 운명과 숙명이 아니라, 열려 있는 노력의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표현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처럼, 비록 우리가 금 그릇, 은그릇이 못되고, 질그릇 혹은 나무 그릇에 불과할지라도,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그 조차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귀하게 쓰이는 명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명품에 관한 감정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세속적 가치기준에 의해서 가치와 명품여부가 결정되지만, 하나님의 가치기준, 그리스도의 복음적 가치기준은 세속적 가치기준과는 전혀 다르다. 최종적인 가치와 명품여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고후 5:10; 계 20:12). 그 때에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마 3:12) 구별할 것이고, 감춰진 것과 숨은 것을 찾아내실 것이다(마 10:26). 그 때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히 4:13; 벧후 3:10).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명품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형편없는 자였든지, 어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전혀 명품 같지 않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명품중의 명품이었다든지 하면서 희비가 교차되기도 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곧 타고난 각자의 그릇이 무엇이든지 간에, 금 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곧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고 하였다.

## 1세기 교회질서26: 복음을 위한 고난(7)(담후 2:22-26)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아테네 학당(1509-10년, 프레스코, 바티칸 미술관)  
미켈란젤로보다 8살 연하인 라파엘로 산치오(1483-1520)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요청으로 교황의 개인 도서관 ‘서명의 방’에 그린 벽화이다. 원근법이 뛰어난 이 ‘아테네 학당’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1508-12년)보다 1년 늦은 1509년에 시작되었다. 상단 네모 속 조각상은 예술의 신 아폴론(독자의 좌측)과 지혜의 신 아테나(우측)이다. 정중앙 네모 속 인물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이고, 좌측 끝 네모 속 인물들은 금욕주의자 제노와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이며, 정중앙 아래 네모 속 인물들은 만물의 변화를 강조한 헤라클레이토스와 세속적 가치를 거부한 경유학과 대조게네스이다. 우측 네모 속 인물은 기독교 신비주의와 유대교 신비주의에 영향을 끼친 신플라톤주의 창시자인 플로티노스이다.

미켈란젤로보다 8살 연하인 라파엘로 산치오(1483-1520, Raffaello Sanzio)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요청으로 교황의 개인 도서관 ‘서명의 방’에 그린 벽화 가운데 ‘아테네 학당’(1509-10년, 바티칸 미술관)이란 프레스코화가 있다. 원근법이 뛰어난 이 ‘아테네 학당’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1508-12년)보다 1년 늦은 1509년에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그림 속에는 54명의 역사적 인물들이 잘 묘사되었는

데, 그리스의 신화에 등장하는 예술의 신 아폴론과 지혜의 신 아테나가 벽면 높은 곳에서 이들을 지긋이 내려다보고 있다. 그들은 이 영웅호걸들에게 능력을 덧입히고 영감을 주며 격려하고 위로한 신들이다. ‘아테네 학당’에 묘사된 인물들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크세노폰, 아리스토텔레스, 헤라클레이토스, 디오게네스, 제노, 에피쿠로스, 플로티노스와 같은 철학자들, 아르키메데스와 유클리드, 프톨레마이오스와 같은 수학자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줄리아노 다 상갈로와 같은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인 차라투스트라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포함되었다.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그의 나이는 27세 무렵이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문예부흥시대의 산물이란 점에서 보면, 그가 인문학이 부활하는 새천년 시대를 내다본 것이 분명해 보인다. 라파엘로가 가톨릭의 성지인 바티칸 궁전의 교황의 개인 도서관, 그것도 ‘서명의 방’ 벽면에 이교의 신들과 이교도들로 가득 메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라파엘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 가톨릭신학과 인문학의 조화, 신중심신학과 인간중심학문의 조화를 말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 그린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물씬 풍기기 때문이다. 이 ‘근원(뿌리)으로부터(Ad Fontes)’ 곧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문예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종교개혁운동이 가능할 수 있었고, 교황과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개인들에게 직접(대사제 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또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 미사만 허용되던 시대에 모국어로 성경을 읽거나 특히 예배 중에 모국어로 읽어 주는 성경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파엘로는 ‘아테네 학당’ (1509-10년, 프레스코, 바티칸 미술관) 정중앙에 플라톤과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묘사하였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논쟁하는 모습이다. 독자의 좌측 대칭치 얼굴을 가진 인물이 플라톤이다. 허리에 대화록 <티마이오스>를 끼고 오른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이데아 세계 곧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참된, 영원한, 빛과 진리의 세계를 암시한다. 라파엘로의 제자 줄리아노 다 상갈로의 얼굴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들고 오른손바닥을 땅으로 향한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이것은 보이는, 땅의, 윤리적인, 현실적인, 현상세계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이로 보건데, 플라톤은 신약과 그리스도교로 상징되고, 귀족과 유대교는 아리스토텔레스로 상징된다.

라파엘로는 ‘아테네 학당’ 정중앙에 플라톤과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묘사하였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논쟁하는 모습이다. 라파엘로는 플라톤의 얼굴을 레오나르도 다 빈치로 그렸다. 플라톤은 대화록 <티마이오스>(Timaios)를 허리에 끼고 오른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이데아 세계 곧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참된, 영원한, 빛의, 진리의 세계를 암시한다. 라파엘로는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얼굴을 자신의 제자 줄리아노 다 상갈로로 그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Nicomachean Ethics)을 들고 오른손바닥을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이는, 땅의, 윤리적인, 현실적인, 현상세계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이로 보건

데, 플라톤은 신약성경과 그리스도교로 상징되고, 귀족성경과 유대교는 아리스토텔레스로 상징된다.

또 라파엘로는 ‘아테네 학당’ 정중앙 하단에 만물의 변화를 강조한 헤라클레이토스와 세속적 가치를 거부한 견유학자 디오게네스를 그렸다. 그리고 독자의 좌측에 금욕주의자 체노와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를, 우측에 기독교 신비주의와 유대교 신비주의에 영향을 끼친 신플라톤주의 창시자인 플로티노스를 그렸다.

라파엘로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얼굴을 미켈란젤로로 그렸다. 사색에 잠긴 듯이 묘사된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만물의 변화와 진화를 강조한 철학자였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영원성과 불변성을 논했다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유전한다.”거나 “우리는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는 말로 변화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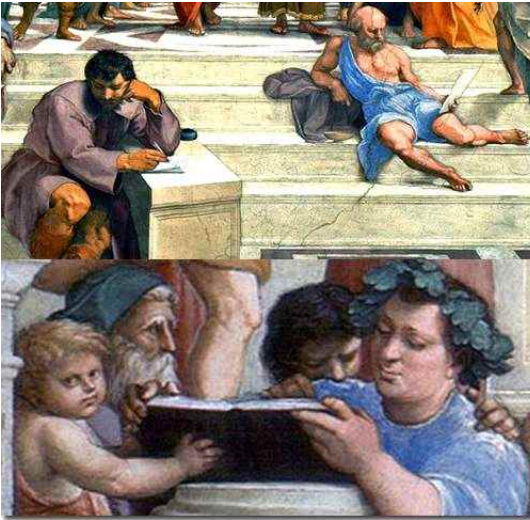
또 라파엘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발아래에 세속적 가치를 거부한 반라의 고린도인 디오게네스를 그렸다. 그의 생활신조는 욕망을 작게 갖는 것(아스케시스),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아나이데이아), 자족하는 것(아우타르케이아)이었다. 온갖 재물과 명예 같은 것들은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여 쾌락을 멀리하고 간소한 생활을 추구했던 것이다. 디오게네스는 통속에서 개처럼 살면서도 일광욕을 즐겼고, 밝은 낮에도 의인을 찾는다면 등불을 들고 다닌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행위들은 모두 플라톤의 동굴처럼 고린도사회가 어둠과 무지에 갇혀 있음을 질책한 것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그가 약관의 나이에 페르시아원정군 대장이 된 알렉산더에게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서라고 말한 것을 폭력과 전쟁으로 세상을 어둡게 하지 말라는 충고였다고 볼 수 있다.

#### “하나님께 사로잡힌바 되어”

라파엘로는 예술의 신 아폴론 아래쪽에 스토아철학의 창시자인 제노와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를 그렸다. 제노는 이성을 중시하여 자기부정의 금욕주의를 통한 초연한 경지(아파테이아)를 추구하였고, 에피쿠로스는 근심과 고통에서 해방된 쾌락(아타락시아)을 추구하였다.

스토아철학은 자연을 세계의 정신으로 보는 범신론이자, 제우스까지도 운명에 지배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당대의 사람들은 예언을 받거나 점을 쳐서 운명을 알고자 했고,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고자 했다. 또 자기부정의 금욕주의를 추구하면서 희로애락과 생로병사에 무감정 무관심으로 대처했고, 욕심을 버려 마음의 평정을 얻고자 했다. 반면에 에피쿠로스 철학은 영혼불멸과 사후보응을 부정하였다. 신의 존재는 인정하였으나 물질 또한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의 창조와 통치와 섭리를 모두 부정하였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 묘사된 철학자들과 그 사상을 간략히 요약해 본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22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한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까싶어서였다.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참된 진리와 빛을 추구한 플라톤, 냉철한 이성으로 자기부정의 금욕주의 삶을 살았던 제노, 개처럼 살면서도 자족하며 벌건 대낮에 등불을 켜고 의인을 찾아다녔던 디오게네스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충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싶다. 무엇보다도 디모데에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1509-10년)에서 묘사한 인물들로서 미켈란젤로의 얼굴에, 사색에 잠긴 인물(독자의 창조)이 우주만물의 변화와 진화를 강조한 자연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이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영원성과 불변성을 논했다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유전한다”며 변화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상우측은 세속적 가치를 거부한 디오게네스이다. 그의 생활 신조는 욕망을 작게 갖는 것(아스케시스),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아나이데이아), 자족하는 것(아우타르케이아)이었다. 하좌측 노인은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인 제노이다. 그는 이성을 중시하여 자기부정의 금욕주의를 통한 초연한 경지(아파테이아)를 추구하였다. 하우측은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이다. 에피쿠로스철학은 근심과 고통에서 해방된 쾌락(아타락시아)을 추구하였다.

과 화평을 따르라.”고 했는데, “함께”라는 말에 방점이 있다. 함께하면 그 능력이 배가되고 오래 지속되지만, 혼자하면 힘이 약하고 그나마도 금방 빠져버린다.

또 바울은 23절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얕이라.”며 재차 권고했고, 24-25절에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하였다. 이는 권면을 받는 자의 마음을 얻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얻어야 25-26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고 말씀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1세기 교회질서27: 복음을 위한 고난(8)(담후 3:1-7)

## “너는 이것을 알라”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진 시스티나 성당(Sistine chapel) 내부

바울은 자기 시대를 “말세”로 인식하였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쓰인 “말세”는 ‘마지막 날들’(eschatais hemerais)이란 뜻이다. 그리고 “고통 하는 때가 이르러”는 견디기 힘든 환난이 올 것이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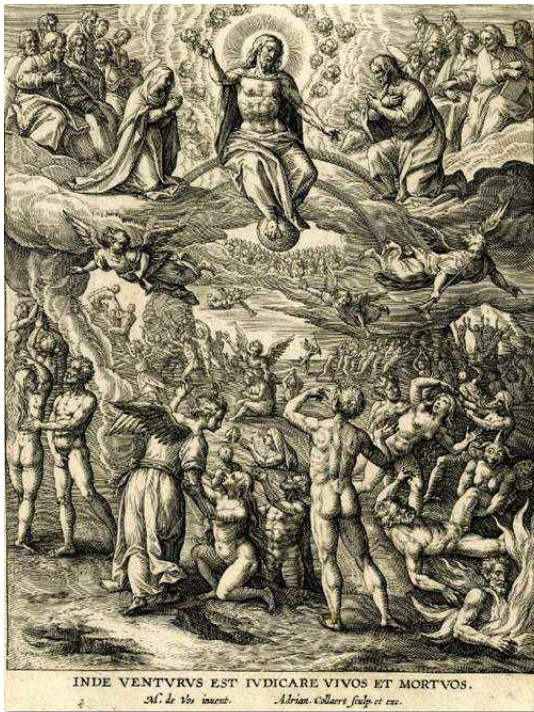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은 영적으로 하늘 가나안땅에서 누릴 안식을 말한다. 그렇더라도 현실 세계를 무시하거나 곧 망할 세상인 것처럼 처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한 주장을 말세론 또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했거나 왜곡한 데서 생긴 것이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붙이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 인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의하고 불평등한 인간의 나라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도록 하신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종국적이고 영원한 삶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 ‘장차울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추구하는 ‘장차울 더 좋은 것’은 영원하고 참되며 세계적인 것인데 반해,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올림하바’(다가올 세계)는 현세적이고 일시적이며 민족적이다.

유대인들의 ‘말세’ 또는 ‘종말’에 관한 생각은 시기별로 세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는 구약성경이 문자적인 글이기 때문에 ‘말세’나 ‘주의 날’은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에 유배를 당한 것과 같은 위기가 닥치는 때를 말하였다. 이스라엘 국가나 이웃 나라들의 멸망과 개인의 육체적 물질적 심적 정신적 고통의 때를 말하지만, 우주의 종말을 말한 것은 아니

다. 보통 예언자들이 ‘말세’ 나 ‘주의 날’ 을 외친 때는 위기의 때로써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 곧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때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이었다. 둘째는 바벨론 유배이후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과 명예 회복과 관련해서 제2모세를 기대하고 선포하였는데, 그가 메시아이다.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말세’ 곧 ‘마지막 때’ 인데, 이는 2천 6백년도 더 된 오랜 ‘그 희망’ (Ha-Tikvah)이 성취되는 때를 말한다. 유대교인들은 지금이 바로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쉬아크가 오고 계시다” 고 믿기 때문이다. ‘모쉬아크’ 는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교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메시아’ 와 차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유대교의 메시아에 관한 희망이 그리스도교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러”



아드리엔 콜레르트(Adriaen collaert, c. 1560-1618)의 ‘최후의 심판’ 판화. 콜레르트는 플랑드르(Flanders)의 디자인어 겸 판화조각사였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서처럼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하단에 “그들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INDE VENTVRVS EST IVDICARE VIVOS ET MORTVOS)는 사도신경의 한 소절이 적혀있다.

한 자들은 ‘다가올 세상’ 에 들어가지 못한다. 죽은 자의 부활신앙도 헬라 제국 때 추가되었는데, 메시아 신앙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부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또 누가 부활하게 될지를 자신 있게 말하지

셋째는 페르시아제국말까지 쓰인 구약성경에는 없고, 신구약 중간기인 헬라제국 때부터 발전된 사상에 따르면, 유대교인들은 모쉬아크가 오셔서 회복시킬 ‘올람 하바’ (Olam Ha-Ba) 곧 장차 올 이스라엘 나라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낙원과 다르고, 계시록 21장 1절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언급된 신천신지에 다소 가깝지만 유대인만을 위한 나라(사 65:17, 66:22), 곧 ‘에덴동산’ (Gan Eden)을 말하고, 지옥도 ‘게히놈’ (Gehinnom) 곧 ‘히놈의 골짜기’ 를 말하는데,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을 말한다.

‘게히놈’ 은 가톨릭의 연옥과 같은 곳으로써 ‘다가올 세상’ 이 도래하기 전까지만 존재하며, ‘게히놈’ 에서 머무는 기간도 최장 12개월로 한정된다. 그러나 악

못한다. 어떤 유대교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모쉬아크 시대에, 또 다른 유대인들은 모쉬아크 시대가 끝나고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의로운 자들만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가하면, 다른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다.

“말세”란 메시아의 때, 곧 더 좋은 새 천년시대를 눈앞에 둔 시점이란 뜻이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이후의 시대, 곧 우상숭배의 나라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새 천년시대였듯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내다봤던 새 천년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언약의 내용)을 고백하고, 침례(그리스도의 피 뿌림)를 받아 하늘 가나안땅의 시민이 되는 교회시대를 말한다. 종교개혁가들이었던 16세기의 마르틴 루터, 츠빙글리, 칼뱅, 19세기의 알렉산더 캠벨, 발톤 스톤 등도 새 천년시대를 바라본, 즉 자기 시대를 말세로 본 자들이었다. 그들은 세상의 멸망을 바란 말세론자들이 아니라 변화된 세상을 바란 종말론자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득권세력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감수하며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히 “고통 하는 때”요 어려운 때였다. 그 어려움을 딛고 넘어섰을 때 그들 앞에 새천년시대가 열렸다.

####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가나안땅시대라는 새천년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히브리인들은 가나안땅의 여러 부족들과 힘겨운 싸움을 펼쳐야했다. 당연히 “고통 하는 때”요 어려운 때였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늘 가나안땅시대 곧 교회시대라는 새천년시대를 열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영적 전쟁을 펼쳐야했다. 당연히 “고통 하는 때”요 어려운 때였다. 이점에 있어서는 16세기 종교 개혁가들이나 재침례파나 신약성경그리스도교운동을 펼친 19세기 환원운동가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투쟁한 것이 아니라 개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에서 “경건의 모양”은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것을 말한 것인데, 2-4절에 언급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교만, 신성모독, 불효, 불평, 불경, 무정, 한 맺힘, 비방, 방탕, 난폭, 호악, 배신, 무모, 자만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고, 헌신과 인내와 수고와 희생을 거부하는 것이며, 병둡과 가난과 고난을 저주로 아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은 구약성경적이고 유대교적이며 예비온파적인 것이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출범과 이동과 발전과 멸망과 희망에 관한 글들이고, 지상 가나안땅에서의 안식과 다산과 장수와 번영에 관한 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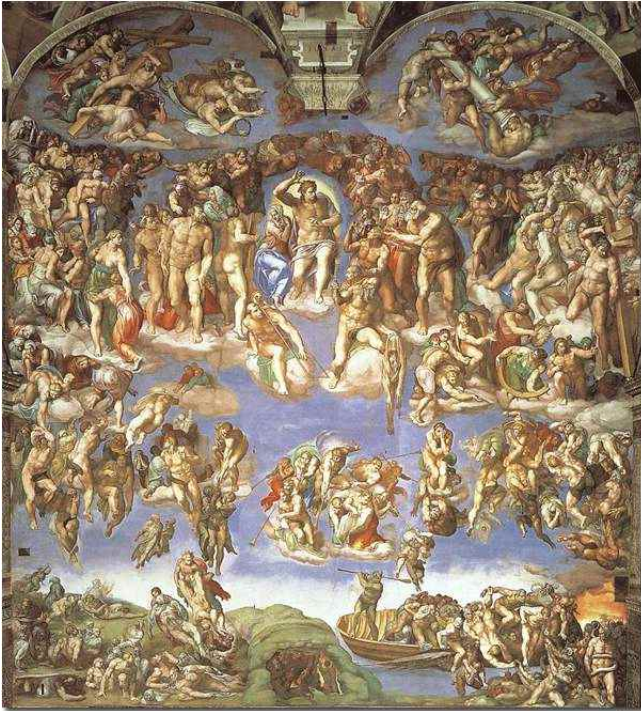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지옥의 문’ 7절의 “항상 배우는”에서 이 여성들이 배운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에비온파로부터 배운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이기 때문이다. 이 상태라면, 그들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되고 만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죄”와 “욕심”은 남녀사이의 불륜이 아니라, 2-4절에 언급된 것들을 말한다.

다. 반면에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가시밭길에 헌신에 인내에 수고에 희생에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지혜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다. 이런 것은 신약 성경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이며 복음적인 것이다.

6절에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 자들”과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에비온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어리석은 여자”는 누구인가? 그녀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는”(새번역), “늘 배우기는 하지만”(새번역)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는 못할 신자들이다. 왜냐하면,

## 1세기 교회질서28: 복음을 위한 고난(9)(딤후 3:8-17)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시스티나 성당(Sistine chapel)의 제단 벽에 그려진 프레스코 벽화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가 1536년에  
그리기 시작하여 1541년에 완성한 '초부의 심판'이란 제목의 작품이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에서  
“안네와 암브레”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신저란 증거로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였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이적들을 일으켜 모세를 대적하였던 애굽의 술객들을 말한다(출 7:11, 22, 8:7, 18). 요나단 탈굽과 구약외경 혹은 그리스도교 초기 문헌에 이들의 이름이 나온다고 한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대적한 에비온파를 모세를 대적한 안네와 암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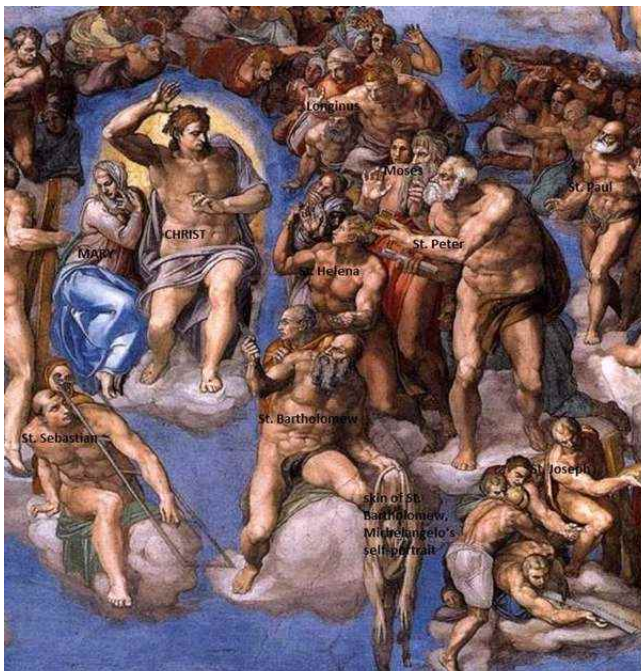
레에 비교하였다. 바울은 8절에서 이 같은 자들이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한 것이므로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 받은 자들이다.”고 단언하였다. 여기에 언급된 “믿음에 관하여는” 에비온파가 전한 율법적 영지주의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복음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말한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신실하고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율법에 충실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 받은 자들이” 된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는 주님께 계시를 받아서 바울이 전한 진리로 인해서 에비온파들의 유대교적 율법적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거짓

되고 어리석어 구원에 무익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 것은, 마치 모세가 참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표적들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안네와 암브레가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행했던 이적들이 눈가림과 속임수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만 것과 같다는 뜻이다.

10-11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는 바울이 제1-2차 선교 때 비시디아 지방과 루가오니아 지방에서 당한 일들에 대한 회고이다.

###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상층부의 한 장면  
그리스도와 성모를 동위한 인물들은 모두 사도와 순교자들과 성인들이다. 성모 밑에 뜨거운 석회 위에서 고문을 받고 순교한 카우렌티우스를, 건너편에 산 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참형을 받고 순교한 바돌로매가 칼과 인도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미켈란젤로는 그 인피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 넣었다. 그리스도의 좌측에 예수님의 영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로마병사 롱기우스, 그 아래 모세와 열쇠를 쥔 베드로, 베드로 앞에 콘스탄티우스 대제의 모친 헬레나, 베드로 뒤편에 바울, 베드로의 발밑에 요셉을 묘사하였다. 베드로의 얼굴은 당시 교황 바오로 3세의 동안이라고 한다.

우고 확신한 일에 따라 행동해야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서신서들에서 “배운 것”이란 말과 “전한 것”이란 말을 수차례 썼다. 그리스도교 복음을 누구한테서 배웠는가와 누가 전했는가 매우 중요했는데 그것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

디모데는 그 지역 출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서 당한 환란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12-1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였다.

바울은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하였다.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디모데가 복음을 “누구한테서 배웠는지를 안다”는 것과 “배

들의 도전 때문이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 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의 전례를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고 하였다. 이것은 주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올바른 계보요, 전통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주께 받아서 사도들이 전한 것 이외의 것은 “다른 복음” 이고 “다른 예수” 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8-9절에서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 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행한 예배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이단이라고 하였다. 후대의 교회들이 신약성경 27권의 정경 여부를 결정할 때에 기록으로 남은 문서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예배전통과 일치하는가를 보고 결정하였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교회가 주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올바른 복음, 즉 사도전통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성경 27권이 주께 받은 것을 사도들이 전한 올바른 복음의 계보요, 전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은 15-17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성경이다. 이 시기에는 신약성경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울은 구약성경을 세 가지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고; 둘째,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며; 셋째,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상층부의 한 장면  
그리스도와 성모를 동위한 인물로서 사도와 순교자들과  
성인들이다. 십자가 주변에 요한, 막달라 마리아,  
니고데모가 묘사되었고, 3-4세기 성인들인 세바스티아누스,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 아르메니아의 성인 블라시오 등이  
요셉과 함께 묘사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이 세 가지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약성경이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조건은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을 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구약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또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구약성경 해석방법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방법이었었고, 신약성경 저자들의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의 범위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1장 8-9절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었던 에비온파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실천한 율법주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구약성경해석, 구약성경을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으로 이해한 그리스도교 해석에 도전하였고, 예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다른 예수”와 율법과 할례를 구원의 필수조건으로 주장한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단이요, 잘못된 것이다.

## 1세기 교회질서29: 복음을 위한 고난(10)(답후 4:1)

##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상층부 중앙의 한 장면  
중앙에 심판주 그리스도와 성모를, 성모의 밑에 뜨거운 석회  
위에서 고문을 받고 순교한 라우렌티우스를, 건너편에 산 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참형을 받고 순교한 바울로매가 칼과  
인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미켈란젤로는 그 인피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넣었다. 그리스도를 용위한 자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이고, 한수염의 얼굴을 흰 사람이 베드로이며,  
그의 옆으로는 당시의 교황 바오로 3세의 동상이라고 한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고 하였다. 바  
울이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르네상스 시대이  
후 최후의 심판을 가장 잘 묘사한  
예술가들에는 미켈란젤로 부오나  
로티(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 아드리엔 콜레르트  
(Adriaen Collaert, c. 1560-1618)  
그리고 오귀스트 로댕(1840-1917)  
이 있다.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대표적 조각가,  
건축가, 화가와 시인이었고, 아드  
리엔 콜레르트는 플랑드르  
(Flanders, 벨기에 북부)의 디자인  
너 겸 판화 조각사였으며, 오귀스  
트 로댕은 프랑스의 조각가였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천지창조’를 마친지 25년이 지난 1531년에 교황 클레멘스 7세로  
부터 제단 벽을 장식할 그림을 부탁받았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작업은 교  
황 바오로3세 때인 1536년에 시작되어 67세 때인 1541년에 완성되었는데,  
작품명이 그 유명한 ‘최후의 심판’이다. 이 무렵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는 반가톨릭운동인 종교개혁이 한창일 때였다. 종교개혁의 필  
요성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를 미켈란젤로가 구상한 그림이 바로 이 ‘최  
후의 심판’이었다. 게다가 천장에는 자신이 30대 중반(1508-1512년)에 그린  
‘천지창조’란 이름의 1만2천점의 그림이 있었다. 같은 공간에 ‘최후의  
심판’을 추가한 것은 천재다운 발상이었다고 여겨진다. 이로써 알파에 오

메가 곧 처음에 마지막이 추가되어 미완성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거작을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감상한 사람들이 받았을 인상이나 작품이 준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했을지 상상이 된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의 지옥부분을 단테(Dante)의 <신곡>(La Divina Commedia)에 근거했다. 미켈란젤로는 391명의 인물들 가운데 성모를 뺀 모두를 나체로 그렸는데, 이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와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말씀에 적절했다고 여겨진다.

### “그의 나타나실 것과”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상층부의 지옥의 모습  
상단의 그림들은 중간층에 묘사된 생명책과 천사의 나팔  
이며, 이마에 불이 난 저승사자들에게 불꽃과 번갯불  
카를에게 넘겨진 영혼들이 바닥이 없는 소가죽 배에 실려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에게 넘겨지는 장면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혼자만 알고 있는 내밀한 것조차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지옥 문 앞에서는 계급장이 통하지 않는다, 계급이나 신분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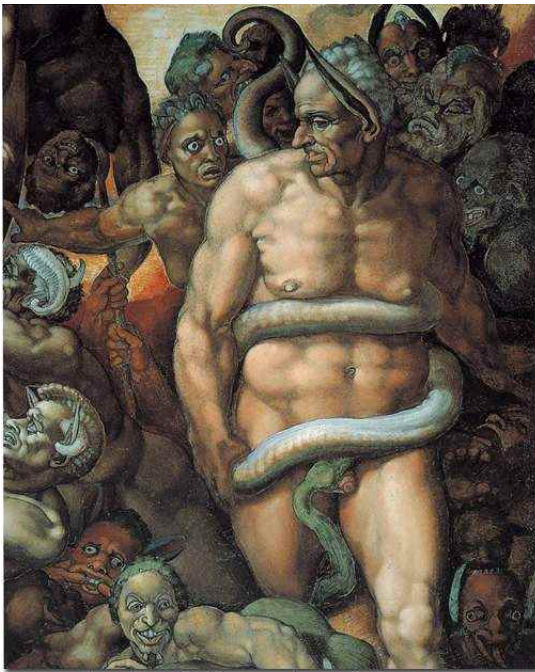
미켈란젤로가 인물들을 나체로 그린 또 다른 이유는 그림보다는 조각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에 묘사된 인물들은 모두가 근육질의 조각상처럼 묘사되어 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삼층 구도로 되어 있다. 상층부는 천국으로써 그림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고 상층부 좌우에는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 머리에 쓰셨던 가시관,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셨던 기둥에 매달리거나 의지하고 있는 천사들 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상층부 중앙에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가 서계시고, 우측에 성모 마리아와 그 발밑에 3세기 중반에 뜨거운 석쇠 위에서 고문을 받고 순교했던 라우렌티우스(Laurentius) 그리고 그 위 우측(독자의 좌측)에 사도들과 구원받

은 성도들이 운집해 있다. 그리스도와 얼굴을 마주한 자들 곧 그리스도의 좌측과 발아래에 웅위한 자들은 천국열석을 손에 쥔 베드로 (미켈란젤로는 베드로의 얼굴로 당시의 교황 바오로 3세의 용안을 그렸다고 한다.), 바울, 바돌로매, 막달라 마리아, 요셉, 니고데모, 사도요한, 그밖에 사도들과 심지어 모세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로마병사 롱기누스(혹은 론지노, Longinus), 그리고 3-4세기 성인들 곧 세바스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모친 헬레나,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Catherine), 아르메니아의 성인 블라시오(Blaise)와 많은 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재미있는 것은 인도에서 산 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참형을 받고 순교한 바돌로매(나다나엘)가 오른손에 칼을 왼손에 벗겨진 자신의 살가죽을 들고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바돌로매의 그 인피 얼굴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 넣었다는 점이다. 어쩌면 미켈란젤로는 자기 자신이 가톨릭당국에 의해서 살가죽이 벗겨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나 살가죽처럼 일그러지고 처진 보잘 것 없는 자신이 순교성인의 손에 붙잡힌 한 가닥 구원의 가능성이나 희망을 묘사했는지도 모른다.

###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하층부의 지옥의 모습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와 마귀들의 모습이다. 미노스는 당나귀  
귀를 마귀들은 뿔을 갖고있다. 뱀이 미노스의 몸을 휘감은 채  
그의 고추를 깨물고 있다. 미켈란젤로는 미노스의 얼굴로 교황의  
의전관이었던 루기영 비아지오 체세나의 얼굴을 그려넣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와 15절, “누구든

‘최후의 심판’ 상층부 중앙에 자리 잡은 재림주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높이 들어 내리치는 듯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계신 곳은 좌측(독자들의 우측)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아니라, 그 아래 중간층 좌측 곧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들이다. 중간층 중앙에는 나팔을 부는 천사들과 생명책이 묘사되어 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와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와 15절, “누구든

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져지더라.”를 묘사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려다보고 계신 중간층 좌측의 사람들은 마귀들에 붙들려 꼼짝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고, 하층부 좌측은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혹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뱀사공 카론이 바닥이 없는 소가죽 배에 영혼들을 실어 날라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와 마귀들에게 넘기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미노스는 당나귀 귀를, 마귀들은 뿔을 갖고 있다. 뱀이 미노스의 몸을 휘감은 채 그의 고추를 깨물고 있다. 카론이 배에서 내리지 않고 머뭇거리는 영혼들을 노로 내리치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이것은 “카론은 무섭게 불타는 눈초리로, 망령들을 배 안으로 불러 모아 머뭇대는 자는 가차 없이 노를 들어 내리쳤다”는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편의 한 소절을 소재로 그린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뱀으로 몸을 휘감은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의 얼굴로 당시 교황의 의전관인 추기경 비아지오 체세나의 얼굴을 그렸다고 한다. 그가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목욕탕에나 어울릴 것 같다”고 폄하했기 때문이다. 추기경이 교황을 찾아가 벽화에 그려진 자신의 얼굴을 다른 얼굴로 바꿔 그리도록 지시해달라고 청원했지만, 교황은 “안됐지만 나도 지옥에 빠진 사람은 구해낼 수 없어요.”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23년 후인 1564년 트렌트 공의회는 그림의 나체부분을 수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미켈란젤로가 89세의 나이로 죽기 1개월 전에 결정된 이 수정작업은 미켈란젤로의 제자 볼테라(Volterra)가 맡아 하였다. 그리고 4백여 년이 지난 후 이 프레스코는 복원을 거쳐 1994년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 1세기 교회질서30: 복음을 위한 고난(II)(딤후 4:2-8)

##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하층부의 유폐의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부활하는 모습.  
부활한 성도들은 천사들에게 이끌려 천국으로 옮겨진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3장에서 행한 권면을 재차 강조한 말씀이다.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되면,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

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된다.” 면서 디모데로 대표되는 복음을 유산으로 상속한 자들은 이 같은 자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면서 3장 10-12절에서 “[10]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 하였다. 또 바울은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면서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고 권면하였다.

디모데후서는 4장 6-8절에서 감지되듯이 바울이 교회에 남긴 유언서와 같다. 그가 교회에 남긴 유산은 그리스도교의 복음이다. 바울은 이 유산을 탕진하지 말고 복음사업 곧 전도를 열심히 잘해서 성장시켜나갈 것을 유언하였다.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자신이 본을 보인 것처럼, 2-5절,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고 권면하였다.

바울은 디모데로 대표되는 복음을 유산으로 상속한 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였다. 첫째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2:2) 곧 제자들을 양육 하라고 했고, 둘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8) 곧 복음의 유산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했으며, 셋째는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말라” (1:8, 12)고 했다.

###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미켈란젤로의 ‘창조의 심판’의 중간층의 한 장면로 대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묘사된 한 남자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이마에 땀이 난 저승사자들이 그의 다리를 단단히 휘감고 그를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그의 곁과 아래에 그려진 사람들도 우측 천사들의 나팔소리에 저승사자들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내려지고 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는 1세기 그리스 로마인들의 종교관행에 연결되어 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를 대부분의 성경들이 ‘전제(처럼)로써 내가 이미 부어지고 있다.’ 로 번역하고 있으나 헬라어 원문의 뜻은 ‘왜냐하면 내가 이미 전제를 드리게 되고(1인칭 단수 현재 수동태), 나의 떠남의(내가 떠나야할)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다.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가족 신들을 집에 모셨다. 가족 신들이란 가정의 수호신들이나 집을 지키는 조상신들을 말하며, 이들을 집에 모시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인들은 집안 한쪽 벽에 벽감실(성감)을 갖추고 있었다.

다. 가족 구성원들은 벽감실(성감) 앞에서 매일 제사(헌주)와 기도로 가족의 안녕을 빌었는데, 특히 출정하거나 군단에 복귀하는 군인 또는 긴 여행을 떠나야하는 자가 출발에 앞서 가족 신들을 모신 제단에 헌주하며 안전을 빌었다. 따라서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는 떠나야할 시각(kairos)이 임박한 자가 떠나기 직전에 가족 신들에게 헌주하던 관행에 빗대어 바울이 자신의 죽음의 때 곧 하늘나라로 떠나야할 시각이 다가왔음을 지적한 것이다(엡 6:1-4과 딤후전 3:14-16부분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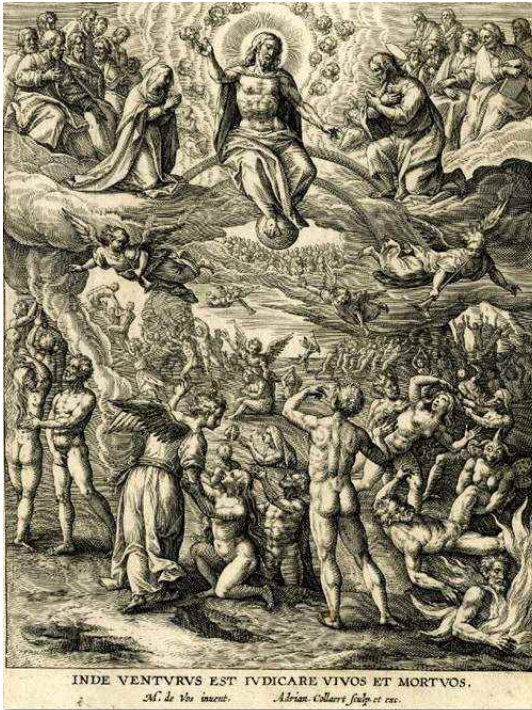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AD 30년대 중반이후 죽음이 임박한 AD 60년대 중반의 순간까지도 곧 지난 30년 동안 앞서 당부한 세 가지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8절에서 이제 남은 것은 순교 후 하나님의 대전에 올라 주님께로부터 월계관을 받아 쓸 일뿐임을 피력하였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 하층부 우측(독자의 좌측)은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부활하는 장면이고, 그 위 중간층은 부활한 성도들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상층부 천국으로 승천하는 장면이다. 중요한 것은 축복이 지상에서 천상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고, 저주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쏟아진다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요한 계시록과 ‘아드리엔 콜레르트’의 ‘최후의 심판’과 로댕의 ‘지옥의 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프레스코 벽화이고, 아드리엔 콜레르트의 ‘최후의 심판’은 판화이며, 로댕의 ‘지옥의 문’은 청동작품이다. 이들 작품 모두는 요한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사람이 위(천국)를 향하게 하였고, 저주받을 사람은 아래(지옥)로 향하도록 하였다.

####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중앙부 나팔을 부는 천사들과 좌측(독자의 우측)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들 사이에 한 남자가, 마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모습은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그는 이마에 뿔이 난 마귀들에게 단단히 붙잡혀 벗어날 수가 없다. 마귀들이 이 남자의 양발을 단단히 휘감은 채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공포와 두려움은 계시록 18장 4절에서 주님이 경고하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아드리엔 콜레르트(Adriaen Collaert, c. 1560-1618)는 플랑드르(Flanders, 벨기에 북부)의 디자이너 겸 판화 조각사였다. 콜레르트가 그린 판화 ‘최후의 심판’도 3층 구도로 되어 있어서 상층부가 천국이다. 상층부 중앙에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구름과 무지개 같은 것 위에 걸터앉아 계시고, 성모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좌우에 웅위하고 있다. 중간층은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묘사되어 있고, 하층부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과 부활하여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천국에 오르는 자들이 묘사되어 있다. 하층부 우측(독자의 좌측)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천사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서 상층부 천국에 오르는 모습이고, 하층부 좌측(독자의 우측)은



아드리엔 콜레르트(Adriaen collaert, c. 1560-1618)의 '최후의 심판' 판화. 콜레르트는 플랑드르(Flanders)의 디자이너 겸 판화조각사였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서처럼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하단에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INDE VENTVRVS EST IVDICARE VIVOS ET MORTVOS)는 사도신경의 한 소절이 적혀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떨난 마귀들에 붙들려 불붙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판화로 그렸다. 그리고 이 그림 밑에는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INDE VENTVRVS EST IVDICARE VIVOS ET MORTVOS)는 사도신경의 한 소절을 적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고 하였다. 또 계시록의 저자는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옹위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위로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응보의 처참함을 보여준 후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 1세기 교회질서3: 복음을 위한 고난(12)(답후 4:9-22)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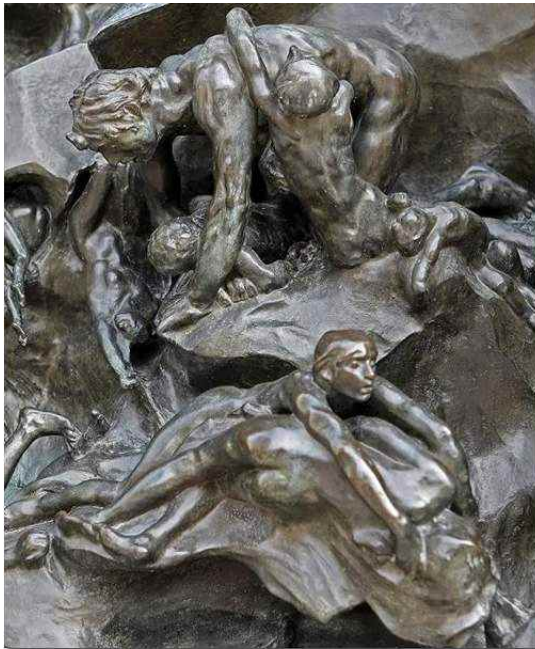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지옥의 문'  
상인방의 '생각하는 사람' 우측(독자의 좌측)에는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을,  
좌측에는 마귀와 해골과 뼈를 비롯한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을 묘사  
하였다. 양쪽 문설주에 새긴 위(천국)를 향하고 있는 인물들과 상인방의  
'생각하는 사람' 우측(독자의 좌측)에 조각된 인물들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과 성도들이고, 양쪽 문짝에 새긴 지옥으로 추락하는 인물들과  
상인방의 '생각하는 사람' 좌측(독자의 우측)에 조각된 마귀와 해골과  
뼈와 함께 한 인물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단테의  
<신곡>에 따르면, 저주받은 영혼들은 카론의 방악없는 소가죽 배에  
싹혀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에게 보내지게 되고, 미노스는 그들을 죄값에  
따라 분류하여 9개의 등급으로 나뉜 지옥의 계곡들로 보낸다.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된 상황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1장 15-18절  
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므  
로 이곳에서는 생략한다.  
디모데후서 4장 9-22절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구절들이자 전  
도자로서 헌신한 삶의 결  
산서와도 같다. 바울은 자  
기를 불러 일군으로 세우  
신 예수님보다 10배가량  
더 오랜 기간 제자들을  
키우고 또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부끄러워하지 않  
았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  
울의 10분의 1인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임팩트는 바울보다 10배나 더 컸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  
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취한 행동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했지만, 대부  
분은 복음전도에 헌신하다가 순교하였다. 적대자들도 있었고,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도 있었으며,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승리자가 되셨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던 바  
울도 마찬가지였다. 에비온파나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와 같은 적대자들이  
있었고, 배교자들도 있었으며, 1장 1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히모게네도 있다.” 한  
것이나 4장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법정에서의 변호)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는 말씀에서 보듯이 위기 때에 자기  
만 살겠다고 줄행랑을 쳤던 사역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옥에 갇힌 바울을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린 데마조차도 어쩌면 선교지에서 바울과 바

나바를 두고 떠나버린 마가가 여전히 자신에게 유익한 일꾼이니, “데리고 오라”(11절)고 한 것에서 보듯이, 데마를 비롯하여 그레스게, 디도, 누가, 두기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오블로, 부데, 리노와 글라우디아까지 모두가 복음의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킨 신실한 일꾼들이었다. 바울은 자신은 물론이고 이들 일꾼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풍성한 수확을 후대에 유산으로 남길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마지막은 쓸쓸하고 고독한 원망이 아니라 빛나는 월계관을 받아쓸 승리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다.

###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지옥의 문’  
로댕은 오른쪽(독자의 왼쪽) 문짝에 음모와 탐욕과 배반이 가득한 자들이 가는 제17계곡과 정욕(아욕)의 범죄자들이 가는 제27계곡을 묘사하였다. 상단의 조각상은 제17계곡에서 기아로 고통을 겪는 ‘우글리노와 그의 자녀들’이고, 하단의 조각상은 제27계곡에서 금지된 사랑에 몰부침치는 시동생 파올로(Paolo)와 형수인 프란체스카(Francesca)이다.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그 우측(독자의 좌측)에는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좌측에는 마귀와 해골과 뼈를 비롯한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묘사되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의 운명과 타락한 문명 때문인지 깊은 상념에 빠진 표정을 짓고 있다. 혹자는 로댕의 이 ‘생각하는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 중앙부 나팔을 부는 천사들과 좌측(독자의 우측)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 사이에 묘사된 한 남자에게서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은 프랑스의 조각가이다. 그의 작품 ‘지옥의 문’은 ‘생각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80여명이 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구성이 비슷하다. ‘지옥의 문’ 상단에 세 사람의 망령들(shades)을 세웠는데, 오른쪽(독자의 좌측)에 고뇌하는 아담이 포함되어 있다. 높이 635센티미터, 너비 400센티미터, 폭 85센티미터의 거대한 ‘지옥의 문’ 양쪽 문설주에 새긴 조각들은 대체로 위(천국)를 향하고 있고, 양쪽 문짝에 새긴 조각들은 아래(지옥)로 추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개의 문짝 위를 가로지른 상인방과 문틀 사이의 넓은 공간 중앙에는

영감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남자의 모습은 엄격히 말해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그는 이마에 뿔이 난 마귀들에게 단단히 붙잡혀 있어서 헤어날 수가 없고, 반면에 마귀들은 이 남자의 양 다리를 단단히 휘감은 채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로댕은 당초 이 ‘생각하는 사람’을 ‘그 시인’ (The Poet)으로 불렀으나 최종적으로는 ‘창조주’로 바꿨다.

상인방의 ‘생각하는 사람’ 우측(독자의 좌측)에는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을, 좌측에는 마귀와 해골과 뼈를 비롯한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을 묘사하였다. 양쪽 문설주에 새긴 위(천국)를 향하고 있는 인물들과 상인방의 ‘생각하는 사람’ 우측(독자의 좌측)에 조각된 인물들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과 성도들이고, 양쪽 문짝에 새긴 아래(지옥)로 추락하는 인물들과 상인방의 ‘생각하는 사람’ 좌측(독자의 우측)에 조각된 마귀와 해골과 뼈와 함께한 인물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단테의 <신곡>에 따르면, 저주받은 영혼들은 카론의 바닥없는 소가죽 배에 실려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에게 보내지게 되고, 미노스는 그들을 젓값에 따라 분류하여 9개의 등급으로 나뉜 지옥의 계곡들로 보낸다.

#### “주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지옥의 문’  
 로댕은 양쪽 문 상단에 지옥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을 묘사하였고, 왼쪽(독자의 오른쪽) 문짝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고통의 세계를 묘사한 ‘허무한 사랑’ (Fugit Amor, 도망친 사랑) 등을 조각하였다. (독자의 오른쪽) 문짝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고통의 세계를 묘사한 ‘허무한 사랑’ 등을 조각하였다.

로댕의 ‘지옥의 문’은 로댕이 죽은(1917년) 후에 짜 맞춰졌고, 죽은 지 9년 후인 1926년에 청동상이 만들어졌다. 오른쪽(독자의 왼쪽) 문짝 상단 제

로댕의 ‘지옥의 문’에서 양쪽 문짝에 장식된 조각상들은 단테의 <신곡>에 묘사된 지옥에 있다는 계곡들에서의 모습이다. 지옥은 죄목에 따라 들어가는 9개의 계곡이 있는데 로댕은 오른쪽(독자의 왼쪽) 문짝에 음모와 탐욕과 배반이 가득한 자들이 가는 제9계곡과 정육(애육)의 범죄자들이 가는 제2계곡 그리고 왼쪽

9지옥계곡에 기아로 고통을 겪는 ‘우골리노와 그의 자녀들’ 조각상이 있고, 하단 제2지옥계곡에 금지된 사랑에 몸부림치는 시동생 파올로(Paolo)와 형수인 프란체스카(Francesca)가 있다. 그리고 왼쪽(독자의 오른쪽) 문짝 윗부분에 ‘허무한 사랑’ (Fugit Amor) 조각상이 있다. 로댕은 본래 파올로와 프란체스카 조각상 아래에 이들의 ‘입맞춤’ 조각상까지 배치하였으나 전체적인 조화 때문에 ‘입맞춤’은 나중에 ‘지옥의 문’에서 제외되었다.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우골리노와 그의 자녀들 및 파올로와 프란체스카는 13세기에 실재했던 인물들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탈리아 도시 국가 ‘피사’ (Pisa)의 폭군이던 ‘우골리노 델라 게라데스카’ (Ugolino della Gherardesca) 공작이 ‘루지에리 우발디니’ (Ruggieri degli Ubaldini) 대주교와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여 두 명의 자식들과 두 명의 손자들과 함께 탑에 갇혀서 굶어 죽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까지 생명을 유지했던 우골리노는 결국 배고픔에 못 이겨, 먼저 죽어간 자녀들의 시신을 먹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이다.

단테의 <신곡>에는 애욕의 죄를 범한 영혼들이 형벌을 받는 제2지옥계곡을 지나던 중에 채찍처럼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서로를 끌어안은 채 떨어질 줄 모르는 연인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형수와 시동생의 금지된 사랑으로 비련의 주인공이 된 파올로(Paolo)와 프란체스카(Francesca)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간음죄로 처형되어 장례미사도 없이 땅에 묻혔다.

단테의 <신곡> ‘지옥의 문’ 상판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를 지나면 우환의 도시가 있다. 나를 지나면 영원한 고난이 있다. 나를 지나면 멸망의 백성이 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편 3:1-9). 이런 이유 때문에 계시록 14장 9-12절에서 성도들이 인내로써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 1세기 교회질서32: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1)(딤후 1:1-4)

## 디도서의 주제



그레데 크노소스 궁전터 전경

목회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의 주제는 각각 ‘믿음의 선한 싸움’과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들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였고, 성경의 기록목적들 가운데 한 가지를 “그리스도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고 하였다(딤후 3:17).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선한 일을 힘쓰라”고 권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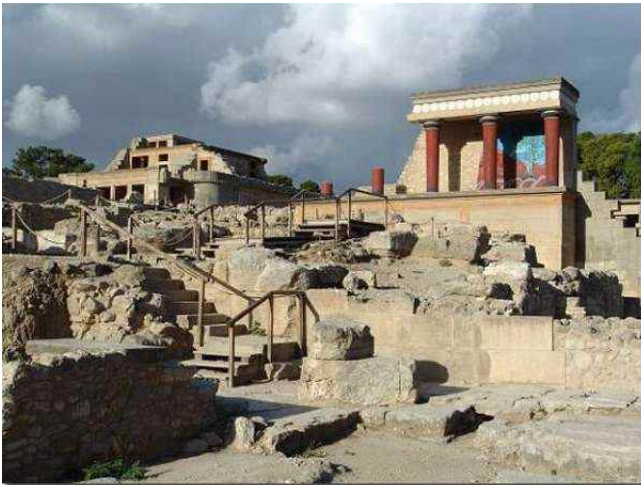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일컬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라고 하였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딤후 2:14)고 하였고, 설교나 권면의 목적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딤후 3:8).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강조한 구원의 교리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약속의 땅 곧 하늘 가나안땅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참 교사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또 아버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율법의 행위나 선행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누누이 강조하였다. 반면에 바울은 목회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일은 “믿음의 선한 싸움”과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였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딤후 2:14)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들 가운데 한 가지이고, 설교나 권면의 목적들 가운데 한 가

지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고 하였다(딤후 3:8).

바울서신들의 특징은 전반부 교리적인 부분과 후반부 윤리적인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있다. 전반부의 교리적인 부분이 ‘칭의’와 ‘초기성화’에 관한 것이라면, 후반부의 윤리적인 권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점진적인 성화’에 관한 내용이다.

### ‘칭의’와 ‘성화’의 관계



그레데 코로소스 궁전터 전경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죄인에게 무죄 곧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뜻이고, ‘성화’는 그 죄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침례 가운데서 깨끗이 씻겼거나 고침을 받았고(초기성화), 혹은 성령님의 내주동거로 지속적으로 씻기고 있거나 고침을 받고 있다(점진성화)는 뜻이다.

세속인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겼거나 고침을 받았을 때를 일컬어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부르고, ‘초기성화’로 일컫기도 한다. 이 과정 곧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초기성화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 중생(거듭남) 곧 구원의 과정이다. 그것은 마치 수정(잉태)으로부터 출산까지가 새 생명의 탄생의 과정인 것과 같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여 결혼에 골인하기까지가 부부탄생의 과정인 것과 같다. 따라서 침례는 중생의 시간으로, 혼례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의 시간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 같은 구원의 과정은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세속인이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등록교인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점진적인 성화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점진적인 성화의 삶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일을 힘써야 하는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엡 2:8). 그것은 마치 말기암에 걸렸던 환자가 의사의 수술을 받고 희생한 후에 완치를 위해서 의사의 지시대로 절제된 삶을 살아야하는 것과 같다. 이를 신학에서는 ‘점진성화’라 부른다. 그러므로 디모데전후서나 디도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점진성화를 힘쓰라는 사도 바울의 당부 곧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와 당대의 목회자들 곧 장로들이나 감독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 디도서의 기록연대

디도서는 46절의 짧은 글로서 “디도에게”(Pros Titon) 보내진 바울서신이다. 이 당시 디도는 그레테(Crete) 섬에서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다. 디도서는 디모데전서보다는 조금 늦게 기록되었다. 기록연대는 바울이 63년경 로마의 셋집에서 풀려 나와 활동하다가 다시 체포된 64-5년경 이전 곧 63-4년경 사이로 추정된다. 반면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급히 체포되어 로마의 맘머티메 토굴에 갇힌 직후인 64-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 그레테의 지리적 배경



바울시대 때 그레테(Crete)는 주전 67년에 로마제국에 편입된 속주였다. 그레테는 동서로 가늘고 길게 뻗은 큰 섬으로써 총면적이 8,300평방 제곱킬로미터 정도이다. 가로세로 91킬로미터 크기 정도의 면적을 가진 섬이다. 이 섬이 독특한 것은 세 개의 높은 산맥들과 많은 동굴들과 고원들과 협곡들로 이뤄져있다는데 있다.

이 가운데 화이트 마운틴(레프카 오리, White Mountains, Lefka Ori) 산맥의 파흐네스(Pahnes) 산은 2,453m, 아이다(프실오리티스, Ida, Psiloritis) 산맥의 티미오스 스타브로스(Timios Stavros) 산이 2,456m, 딕티(Dikti) 산맥의 스파티(Spathi) 산이 2,148m에 이른다. 아이다 프실오리티스 산맥은 대지의 여신 레아가 자식을 삼켜버리는 남편 크로노스로부터 제우스를 보호하려고 이곳의 동굴에 숨겨 길렀다고 전해진 곳이다.

그레테는 에게해의 청동기문명(3000-1000 BC)의 발생지이자 미노스 문명(3650-1171 BC)이 탄생한 곳이다. 이들 에게해 문명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과 고대 이집트 문명에 필적할 만한 것이었다. 게다가 에로우페와 제우

스 사이에서 태어난 미노스는 미궁으로 알려진 거대한 궁전을 완성하였는데, 그 첫 번째 궁전(주전 2000-1900년경 완공)이 대략 주전 1700년경에 파괴된 것으로 여겨진다.

바로 이 미궁으로 인하여 저 유명한 테세우스(Theseus)와 미노타우로스(Minotaur)의 신화가 생겨났는데, 그레테 왕자가 황소괴물로 태어나 아테네 왕자에게 목이 잘린 것은 미노스 문명(주전 2700-1500년 번성)이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주전 1400-1200년 번성)에 목이 잘린 것의 상징일 수도 있다. 또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납치하여 그레테에서 미노스를 낳았다는 신화도 농경문화였던 그레테가 황소를 숭배했던 관행에 연결된다.

그레테인들은 선형A라는 문자를 사용했는데, 현재까지 해독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선형A문자(Linear A)는 미노스 문명의 쇠퇴기인 주전 1450년경에 미케네 문명인들에 의해서 선형B(Linear B)문자로 발전하였다. 미노스 문명은 주전 1450년경 외침과 지진으로 인해서 몰락하기 시작하여 1171년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수백 년간 헬라의 지배아래 있다가 주전 67년에 로마의 속주가 된 그레테인들은 정직하지 못함과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딤후 1:12). 또 그레테는 한때 해적들의 본거지였으나, 로마의 속주로 편입되면서부터 해적들이 사라졌다고 한다.

## 1세기 교회질서33: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2)(딤후 1:1-4)

##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크노소스 궁전 북동쪽 입구에 소재한 보좌방  
보좌 좌우를 그리핀(griffins)들이 지키고 있다. 보통 그리핀들은 독수리  
머리와 날개에 사자 몸통을 하고 있다. 프레스코화나 석조물에 그리핀들이  
묘사되기 시작한 것은 쇠망한 미노스문명을 접수한 미케네 문명시기  
(c. 1450 BC)로 알려져 있다. 그리핀들은 사람의 얼굴에 항소 몸통을  
한 수호신 라마수(Lamassu), 사람의 얼굴에 사자 몸통을 한 수호신  
스핑크스, 야훼성전의 지성소 보좌(법좌)를 수호하는 케루빔에 비교된다.

바울이 고난과 핍박을 기피하지 않고 적대자들과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었던 것, 그분들이 영웅들 가운데 최고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의식 때문이었다. 자의식이 살아있는 한, 왕자는 비록 자신이 거지차림을 했을지라도 왕자라는 의식의 끈을 결코 놓지 않는다. 반면에 거지는 비록 왕복을 입고 왕관을 썼을지라도 거지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와 같은 자의식이 그리스도인들을 삶의 영웅으로 만든다.

또 바울은 1절 후반부에서 자신이 사도로 택함을 입은 목적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 진리의 지식”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믿음과 진리의 지식은 교리를 말한다. 바울은 이 교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힘쓰게 한다고 했다.

디도서 1장 1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였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분명한 바울의 자의식에서 나온 말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도 분명한 예수님의 자의식에서 나온 말이다. 이 자의식은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난을 기피하지 않으신 것,

또 바울은 2절에서 이 믿음과 지식 곧 교리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또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이르자, 이것을 복음의 선포(kerygma)란 것 곧 전도의 미려한 것을 통해서 드러내셨고(고전 1:21), 구주 하나님이 명령으로 바울 자신과 디도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4절에서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일에 수고하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기를 빈다.”고 하였다.

###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1)



신들에게 바치는 기름 헌물들(oil offerings)에 관해 기록한 미노아(미노스) 문명인들의 선형문자 B판(1450-1375 BC). 이 판은 미케네 문명에서 사용된 선형문자 B(Linear B)가 적힌 것으로서 크노소스에서 발굴되었다. 미노스인들은 선형 A 문자(현재까지 해독 불가)라는 문자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뒷날 미케네 문명에도 영향을 주어 미케네(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쓰던 선형 B문자의 기원이 되었다.

디도는 바울을 대신해서 선교교회들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인물이다. 디도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주후 51년경 예루살렘에서 열린 사도총회 때로 볼 수 있다(갈 2:1-5, 행 15:1-2).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헬라인이었다.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지 대략 20년이 흐른 때에 안디옥교회와 예루살렘교회의 예비온과 사이에 불거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리문제였다. 안디옥교회를 대표한 바울과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며, 그리스도교 복음의 세계화, 탈국경화, 탈민족화를 시도한 인물들이었다. 당시 예루살렘교회의 핵심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 태생의 유대인들로서 대부분이 예수님의 형제와 제자들이었으며, 바울과 바나바가 갖지 못한 사도적 결정권과 승인권을 가진 큰 사도들이었다. 그런 큰 권한아래 있었던 예루살렘교회의 예비온주의들은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의 틀 속에 가둬두려고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행 15:1)와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행 15:5)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유대교의 축일들인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라”(갈 4:10) 것을 가르쳤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골 2:16)고 하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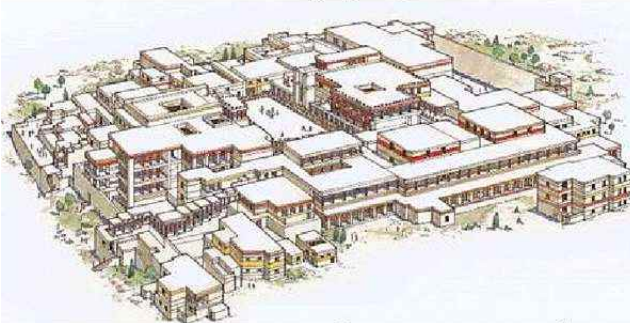
는 할레나 무할레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다”(갈 5:6)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특징을 자유와 평등과 박애에 두었다. 하나님은 한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평등하시고, 차별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복음에는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고,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고, 혈통과 민족의 차별이 없다. 국경도 없다. 그러므로 유대민족의 종교적 신념인 할레와 절기 지키는 일을 타민족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님은 한분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말고는 다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고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 받은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었다.

##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2)

### 크레테 크노소스 궁전을 재현한 그림



크레테(Crete)의 첫 번째 크노소스 궁전(2000-1900 BC)은 중앙에 큰 다. IQ테스트에서도 미개한  
뜰이 있는 한 채로 된 거대한 미로와 같은 구조물이었음 것으로 추정된다. 종족이 문명이 갠 종족보  
다 더 높게 나타난 사례들이 보고된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우월성은 타고난 것이기보다는 높은 도덕수준을 자랑하는 그들의 야훼신앙  
과 오랜 고통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 다듬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유일신 사상에 그리스도교 복음의 특징인 자유해방과 평등사상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복음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신성도 우상도 거부한다. 하나님 말고는 절대적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고는 유일무이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와 평등과 박애는 유일신 사상에 기초를 둔 그리스도교 복음의 소중한 가치인 것이다.

이 가치를 위한 투쟁이 바로 주후 51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뤄진 일들이고, 성령님의 강한 개입과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교회를 대표

인간학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도 문명세계를 접할 기회를 주면, 곧바로 문명인이 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

하는 사도들이 안디옥교회를 대표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좋은 결말을 얻게 되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인 디도를 대동하였는데, 아마도 그는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훌륭한 사례 곧 그 증거로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역사적 사건에 증인으로 참여한 디도는 이후로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로서(고후 8:23), 제자로서, 참 아들로써(딤후 1:4) 평생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바치게 되었다.

디도는 고린도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교회를 방문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하는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서 디도의 이름이 고린도후서에서만 아홉 차례나 언급되었다(고후 2:13; 7:6,13; 8:6,16,23; 12:18). 그리고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인 66년경에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서 목회지침서나 다름없는 훌륭한 글이다.

디도가 마지막으로 언급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그가 달마디아 곧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가이사라의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는 그가 쓴 <교회사>에서 디도를 그레데 섬의 감독으로 칭하였다.

## 1세기 교회질서34: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3)(딤후 1:5-9)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그레데의 파이스톤스의 주화(c. 360-50 BC)

전면에 에우로페(유럽)가 바위에 앉아서 오른손을 흰 황소의 머리를 향해 내밀고 있는 황소성녀자의 모습을 새겼고, 뒷면에 헤르메스가 오른손에 케두케우스를 들고 바위에 앉아 상항을 주시하는 모습을 새겼다. 흰 황소는 난봉꾼 제우스가 변신한 모습이다. 그레데의 전설적인 왕 미노스는 멋진 흰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그레데로 납치해서 낳은 아들이다. 결국 미노스는 수감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그레데인들은 황소의 자손인 셈이다. 이처럼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 미노스 문명(3650-1170 BC)의 중심에는 황소숭배(성녀)가 있다.

‘디도’ (Titus)라는 이름은 동시대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군단장의 이름과 동일한 것에서 보듯이 흔한 라틴어 이름이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군단장 티투스는 역시 군단장 출신이었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에 이어서 제10대 로마의 황제에 등극한 인물이다. 재위기간에 아버지가 건축을 시작한 콜로세움을 완성시킨 인물이다.

바울은 디도를 헬라인으로 지칭했다(갈 2:3). 바울은 4절에서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일컬었다. 여기서 ‘아들’이란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낳은 믿음의 아들이란 의미로 추정해볼 수 있다. 바울은 역시 헬라인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도 “사랑하는 아들”(고전 4:17, 딤후 1:18, 딤후 1:2)이라고 불렀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직접 전도해서 낳은 믿음의 아들이었다(딤후 1:5).

디도는 시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추정된다. 40년대 후반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였고, 예루살렘교회의 에비온과 유대인들이 안디옥교회에 야기한 율법에 관한 논쟁을 해결하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주후 51년경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안디옥교회의 헬라인 그리스도인 디도를 대동하였기 때문이다(갈 2:1,3).

디도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한 시기는 대략 바울일행이 에베소에서 제3차 선교를 펼치던 50년대 후반기로 추정된다. 교회와 선교와 관련되어 디도의 이름이 처음 언급된 때가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때이기 때문이다. 고린도교회에 바울의 적대자들인 에비온과 유대인들이 침투하여 바울을 심히 비난하고 욕보이며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을 바울로부터 갈라놓을 뿐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교회들을 훼손하고 허무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사태만 악화되었고, 다시 고린도 교회들의 공동 개척자였던 디모테를 보냈으나 디모테 역시 연소함 때문이었는지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는데, 디도는 노련하게 고린도교회의 위기를 잘 해결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고 하였다. 이로 보건데 디도나 디모테는 지역교회를 담임한 목회자들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사자” 곧 바울을 대리한 준사도급 순회사역자였다.

###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의 크노소스의 헤미드라크마(두 데나리온) 은화(420-380 BC) 전면에 인간의 몸을 하고 뿔과 꼬리는 황소 모습을 한 미노타우로스(Minotaur)가 무엇인가(물?)를 손에 쥐고 뛰는 모습을 새겼고, 뒷면에 미노타우로스가 잡힌 장면인 다이달로스가 고안한 미궁을 새겼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는 말씀을 볼 때, 바울이 디도와 함께 직접 그레데를 방문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는 아마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연금되었다가 풀려난 주후 63년부터 디도서

가 쓰인 66년경 사이, 특히 65-66년경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레데에는 바울과 디도가 방문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를 방문했을 때는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지역들에 이미 복음이 전파된 후였기 때문이다. 그레데에도 다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와 대척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레데에서도 유대교인들의 텃세와 핍박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이어지는 구절들을 읽음으로써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에 남아서 이 같은 문제 곧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도록 하였다.”

장로들을 세우는 목적은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는 것이었다(행 20:28). 바울은 교회를 조직할 때 집사들 보다는 장로들부터 먼저 세웠다. 집사들은 장로들을 보조하는 봉사자들이었

기 때문에 집사들보다는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새로 조직된 교회들을 위한 급선무였다. 또 사도나 준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우기보다는 장로들이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었다.

1세기 교회들은 유대교 회당의 전통에 따라 세 명의 장로들을 장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대교 회당에는 세 명의 장로들이 있었고, 그들은 회당장과 지방공회원(지방재판장)을 담당했는데, 1세기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이런 유대교 전통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바울이나 준사도들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장로들은 개교회의 불박이 지도자들이었고, 목양자와 감독자였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에게 안수한 자들이 바로 장로들이었다. 바울이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4세기말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종교가 되면서부터 예배의식이 ‘미사’ 곧 제사예배로 급격히 발전되면서 장로들은 사제(priest)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때에는 칼뱅과 루터와 같은 이들이 평신도 장로대의제를 도입함으로써 개신교에서는 사제가 장로기능의 하나인 ‘목양자’(pastor)로 바뀌었고, 한국에서는 ‘목사’라 일컫게 되었다. 그러나 1세기 교회질서로 볼 때, 장로들이 반드시 설교자였던 것은 아니다.

####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아티카(ATTICA)의 아테네(Athens, c. AD 145-175)의 트라크마 전면에 투구를 쓴 지혜와 용기의 여신 아테나를 새겼고, 뒷면에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장인 다이달로스가 고안한 미궁에 들어가 미노타우르스를 죽이는 장면을 새겼으며, 좌측에 Athena라고 썼다. 그레테의 왕 미노스의 아들 안드로게오스가 아테네에서 열린 경기에 참가했다가 죽임을 당한 대가로 아테네는 9년에 한 번씩 청년 7명, 처녀 7명을 미궁으로 보내 미노타우르스에게 바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레테 왕자가 항소리물로 테베나 아테네 왕자에게 목이 잘린 것은 미노스왕명(3650-1170BC, 2700-1500BC 변성)이 그리스의 미케네문명(1400-1200BC 변성)에 목이 잘린 것의 상징일 수 있다.

장로와 감독은 적어도 1세기 말까지는 동일한 직책이었다. 그러다가 1세기 말에 가서야 비로소 감독직을 주창한 순교자 이그나티오스가 시무한 안디옥교회와 같은 곳에서 주도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담당한 장로를 일컬어 감독(주교)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세기말부터 사제계급화가 되기 이전인 4세기말까지 감독(주교)이란 말은 한국식의 담임목사

혹은 미국식의 인도목회자(Lead Minister) 개념에 해당되었다. ‘Lead Minister’라는 말이 쓰이기 전에는 ‘Senior Minister’라 불렸다. 그러므로 60년대에 기록된 디도서에서 언급된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책 곧 목양의 기

능과 감독의 기능을 함께 가진 목회자를 말한다. 그리고 바울은 장로/감독으로 세울 자에 관해서 6-9절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 는 장로가 도덕과 윤리에서, 인격과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 이란 일부일처 곧 한 명의 아내만을 둔 남편을 말한다. 그리고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하나님의 가정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장로는 믿음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7-8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해야한다.” 는 말씀 그대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장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16세기 이후 개신교회들에서는 치리 장로들과 신학교육을 정식으로 받고 말씀선포와 목회에 주력하는 목사들로 나뉘어져 있고, 목사도 장로인가라는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목사를 Pastor라 부르는 전통들에서는 대체로 장로로 보는 입장이고, Minister라 부르는 전통들에서는 대체로 장로로 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다.” 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믿고 신뢰할만한 표준이란 뜻이고, 사도들로부터 배운 가르침 곧 신약성경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는 뜻이다.

## 1세기 교회질서35: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4)(딤후 1:10-16)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살리는(gives life) 일을 하는 영웅은 희망(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자이다.

디도서 1장 10-16절에는 디도가 그레데에 남아서 수행해야 할 일들과 유대인들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다. 먼저 바울은 할레파 곧 에비온과 유대인들의 문제점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하였다.

첫째, 할레파인 에비온과 유대인들 가운데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10절)는 것이다. 여기서 ‘불순종한다’는 “미쁜 말씀”(9절) 곧 신약성경의 복음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가르치는 장로들/감독들과는 달리 신약성경의 복음과 진리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또 ‘헛된 말을 한다’는 실천이 없고 무익한 말들을 화려하게 구사한다는 뜻이다. 또 ‘속인다’는 헛된 말로 듣는 사람들을 현혹시켜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든다는 뜻이다.

둘째, 에비온주의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11절)는 것이다. 여기서 “무너뜨린다”는 ‘전복시키다,’ ‘뒤엎다’는 뜻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린다는 뜻이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이었던 것이다(아 2:15).

셋째, 에비온주의 유대인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14절).

넷째, 에비온주의 유대인들은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라는 것이다(15절).

다섯째, 에비온주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이다”(16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의 입을 막으라”(11절)고 말했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는 말이 있는데(12절),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권하였다. 여기서 ‘입을 막는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스토미제인’(epistomizein)으로써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뜻이다. 당대에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의 하나가 출교시키는 것이었다. 또 ‘입을 막는다’는 그들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잘못된 가르침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일이 디도와 장로 곧 모든 목회자들의 일이다.

###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레데의 파이스토스의 주화(c. 300-270 BC)  
전면에 날개를 펼친 청동 인물 팔로스가 양손에 돌을 들고 섬을 지키는 모습을 새겼고, 양다리 사이에 팔로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항소를 새겼으며, 위에 ‘파이스토스의’라고 새겼다. 팔로스는 청동으로 만든 오토마톤(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기계)으로써 제우스가 복인 헤라 몰래 그레데로 납치한 에우로페(유럽의 여왕, 페니키아인 여성)의 경호를 맡은 ‘이동지능 경호로봇’이다. 그레데 섬의 해안을 하루 세 차례 돌아서 순찰하며 해적이나 침입자로부터 에우로페를 보호했다고 한다.

12절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에서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는 주전 6세기의 시인이며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의 한 사람인 크노소스 출신 에피메니데스(Epimenides)이다. 에피메니데스는 후대의 작가인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에 의해서 선지자로 불렸

다고 한다. 이는 바울이 그를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지자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그를 선지자로 보았다는 뜻이다.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권면했는데, 바울은 그 이유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13-14절)고 하였다. 여기 “입을 막으라”는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뜻이다.

이것은 준사도인 디도가 해야 할 일이었지만, 새로 뽑힐 장로들/감독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했다. 9절에서 바울은 장로/감독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곧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가르쳐야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고 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칼뱅은 “목사에게는 두 가지 목소리가 필요하다.” 고 하였다. “하나의 양을 모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리와 도둑을 쫓아내는 것이다.” 고 하였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에비온과 유대인들 곧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나운 이리” 또는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양 떼를 보살피는 것이라고 하였다(28-30절). 또 바울은 자신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24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사람(26절),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파하는 사람(27절),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조심하는 사람(28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사람(31절),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33절),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였다(35절).

###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그레데의 파이스토스의 주화(c. 300-250 BC)  
전면에 날개를 펼친 청동 인물 탈로스가 양손에 돌을 들고 섬을 지키는 모습을 새겼다. 뒷면에 사냥개와 ΦΑΙΣΤΙΟΝ(파이스토스의)이란 글자를 새겼다. 탈로스는 청동으로 만든 오토마톤(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기계)으로서 제우스가 보인 헤라 몰래 그레데로 납치한 에우로페(유럽의 어원이 된 신화 속 페니키아인 여성)의 경호를 맡은 ‘인공지능 경호로봇’이다. 그레데 섬의 해안을 하루 세 차례 일어서 순찰하며 해적이나 침입자로부터 에우로페를 보호했다고 전한다.

치 않다. 보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이라고 말한 에비온과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준수하라’며 “명령” 했다는 것이다(14절).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로 번역된 헬라어는 ‘뮈도이스’(mythois)로써 ‘신화들’을 뜻한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신화들은 무엇이었을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는 무엇이였을까? 유대교인들은 계명들을 어길 수 없도록 만든 율타리법이란 규례들을 갖고 있었다. 신약성경에 직간접으로 언급된 것만도 안식일법, 손씻기법, 카샤룻(kashrut) 음식법과 그릇씻기법, 할례와 절기 등이 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구전법들을 일컬어 허탄한 이야기라고 했는지는 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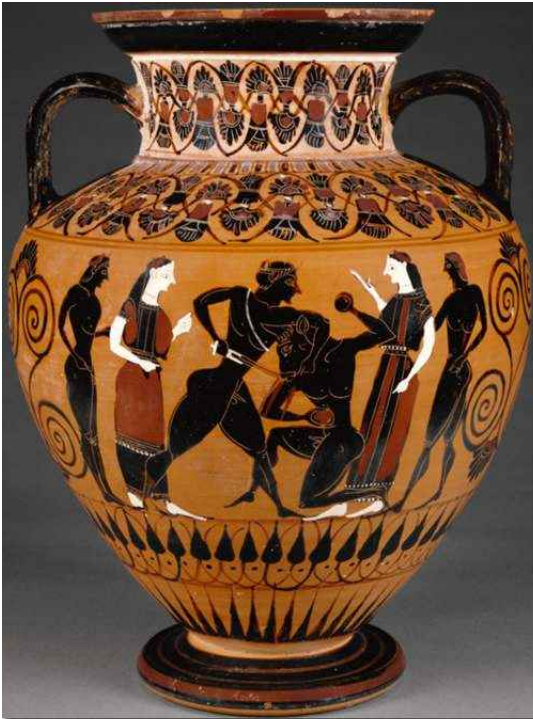
디모데전서 1장 4절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지적했는데, 유대인 카발라인들의 주장 곧 태초의 빛에서 유출된 열개의 ‘세피롯’(sefirot)을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말한 것일 수 있다. 세피롯은 열개으로써 각각의 명칭과 태초의 신인 ‘아인 소프’(Ein Sof)의 형상(특성)을 갖는다. 아인 소프가 창조한 최초의 인간 ‘아담 카드몬’(Adam Kadmon)은 이 열개의 세피롯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이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세피롯의 상위 세 개는 부분적으로, 나머지 일곱 개는 완전히 깨져 버렸다고 말한다. 유대인들은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신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책무를 완수하여 세피롯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두 번째 세피롯이 지혜 또는 지혜 부인(Lady Chokhmah)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에비온과 유대인들이 지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교사가 되려한다”고 비난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디도서 1장 10-11절에 언급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할례파”였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들이었다. 또 14절에 언급된 “허탄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교 복음 곧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준수하라’며 “명령”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고 하였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도 그들의 주장을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세피롯에 대해서는 <1세기 교회질서13: 믿음의 선한 싸움(13)(딤후전 4:6-10)>를 참고하십시오.

## 1세기 교회질서36: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5)(딤후 2:1-10)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1)



아테네의 흑도화(Attic Black-Figure) 암포라(550BC)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살해하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 뒤에서 응원을 보내고, 파시파에가 미노타우로스 뒤에서 항의를 표시하는 듯하다. 이 두 여인은 모녀로서 목정에 눈이 멀었던 크레타인들이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한 것인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성경이다.

여기서 “바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휘기아이누세’(hygiainouse)로써 ‘건강하다’는 의미의 동사 ‘휘기아이노’(hygiaino)의 현재분사이다. 어근은 아폴론이 인간 코로니스에게서 낳은 아들이자, 아버지 아폴론으로부터 의술을 물려받은 아스클레피오스의 네 딸들 가운데 막내의 이름인 ‘휘기에이아’(Hygieia)에서 유래되었다. 우리말로는 ‘히기에이아’로 표기되며, ‘위생 상태, 위생(건강)’이란 뜻을 가진 영어단어 ‘하이진’(hygiene)이 여기에서 나왔다. 아스클레피오스에게는 두 아들과 네 딸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역사상 최초의 군의관이었다고 전하며, 네

디도서 2장 1-10절은 바울이 권면한 그리스도인들의 처신에 관한 내용이다.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는 1장 16절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와 상반된 행동과 교훈을 말한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대립된 체계 속에서 대조가 두드러진 한 쌍을 대조하는 방법으로써 바울은 에비온과 유대인들의 교훈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종들인 디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감독의 교훈과 행동에 상반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훈과 행동이 건강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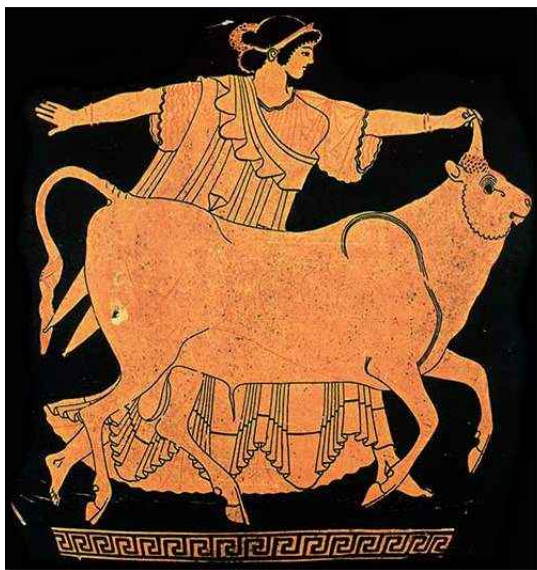
인 반면, 에비온과 유대인들의 것

은 병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

씀이다.

딸은 아버지를 도와 고린도에서 멀리 아니한 고대 휴양도시 에피다우로스에서 간호사 노릇을 하였다. 맏딸의 이름 ‘이아소’ (Iaso)는 의료라는 뜻이고, 둘째 딸의 이름 ‘판아케아’ (Panakeia)는 만병통치, 셋째 딸의 이름 ‘아이글레’ (Aigle)는 광명, 넷째 딸의 이름 ‘휘기에이아’는 위생이라는 뜻이다. 에피다우로스에는 아스클레피오스와 그의 넷째 딸 히기에이아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 하루만 머물러도 온갖 병이 다 낫는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원근각지에서 병자들이 몰려들었던 곳이다. 몰려든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들, 즉 신전들, 사당들, 여관들, 운동경기장, 대중탕, 극장 등이 있었던 유적이 남아있고, 극장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2)



제우스가 17살이던 황소의 뱀을 에우로페(유럽)가 붙잡는 모습. 그레테의 섬에 청동기 미노스문명(3650-1170 BC)을 탄생시킨 왕 미노스는 황소로 17살이던 제우스와 페니키아 출신 에우로페 사이에서 태어난 신의 아들이다. 그레테인들은 황소를 숭배한 동경민족이었다.

이처럼 바울은 ‘휘기아이누세’ (hygiainouse)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바른 교훈” 곧 사도들의 가르침인 신약성경이 온갖 병을 다 낫게 하는 영적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도에게 에비온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교훈, 건강하지 못한 교훈, 병든 교훈과는 상반된 건강한 교훈,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교훈,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하였다.

사도들의 가르침 곧 신약성경은 증상완화를 위한 책이 아니라 근원치유를 위한 책이다. 요즘 아스피린은 만병통치약처럼 취급된다.

아스피린은 두통, 관절염, 당뇨, 티눈, 소화불량, 치통의 개선 또는 완화에 쓰이고, 해열과 심장마비, 뇌졸중 및 암 예방에 두루 쓰인다. 이처럼 뛰어난 약도 증상을 완화하거나 개선할 뿐, 병의 근원을 치유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종교개혁과 신약성경교회 회복운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16세기 초에 시작된 종교개혁은 그동안 기독교의 질병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아스피린이 병의 근원을 치유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기독교가 앓고 있는 질병들을 근원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일찍이 하나님은 유대교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기독교를 택하셨고, 가톨릭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개신교를 택하셨다. 그러나 개신교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교적 기독교로 변질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수만 개의 교단으로 분열되었다. 이 고질병은 고쳐졌어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운동이 18세기 말에 시작된 신약성경교회 회복운동이다. 이 운동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순수성과 능력을 되찾음으로써 교회가 앓고 있는 고질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하자는 운동이다.

디도서 2장 2-10절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를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남녀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에비온과 유대인들과 달리 “바른 교훈” 곧 신약성경에 실린 사도들의 가르침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미케네 여인을 그린 프레스코(1300-1200 BC, 높이 53 cm)  
목걸이를 손에 쥐고 여인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고 사려깊다. 가슴이 패인 블라우스 안쪽에 화려한 목걸이가 보이고, 양팔목에도 팔찌들이 보인다. 헤어 스타일 또한 복잡하고 화려하다. 출어굽시대 그리스여인의 모습이다.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에서 “늙은 남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레스비타스’(presbytas)로서 장로란 뜻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남자”로 번역된 이유는 ‘장로’의 문자적 의미인 연장자를 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절제하며”로 번역된 헬라어는 ‘네파리오스’(nephalios)

이다. ‘네파리오스’는 ‘떨췌한,’ ‘냉정한’ ‘술 마시지 않은,’ ‘술 취하지 않은,’ ‘절제하는’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단어는 디모테전서 3장 2절과 11절에서 두 번 더 사용되었고, 감독과 집사의 아내들의 자격으로 “절제할 줄 알고” 혹은 “절제하며”로 번역되었는데, 이 역시 ‘술 취하지 않으며’를 의미한 것이다. 이 덕목은 3절에서 “늙은 여자로는 ...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라는 구절에서 그 뜻이 더욱 명확해졌다.

여기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나이가 작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인다는 점보다는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 더 강조되어 있다. 3-4절의 말씀을 볼 때 “늙은 여자”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늙은 남자”도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고 지도하는 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디도와 같은 준사도이든, 장로/감독이든,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지도자이든 혹은 노예이든,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흠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한다. 바울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5절)고 했고,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8절)고 했으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10절)고 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배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고,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현시대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기보다는 오히려 빛을 잃고 있는 현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들어야 할 권면이 아닌가싶다.

## 1세기 교회질서37: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6)(딤후 2:11-15)

##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레테의 크노소스 주화(c. 221 BC)

전면에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가 에우로페(유럽)를 등에 태우고  
돌고래들과 경주하듯 지중해를 강풍처럼 내달리는 모습을 새겼고,  
뒷면에 미노타우로스가 갇힌 장인 다이달로스가 고안한 미궁을 새겼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에서 “나타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페파네’(ephephane)로써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를 때나 매복한 적군이 갑자기 나타날 때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띠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천사가 아브라함과 롯과 야곱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바가 있고, 야훼의 임재가 광야에 설치된 성막위에 구름기둥으로 나타난바가 있다. 그리스신화에서는 난봉꾼인 제우스가 애욕을 느낄만한 남성으로뿐 아니라, 황소, 사슴, 백조와 같은 동물로도 변신한다. 이 변신이 ‘현현’ 또는 ‘계시’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은 그동안에는 전혀 나타난바가 없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 시대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뜻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교 복음을 만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것이라고 자주 언급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밝히신 복음을 일컬어 “하나님의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비밀”은 감춰졌었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신비한 것이어서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거나 납득하기가 어려운 미스터리란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도 모르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르고, 선민이었던 유대인들도 몰랐다는 것이다. 그 같은 계획이 사도들을 통해서 밝혀지기 전까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사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상에 속한 특별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고 하였다. 예수님도 당신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복음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고 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고 했다(마 13:44).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 또한 신비한 일인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위해서 맞춤 하나님과 맞춤 그리스도를 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간직했던 비밀을 알 수 없었고, 지금도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있다.

###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그레테의 크노소스 트라크마 은화(C. 300-270 BC)

전면에 여신을 새겼고, 뒷면에 장인 다이달로스의 미궁을 새겼으며, 미궁 좌우에 A-P를, 미궁 아래에 크노시(KNOSI)를 새겼다. ‘크노시’는 ‘크노소스’를 뜻하지만, ‘A-P’는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지지 있지 않다. 전면의 여신이 ‘헤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A-P’는 ‘아르테미스’이거나 만일 ‘A-P’가 ‘A-Φ’이면 ‘Aphaia’일 수 있다. ‘아파이아’는 Diktynna 혹은 Britomartis로도 불리는 요정이었으나 자신을 사랑하는 미노스 왕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그 물망에 걸렸고, 아르테미스가 그녀를 구출하여 여신으로 삼았다는 등의 여러 신화가 전해 있다.

바울은 12-14절에서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목적을 말 씀하였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을 “양육하려는” 것이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려는 것이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

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을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가 있다.

첫째,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계와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약성경교회시대를 여는 것이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신약성경교회시대를 여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철학이나 율법이 아닌 신약성경교회 복음으로 인류에게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처럼 이상적 현실 세계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들처럼 현실 세계를 부정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세계를 끝없이 찾아 헤매는 것도 아닌 성령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신약성경교회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살아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서 영적으로 이뤄지는 동시에, 죽어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기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솔선적인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문자적 방식으로 성취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구약예언의 성취, 곧 유대왕국과 성전예배의 재등장을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

###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그레데의 크노소스 테트라드라크마 은화(c. 200-67 BC)  
전면에 머리에 띠를 두르고, 수염을 기른 그레데의 전설적인 왕 미노스(혹은 제우스)를 새겼고, 뒷면에 장인 다이달로스가 고안한 미궁을 새겼으며, 둘레에 크노소스의(KNΩΣ-Σ-Ι-ΩΝ)라고 썼다.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의 아들이 많은 것은 고대의 왕이나 황제들이 신성 또는 신의 아들로 칭찬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레데의 전설적 왕이었던 미노스는 제우스가 에우로페(유럽)를 그레데로 납치해서 낳은 아들이다.

바울은 15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고”란 단어는 ‘가르치라’는 동사이다. 그리고 “권면하며”는 칭찬하고 위로하여 용기를 심어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책망하며”는 꾸중하라는 뜻보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뜻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교회의 본래성, 순수성, 능력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담대히 말하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성경의 권위와 말씀 위에 확고히 서라는 뜻이다. 잘 알지 못하고 권면하거나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책망하면 설득은 고사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도서에는 “가르치라”는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다. 2장 1절에서 “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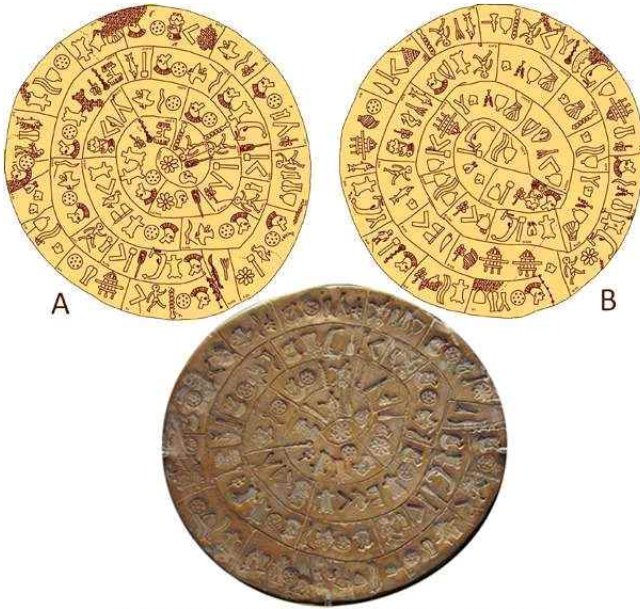
한 교리에 부합한 것을 가르치라” 고 하였고, 2장 7절에서는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 고 하였다. 또 1장 5절에서 “부족한 일을 바르게 잡으라,” 이를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라” 고 하였고, 3장 1절에 “기억하게 하라” 고도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들을 “모든 권위” 로 하라고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첫째, 권위는 자의적 해석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지식과 지혜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장로/감독 곧 목사는 성경말씀을 올바르게 알기 위한 공부를 성실히 해야 한다. 성경 전체 그림과 맥락을 알고, 그 세세한 내용까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이 쓰인 정황과악뿐 아니라, 관련된 지리, 역사, 문화. 유대교를 비롯한 당대의 종교들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깊이 연구함으로써 쓰인 말씀의 문맥을 파악해야한다.

둘째, 권위는 행동과 실천에서 비롯된다. 지도자가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권위가 서지 않을 것이고, 권위가 서지 않으면, 가르치고, 권면하며, 책망하는 일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는 7-8절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에 연결된다. 그러므로 확신한 것과 믿는 것에 모범을 보일 때, 꾸중과 책망보다는 칭찬과 격려에 집중할 때 15절,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는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 1세기 교회질서38: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7)(딤후 3:1-2)

## 목회서신의 기록연대 추정



크레타의 파이스토스의 토기 원판(1700-1600 BC)

이 토기 원판은 지름 16cm, 242개 문자, 61개 그룹, 45개의 독특한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1908년 7월 3일 크레타의 파이스토스에서 발견되었고, 헤라클리오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원판의 내용은 임신한 여신(A면)과 여신 아파이아(Aphaiia, B면)에게 바친 기도문이다. 아파이아는 미노아의 출산의 여신인 디크티나(Diktynna)와 동일하기 때문에 임신한 여신(A면)과 출산의 여신(B면)이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미노아문자 전문가인 가레스 오웬스(Gareth Owens) 박사와 존 콜먼(John Coleman) 옥스포드 대학교 음성학 교수가 밝혔다.

디도서의 기록연대는 디모데전서보다는 늦고 디모데후서보다는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2년 정도 연금되었다가 63년경에 풀려 나와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58년 초여름부터 풀려난 63년경까지 최소 4년에서 5년 만에 이뤄진 활동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의 활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64년에 발생한 로마시 대화재로 인해서 64-5년경에 다시 체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황제 네로는 64년 7월 18일부터 9일간 로마시의 삼분의 일을 태운 대화재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

에게 전가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두머리로 지목을 받았다.

바울이 체포될 당시 소아시아의 드로아 가보(Carpus at Troas)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갑자기 체포되었기 때문에 소지품을 미처 챙기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아직 항해가 가능한 64년 초가을이나 이듬해인 65년 초여름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로마감옥에서 쓴 디모데후서가 디모데에게 전달된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이듬해 65년 여름이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겨울항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디모데가 바울의 소지품을 챙겨 로마에 갇힌 바울을 찾았을 때쯤은 이미 바울이 갇힌 지 6개월 이상 1년쯤 지난 시점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의 맘머티메 토굴에 갇힌 직후인 64-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디도서는 그 이전인 63-4년 여름이나 64-5년 여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며, 디모데전서는 63-4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정은 모두가 바울의 투옥시기와 석방 및 장거리 여행과 바닷길이 열리는 항해시기를 고려한 것이다.

### 니고볼리



그레데 말리아의 암포라(저장 용기)  
미노스 문명 시대에 만든 이 같은 도자기들이 크레타의 궁전들에서는 물론이고 지중해 동부 전역에서 발견되었다.  
리)라는 특권을 부여하고, 자신의 딸을 기념하여 ‘아우구스타 율리아의 정착지 빌립보’(Colonia Augusta Julia Philippensis)라는 이름을 수여하였는데 이탈리아에 적용되는 동등한 권리 곧 자유와 자치가 니고볼리에도 주어졌다.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해전의 승리의 영광을 아폴론 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악티움 경기를 제정한바가 있고, 로마군이 진을 쳤던 너른 터에 니고볼리를 세웠으며, 자신의 막사가 있던 자리에는 로마의 바다의 신 넵투누스(Neptunus, 그리스의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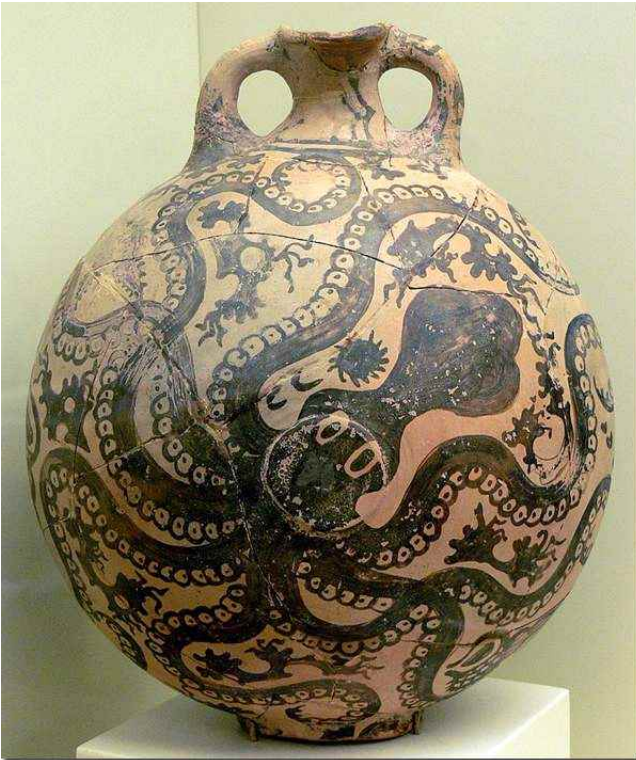
니고볼리(Nicopolis)는 ‘승리의 도시’란 뜻이다. 주전 31년에 악티움(Actium) 인근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함대를 물리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 즉위한 주전 29년에 해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자치 도시이다. 이 전투에서 퇴역한 군인들은 빌립보에 정착하였다. 니고볼리는 에피루스 지방(Epirus Vetus)의 수도였다. 옥타비아누스는 이미 빌립보 전투 직후에도 로마시민증을 수여받은 퇴역군인들의 정착지로 빌립보를 자치도시로 지정한바가 있다. 주전 29년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 즉위한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에 ‘이우스 이탈리아 쿨’(jus italicum) 곧 ‘이탈리아의 권리’(이탈리아에 적용되는 동등한 권

세이돈) 신전을 건립하였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니고볼리에 있던 대다수 공공건물들이 헤롯의 관심과 재정 도움으로 세워졌다고 한다<고대사, 16권, 5장, 3절>.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언급되어 있다가 주후 63년경에 풀려난 이후 64년 로마시의 대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체포된 64-5년경 사이, 곧 63-4년 겨울이나 64-5년 겨울을 이곳에서 보내기로 결정하였고, 디도가 그곳으로 와주기를 바랐다(디도 3:12). 그러나 바울이 디도서를 이곳에서 기록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니고볼리가 아닌 다른 지역을 순회하던 중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낼 계획이니까 그곳에서 만나자고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니고볼리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의 중간 바다 곧 이오니아 해(Ionian Sea) 그리스 땅 에피루스(Epirus) 지방 서해안에 세워졌다. 앞서 언급한 악티움해전(Battle of Actium, 31 BC)과 소아시아의 노예출신이자 고문으로 절름발이가 된 해방노예신분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투스(Epictetus, AD 50-135)가 거주했던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전도하기에도 좋고, 디도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 그레데에서 배를 타고 오기에도 편리한 곳이었다.

#### “기억하게 하라”



그레데(Crete)의 동기(1500 BC)  
헤라클리오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문어가 그려져 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1-2절에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였다. 이 두 구절의 핵심단어는 “기억하게 하라”(Remind)이다. 이 단어 “기억하게 하다”는 반복적인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억을 일깨우고 되살리라는 뜻이다.

“바울은 디도나 장로/감독에게 성도들을 일깨워 기억나게 할 것들로 네 가지

를 당부하였다. 첫째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애국심도 애교심도 애향심도 사라져가고 있고, 권위와 위계를 무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로 착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 야훼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권세와 권위의 근본이시다.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의 위임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청지기와 같은 것이다. 또 모든 권세와 권위는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계약)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천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곧 천심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위임받은 청지기들은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의롭게 행사해야 한다. 또 구성원들은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한다. 이 같은 것을 자주 권면하여 기억나게 하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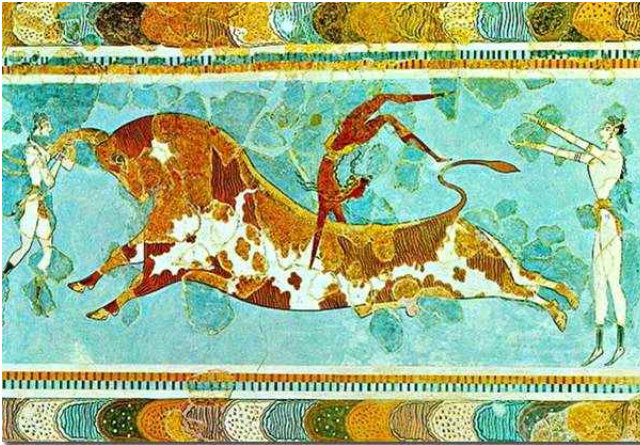
둘째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에서 보듯이, 언제 어느 때라도 필요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한다는 것을 일깨우라는 뜻이다. 소방대원들처럼 언제 어느 때라도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라는 뜻이다.

셋째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아무도 비방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며 남을 비방하고 다투려하는 자기의 본성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내도록 자주 권면하라는 뜻이다.

넷째는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로써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 1세기 교회질서39: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8)(딤후 3:3-8)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돌격하는 황소를 뛰어넘는 목예사들(1600-1450 BC, 크노소스 궁전 프레스코, 그레데의 헤라클리오 고고학 박물관). 황소의 뿔에는 긴 줄이 매달려 있다. 황소가 돌격할 때 목예사가 그 줄을 이용해(왼쪽) 황소 등으로 뛰어올라(중앙), 땅에 착지하는 모습(우측)을 묘사하였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는 앞서 언급된 1-2절의 동사 “기억하게 하라”(Remind)에 연결된다. 1-2절에서 바울은 네 가지로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라”고 목회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첫째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게 하라고 했고, 둘째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게 하라고 했으며, 셋째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게 하라고 했고, 넷째는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당부하였다.

이제 바울은 3-8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직접 몇 가지로 상기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전에”의 뜻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죄의 종노릇했기 때문이다’이다.

첫째는 우리가 이전에는 3절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란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각종 우상들을 섬겼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고, 황소, 뱀, 그리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포함해서 대략 3만이 넘는 신들을 섬겼으며, 참되고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난봉꾼 제우스가 최고신인줄로 속고 살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둘째는 우리가 이전에는 3절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는 것이다. 이 말 씬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다는 것이다.

로마시대의 삶은 지배와 복종게임이었다. 로마시대에 보통의 사람들은 가난, 질병, 노동, 착취, 폭력, 성적학대, 납치, 강간, 살인, 전쟁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야했다.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능력에 맞춰져 있었다. 자기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은 착취하고,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는 굴종하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도덕심이나 수치심이 별로 없었다.

####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크노소스 궁전 보좌방의 그리핀

보좌 좌우를 그리핀(griffins)들이 지키고 있다. 보통 그리핀들은 독수리 머리와 날개에 사자 몸통을 하고 있다. 프레스코화나 석조물에 그리핀이 묘사되기 시작한 것은 쇠망한 미노스문명을 점수한 미케네 문명시기(c. 1450 BC)로 알려져 있다. 그리핀들은 사람의 얼굴에 항소 몸통을 한 수로신 라마수(Lamassu), 사람의 얼굴에 사자 몸통을 한 수로신 스프링크스, 야훼성전의 지성소 보좌(법궐)를 수호하는 케루빔에 비교된다.

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하였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강림하신 때를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진실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 왔다.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교를 통해서든지 구제를 통해서든지 혹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든지 그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다. 그분의 오심은 진실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눅 2:14)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최악의 상태일 때 출현한다고 볼 때, 당대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최악의 시기였다. 그런 만큼 그리스도교 복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

이제 바울은 4-8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아니요 가해자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귀한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3절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

있겠는가? 그리스도교 복음이 오늘날에도 고통스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여전히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다.

5-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행위로써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신자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구원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를 말한다.

###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바뮈에 손에 쥔 여신상들(c. 1700-1450 BE, 그레데의 헤라클리온 고고학 박물관). 크노소스 궁전의 이 조각상들은 바뮈 여신들이거나 바뮈신 여사제들 또는 가족 신상일 수 있다. 중앙의 여신은 양손에 각각 바뮈를 들고 서있다.

바울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동일하게 보았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하였다. 여기서 “한 성령으로”는 한분 성령님에 의해서 물로 침례를

받았다는 뜻이다. 또 “한 몸이 되었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공동체의 정식 회원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땅의 상속자임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셨고, 선취하게 하시고 또 그 땅으로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디도서 3장 5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신자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신자들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셨으며, 성령님은 의사로서 침례 중에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시키시고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뜻이다(골 2:12).

바울은 의사이신 성령님의 이 사역을 일컬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했다. 이 과정 곧 침례 중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

졌거나 “새롭게 하심” 곧 고침을 받았을 때를 일컬어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부르고, ‘초기성화’로 일컫는다. 그것은 마치 수정(잉태)으로부터 출산까지가 새 생명의 탄생의 과정인 것과 같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여 결혼에 골인하기까지가 부부탄생의 과정인 것과 같다. 따라서 침례는 중생의 시간으로, 혼례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의 시간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세속인이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등록교인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점진적인 성화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점진적인 성화의 삶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일을 힘써야하는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엡 2:8). 그러므로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에 연결된다.

## 1세기 교회질서40: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9)(딤후 3:9-15)

### “어리석은 ... 다툼은 피하라”



그레데 크노소스 궁전 남쪽 입구

바울은 9-11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바울은 네 가지를 피하라고 권하였다. 첫째는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둘째는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 셋째는 “분쟁”을 피하라. 넷째는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했다. 같은 권면이 디모데에게도 주어졌다. 이어서 바울은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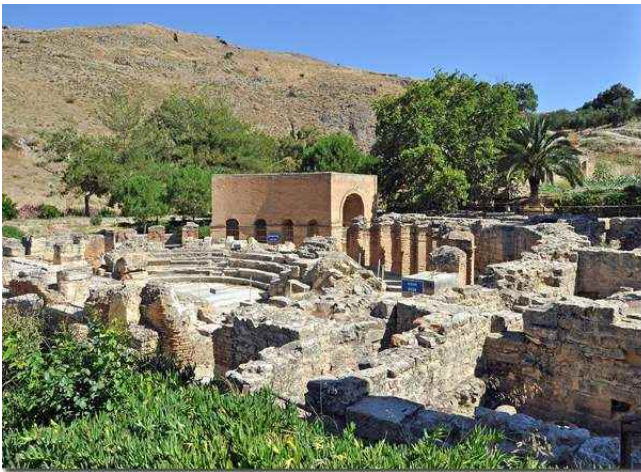
첫째는 “무익한 것...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어리석고 공허하며 “끝없는” 것이어서 정신과 시간을 온통 빼앗아버려 선한 사역에 몰두하지 못하게 만들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둘째는 변론과 분쟁 또는 다툼의 상대가 “이단에 속한 사람,”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토론이나 변론을 통해서 이런 자들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조차도 이런 자들과의 싸움이 녹록치 않았다. 따라서 바울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는” 것이었고, 교회공동체에서 몰아내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신학적인 논쟁조차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바

울은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전하며 교회의 울타리를 허물기에 혈안이 된 여우무리 곧 유대인 에비온파를 저지하고 몰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13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로마의 오데온(음악당) 유적(그레데의 코르티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고 (딤후 1:18, 6:12), 디도에게도 에비온파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권하였다 (1:11-13). 같은 이유로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유대교의 ‘미슈나’(Mishnah), 일명 ‘장로들의 유전’(oral torah) 혹

은 ‘게자이로트’(gezairoth)로 알려진 ‘안식일 법,’ ‘식사 전 손 씻기법,’ ‘카샤롯 음식법,’ ‘그릇 씻기법’ 등이 고침 받아야 할 병든 상태 또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란 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하였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철학이나 신화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들을 말하고,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리스도를 믿는 교리에 상반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그 같은 무기로 그리스도께서 주군으로 계신 거룩한 백성을 가로채고 사로잡으려는 자들에게 포로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경고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들을 일컬어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특히 4장 10절에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며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빛으로 말하자면, 태양빛이 아니라 별빛이나 달빛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바울이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들로

지적인 것 가운데 가장 경계한 적대세력이 토라준수를 강조한 유대인 에비온파였다. 그들은 교회에 침투하여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권위에 강력히 도전하였다.

당대 그리스-로마사회의 문화와 관습은 신화에 기초한 종교와 철학에 깊은 관계가 있었다. 사람들은 3만이 넘는 신들을 받아들였고, 신전이나 사당에 모셔져 예배를 받았던 신들도 수없이 많았다. 또 각 신전과 사당들에서는 매년 수차례씩 축제가 열렸다. 이들 축제들은 대개가 우상숭배와 음복과 음행이 수반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혹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참된, 영원한, 빛의, 진리의 세계를 강조한 플라톤의 이데아론; 보이는, 땅의, 윤리적인, 현실적인, 현상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금욕을 강조하는 스토아철학의 숙명론,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긴 에피쿠로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었다.

####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레테의 파이스토스(Phaistos) 유적지

12절 “내가 아데미나 두 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 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에서 “아데미”(Artemas)는 에베소의 주신 아데미(Artemis)의 남성형이거나 ‘아데미의 선물’이란 뜻의 ‘아르테미도루스’(Artemidorus)의 약칭일 것이다. 전승에 의하면, 아데미는 디모테의 고향교회인 루스드라의 감독이었다고 한다. “두기고”(Tychicus)는 바울과 함께 여러 번 여행하였다(행 20:4, 엡 6:21, 골 4:7).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1-22절과 골로새서 4장 7-8절에서 두기고를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성도들의 마음을 바울을 대신해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불렀다. “두기고”(Tychicus)란 이름은 ‘행운’ 또는 ‘운명’이란 말에서 비롯됐다. 그는 이름대로 파송된 지역의 성도들에게 예기치 않은 행운과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주었다.

니고볼리(Nicopolis)는 ‘승리의 도시’란 뜻이다. 주전 31년에 악티움(Actium) 인근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함대를 물리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제국의 초대황제에 즉위한 주전 29년에 해전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자치도시로써 로마시민증을 수여받은 퇴역군인들의 정착지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이탈

리아에 적용되는 동등한 권리(jus italicum)가 이곳에서도 적용되었다. 니고볼리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이오니아 해(Ionian Sea) 그리스 땅 해안에 있었기 때문에 디도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 그레데에서 배를 타고 가기에 편리한 곳이었다.

13절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에서 “세나”(Zenas)는 ‘제우스의 선물’이란 뜻을 가진 ‘제노도루스’(Zenodorus)의 약칭일 것이다. 세나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 율법사였거나 헬라인 법률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볼로(Apollos)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구약성경의 모형론 해석에 뛰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바울 일행을 만나 개종하였고 그들의 추천으로 고린도교회를 섬겼던 사역자이다. 세나와 아볼로는 바울의 보냄을 받고 파송지로 가는 도중에 디도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레데를 경유한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디도가 세나와 아볼로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그들이 신속히 그레데를 떠나 파송지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랐다. 따라서 바울은 14절에서 성도들이 이 같은 ‘선한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이끌라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15절은 한 지역의 교회공동체가 다른 지역의 교회공동체에게 보내는 문안인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비는 축복기원이다.